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19년(1차년도) 연차보고서

2020. 1

강원대학교

- III. 1차년도 사업 성과 12
 - i. 핵심 성과 12
 - ii. 추진 과제별 실적 12
 - 1.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연구개발) 12
 - 1.1 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12
 - 1.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개발 연구 19
 - 1.3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연구 지원 64
 - 1.4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110
 -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128
 - 2.1 오피너스 특강 및 강좌 특강 지원 128
 - 2.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운영 지원 145
 - 2.3 동해 평화학교 운영 147
 - 2.4 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150
 - 2.5 온라인 평화 공감 시리즈 제작 163
 - 2.6 대학(원)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개최 170
 - 2.7 대학생 토론회 개최 174
 - 2.8 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179
- III. 2019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등 188
 - i. 잘된 점 188
 - ii. 향후 발전방안 188
 - iii. 개선 및 건의사항 188
- IV. 2019년 예산 집행 실적 190

- I. 1차년도 사업 개요 1
 - i. 기본 구상(성과 목표) 1
 - 1. 사업비전 및 목표 1
 - 2. 추진 전략 2
 - 3.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3
 - ii. 세부 성과목표 5
 - 1.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5
 - 1.1 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5
 - 1.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개발 연구 5
 - 1.3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연구 지원 6
 - 1.4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6
 -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7
 - 2.1 오피너스 특강 및 강좌 특강 지원 7
 - 2.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운영 지원 7
 - 2.3 동해 평화학교 운영 8
 - 2.4 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8
 - 2.5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제작 9
 - 2.6 대학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개최 9
 - 2.7 대학생 토론회 개최 9
 - 2.8 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10
 - iii. 추진과제 11

I 1차년도 사업 개요

i 기본 구상(성과 목표)

1. 사업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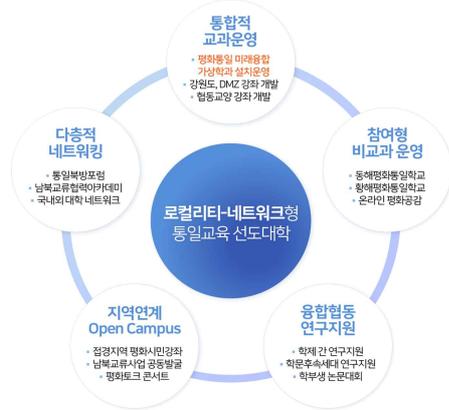
○ 강원대학교의 로컬리티-네트워크형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 사업 모델은 [그림 1]과 같음. 대학발전의 비전 및 목표와 부합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 사업의 비전 및 목표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합적 교육, 융합적 연구, 연계형 확산 전략은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기반의 통일교육 시행을 가능케 함.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로컬리티-네트워크형 통일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키고자 함.



[그림 1]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비전 및 목표(로컬리티-네트워크형)

2. 추진 전략

-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 사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은 [그림 2]와 같음. 추진전략은 크게 통합적 교과운영, 참여형 비교과 운영, 융합협동 연구지원, 지역연계 오픈캠퍼스, 다층적 네트워킹 5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되어 있음.



[그림 2]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추진전략

구분	단위사업	과제 목표
	④대학(원)생 논문 지원	○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학부생 논문 발표 수(5건)
		○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신규)
	⑤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
		○ 토론대회 참가 학생 수(40명)
	⑥해외교류네트워크 구축	○ 토론대회 주제의 다양성
○ 해외 학술회의 참가(2회)		
○ 해외 대학/기관 MOU(1건)		
○ 해외 학자/전문가 초청(3명)		
		○ 해외 기관 및 전문가 교류 활용 결과의 다양성

3.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구분	단위사업	과제 목표	
연구 개발	①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 미래융합 가상학과 개설(1건) ○ 이슈 브리프 제작(4건) ○ 전문가 자문 및 평가 회의(10회) ○ 가상학과 운영의 질	
	②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개발연구	○ 강좌개발연구 과제 수(8건) ○ 강좌개발 과제 참여 교원 수(10명) ○ 교과개발연구 참여 단과대학 및 학부의 다양화	
	③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 연구지원	○ 개발 교과목의 실제 운영 여부 ○ 통일, 평화 관련 공모과제를 통한 연구지원(10건) ○ 동계(후보)학술지 게재 수(5건) ○ 연구 종료 1년 이내 동계(후보)학술지 게재 여부	
	④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 연구과제 영역의 다양화 ○ 평화·통일, 북한 관련 포럼 진행(5회) ○ 평화·통일, 북한 관련 학술회의 진행(2회) ○ 학술회의 및 포럼 주제 및 개최장소의 다양성 ○ 학술회의 및 포럼 주제 교과목 활용 여부	
강좌 (모형) 운영	①유니버시티 특강 및 강좌지원	○ 지원 대상 강좌 운영 수(4건) ○ 특강 개최 횟수(35회) ○ 수강 학생 수(300명) ○ 만족도(3.5점 이상) ○ 특강 영역의 다양화 ○ 특강 주제에 대한 공간대 형성	
		②교과운영지원	○ 전공강좌 개설 수(5건) ○ 교과 만족도(3.5점 이상) ○ 교과목 강의평가 ○ 개설 과목의 지속성
	비교과	①동해평화학교	○ 참여 학생 수(50명) ○ 참여 학교 수(3개교) ○ 만족도(3.5점 이상) ○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②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 타 학교,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 비교과 아카데미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2건) ○ 참여 주민, 학생 수(300명) ○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주민, 학생 대상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
	③온라인 평화공간 제작편수	○ 온라인 평화공간 제작편수(5건) ○ 프로그램 및 주제의 다양성	

ii 세부 성과목표

1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1.1 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가. 사업목적

- 일반적인 강좌 운영에서 시도할 수 없었던 차별화된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 제시
- 대학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미래융합 가상학과(평화·통일 영역) 개설 수	1	미래융합 가상학과(평화·통일 영역) 운영의 질
2	이슈브리프 제작 수	4	사업 종료 이후에도 강좌 운영 기준(최소 정원) 충족 여부
3	전문가 자문 및 평가회의 수	10	미래융합 가상학과에 대한 내 정규 학과 설치 여부

* 정량목표의 미래융합 가상학과 개설은 강원대학교 가상학과 설치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됨에 따라 교과 개설이 2019-2학기에 완료될 경우 개설 강좌의 운영은 2차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음.

1.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개발 연구

가. 사업목적

- 평화·통일, 북한 관련 강좌의 교육과정 개편 및 신설을 위한 교과 개발 연구 지원, 콘텐츠 개발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효과 확산

나. 성과목표

교과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연구개발 과제 수	8	교과개발연구 참여 단과대학 및 학부의 다양화
2	연구개발과제 교원 참여 수	10	개발된 교과목의 실제 운영 여부

1.3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 연구지원

가. 사업목적

- 교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북한과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교과개발과 관련된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 하고자 함.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연구지원 수	10	연구과제 영역의 다양화
2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수	5	연구 종료 1년 이내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여부

1.4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가. 사업목적

- 평화·통일, 북한 관련 학술 심포지엄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환경 조성 및 관련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평화·통일, 북한 관련 포럼 개최	5	학술회의(포럼) 주제의 다양성
2	평화·통일 관련 학술회의 개최	2	학술회의(포럼) 개최 장소의 다양성
3			학술회의(포럼) 주제의 교과목 활용 여부

비교과

2.3 동해 평화학교 운영

가. 사업목적

- 대학생 대상 동해안 지역의 분단현장 체험 진행을 통해 DMZ 생태계 이해 및 생명-평화 감수성(Eco-Peace Sensitivity) 증진 도모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참여 학생 수	50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2	참여 학교 수	3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정도(타 학교,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
3	만족도 조사(5점 척도)	3.5	

2.4 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사업목적

- 대학생 대상 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형태의 진행을 통해 일반 강의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 시행, 통일의 중요성 제고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명)	
1	프로그램 운영 수	2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적 추진 여부
2	참여주민 학생 수	300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3			지역주민과 학생과의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

2.1 유니버스 특강 및 강좌 특강 지원

가. 사업목적

- 유니버스 행태의 특강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 담론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명, 평점)	
1	강좌 운영 수	4	특강 영역의 다양화
2	특강 개최 수	35	특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대 여부
3	수강 학생 수	300	
4	만족도 조사(5점 척도)	3.5	

2.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운영 지원

가. 사업목적

- 통일·평화, 북한관련 개발 및 개편된 교과목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시행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평점)	
1	교양강좌 개설 수	8	교과목 강의평가에 따른 학생 만족도
2	전공강좌 개설 수	5	개설된 과목의 지속성
3	만족도 조사(5점 척도)	3.5	

2.5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제작

가. 사업목적

- 대학생 및 지역 주민, 일반인들이 온라인 채널을 매개로 평화·통일, 북한과 관련된 전문가, 예술가 등의 삶을 조명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제작 편수	5	평화, 통일, 인권 등 시리즈 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2			온라인 공개에 따른 일반인 접근성 증대 및 확산

2.6 대학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개최

가. 사업목적

- 대학생 대상 평화·통일, 북한과 관련된 논문 경진 대회 개최를 통해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양성과 공감대 형성의 기회 마련

나. 성과목표

순번	정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논문 발표 수	5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

2.7 대학생 토론회 개최

가. 사업목적

- 평화·통일, 북한 관련 대학생 토론회 개최를 통한 관심도 및 인식 제고

나. 성과목표

순번	경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토론회 참가 학생 수	40	토론회 주제 다양성

2.8 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가. 사업목적

- 국내외 평화·통일, 북한 관련 전문가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세계적 이슈 및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나. 성과목표

순번	경량 목표		정성 목표
	내용	목표(건)	
1	해외 학술회의 참가 수	2	해외 기관 및 전문가와의 교류 활용에 대한 적극성 및 다양성
2	해외 대학 및 기관 MOU 체결 수	1	
3	해외 학자 및 전문가 초청 수	3	

iii 추진과제

구분	단위사업	주요 목적	주요 내용	
연구개발	①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 제시	o 가상학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o 이슈 브리프 제작	
	②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개발연구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육 효과 확산	o 강좌개발연구를 위해 강좌 당 지원 사업	
	③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 연구지원	평화·통일, 북한 관련 콘텐츠 발굴	o 통일, 평화 관련 공모과제를 통한 연구지원	
	④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육 환경 조성 및 관련 연구 질적 향상 도모	o 국내, 국제 학술회의 및 포럼 진행	
강좌(모델) 운영	교과	①유니버스 특강 및 강좌지원	평화·통일 담론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	o 교과개발 준비 특강 o 비교과 특강 및 행사 지원
		②교과운영지원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시행	o 신규교과 운영 지원 o 기존교과목 확대개편 지원
	비교과	①동해평화학교	DMZ 생태계 이해 및 생명-평화 감수성 증진 도모	o 동해안 지역의 분단현장 직접 체험하는 현장 학습 진행 (강릉원주대, 서울대 연합 아카데미)
		②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 시행, 통일의 중요성 제고	o 비교과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o 비교과 현장 체험학습 지원
		③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평화·통일, 북한관련 전문가 및 예술가의 삶을 조명하고 간접체험기회 제공	o 주요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들의 초청 특강 및 간담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④대학(원)생 논문 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속적 양성과 공감대 형성 기회 마련	o 북한, 통일, 평화관련 석사, 박사과정 대학원생 논문작성 지원 o 학부생 논문 경진대회 및 발표 진행
⑤대학생 토론회 개최	평화·통일, 북한관련 관심도 및 인식 제고	o 북한, 통일, 평화 논문발표, 토론 및 연구 프리젠테이션 대회 - 통일교육주간 사업과 연계		
⑥해외교류네트워크 구축	평화·통일 관련 세계적 이슈 및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기회 마련	o 북한, 통일, 평화 관련 해외 석학 초청 및 네트워크 구축		

II 1차년도 사업 성과

i 핵심 성과

- 강원대학교는 1차년도 사업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 4개 사업, 강좌운영 교과 2개 사업, 비교과 모델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데 주력하였음.
- 교내의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북한/통일/평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당 이슈가 개인의 문제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환기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음.

ii 추진 과제별 실적

1.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연구개발)

단위 사업	주요 내용
1. 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o 가상학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o 이슈 브리프 제작
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개발연구	o 강좌개발연구를 위해 강좌 당 지원 사업
3.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 연구지원	o 통일, 평화 관련 공모과제를 통한 연구지원
4.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o 국내, 국제 학술회의 및 포럼 진행

1.1 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1.1.1 주요내용

- 통일·평화·북한과 관련된 가상학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고등 통일교육 모델을 확립함. 1차년도의 경우 사업 종료 기간인 2022년까지 연차별 강좌 개설 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제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음. 더불어 향후 선도대학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 내 정규 학과 설치를 목표로 행정·시설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이슈브리프 제작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가상학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내 구성원들의 관심 및 운영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함.

1.1.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미래융합 가상학과 (평화·통일 영역) 개설 수 1건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융합 가상학과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및 대학 본부 가상학과 개설 담당 부서(학사지원과), 운영 부서(교육혁신원) 협의 진행 완료 • 선도대학 사업 중 교과개발 및 교육과정 개편 참여 교원 간 네트워크 구축 (총 5개 학과 6개 강좌)
2	정량	이슈브리프 제작 수 4건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이슈브리프 제작(2월 기준 12건)
3	정량	전문가 자문 및 평가 회의 수 10회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학과 개설 관련 전문가 및 운영진 자문회의 실시 진행 - 19.5.14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의 - 19.7.19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자문회의 - 19.7.25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의 - 19.8.2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의 - 19.8.14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의 - 19.8.21 평화학과 학부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지자체 협의 회의(태백시청) - 19.8.22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의 - 19.9.2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이슈브리프 제작 관련 회의 - 19.9.3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관계자 회의 - 19.9.9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전문가 회의
4	정성	미래융합 가상학과 운영의 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회의 결과 및 가상학과 참여 교수진 등의 의견수렴 반영 과정 등을 통해 운영의 질 제고

1.1.3 세부 운영 실적

가) 강원대학교 가상학과·연계전공 설치·운영 계획

(1) 관련 규정 및 지침

- 강원대학교 학칙 제5조 제1항
- 강원대학교 미래융합가상학과·연계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학사지원과-6230(2019. 7. 29, 총장 결재) 『2020학년도 미래융합가상학과·연계전공 설치·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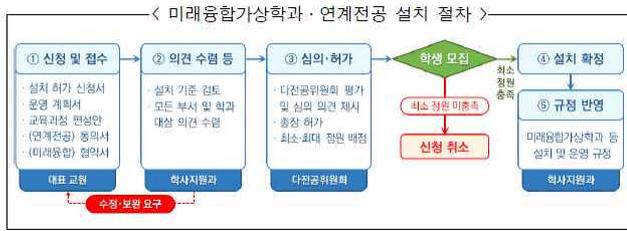
(2) 전공 및 설치 유형

- 미래융합가상학과에 한하여 재학생의 전공 이수 방법에 따라 부전공복수전공 병행 또는 부전공만 개설하는 전공으로 구분할 수 있음. 미래융합가상학과는 학과 간 또는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연계전공은 학과 간 참여에 따른 설치만 가능함.

전공 유형	설치 유형	비고
미래융합가상학과	• 2개 이상의 학과(전공)에서 학과별 전임교원이 1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 대학 간 협약에 의하여 국내외 다른 대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공동-복수학위 연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복수전공 필수)
연계전공	• 정규 학과(전공) 또는 부서 주관으로 2개 이상의 정규 학과(전공)가 참여하는 경우	

(3) 설치 절차 및 기준

- 설치 기준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다진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최소 정원 충족 시 최종 승인됨.
- 학문 간 융합 또는 신산업 대응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정규 학과-전공이 참여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최소 정원의 충족 등 설치 요건을 충족하여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전공은 확정 공고 및 관련 규정이 반영됨.



나) 평화·통일 관련 가상학과 설치 준비 계획(안)

○ 설치 목적

- 강원대학교 비전인 '동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서 평화학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시대의 선도적 대비를 위한 인재 양성 목적
-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융합하는 평화학 연구의 다층적 시각학습을 통해 학부생들에게 평화연구의 이해력 및 분석력 향상 도모
-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기존 전쟁과 대결 그리고 냉전으로 지속돼 온 안보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인 시도 목적
- 향후 '일반대학원 평화학과'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안정적 학과 운영 구축 도모

○ 설치의 필요성

-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시대에 맞는 종합적 학문을 연구하는 선도적 인재 양성
- 한반도 평화시대 및 남북화 통일에 대한 평화학적 이해 증진 필요
-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평화시민주의 양성 필요
- 새로운 평화문화·문명의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학문적 역할 필요

○ 교육 분야

- 평화학 관련 학내의 통일, 정치, 남북한 관련 교과목 연계
- 정치, 문화, 언어, 교육, 경제, 사회, 심리 등 인문사회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농수산, 지질, 물리, 산림, 보건, 생명, 환경, 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남북협력, 평화관련 교과목 연계 구성
- '일반대학원 평화학과' 교육과정 연계

○ 타 대학 설치 사례

대학명	전공 형태	전공명	교육 분야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과	복합학전공	• 북한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선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양성 - 북한학, 통일학, 북한정치, 북한경제 등
평택대 (괴어선 교양전공)	학과	통일학 외교통상전공	• 남북비교론, 통일 및 통합론,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론 학습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통일 인재 양성 - 북한정치, 사회문화, 평화통일론, 한반도 통일과 국제관계 등
고려대	학과	통일외교안보전공	• 북한/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

대학명	전공 형태	전공명	교육 분야
(공공정책대학)			및 전공과목 영어 개설을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지닌 통일외교안보전문가 양성 - 통일외교안보, 경제정책학, 국가통계, 정부행정학 등
고려대 (문과대학)	융합전공	통일과 국제평화 융합전공	• 인문학적 소양을 기본으로 한반도 통일과 국제평화의 정착을 실천할 수 있는 비교사적 인식을 갖춘 인재 양성 - 통일과 국제평화, 역사·인문이해, 문화소통이해, 국제관계 이해 분야 등
인제대 (리버럴 아츠칼리지)	연계전공, 부전공 (자기설계전공)	통일학 전공	• 증가하는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통일 문제 전문가 수요에 부응하여 민족의 화해 협력과 평화통일 시대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 - 북한경제론, 남북교류협력론, 북한정치, 통일정책, 한반도 평화론 등
숭실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융합전공 (미래사회 수요 융합전공)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전공	• 통합사회 건설, 국제개발협력,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실천적 역량을 지닌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양성 - 경제 없는 미래

○ 전로 및 취업 분야

전로 분야	취업 분야	목표 직종
(1)국제 및 국가 기관	① 국제기관 ②국제 국가기관 및 공공 산하기관	• UN, UNESCO 등 • 통일부, 외교부, 각국 대사 등
(2)연구원	①사회과학연구원	• 북한경제연구원 등 • 평화·통일 관련 연구원(대학 포함)
(3)사회복지·문화·예술 방송	①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②문화 분야 관련직	• 평화NGO, KOICA, KOTRA 등 사회활동단체 • 방송 및 언론사, 박물관, 동북아시아재단 등
(4)대학원생	①국내의 대학원 진학	• 대학원 진학 후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진출

○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통한 전문 인력 수요 및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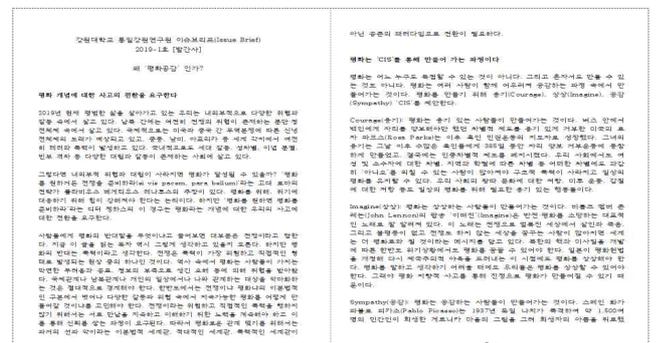
- 평화·통일, 북한 관련 사회적 논의의 확산 속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임. 특히 전문 인력의 경우 통일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통일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하며, 대북지원, 대북개발과 관련된 협력분야에 대한 이해, 남북 문화유산 및 문화교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기에 체계적 양성 구조와 구체적 양성의 틀이 미흡한 편임.

-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 인력 수요의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에서의 다각적 접근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전공의 평화·통일 관련 가상학과 신설을 통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향후 가상 학과의 정규학과 안착 및 동 대학의 대학원 전공(평화학과)로의 진학 단계는 체계적인 평화·통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와 필요성이 있음.

나) 이슈브리프 발간

- 평화·통일, 남북교류에 대한 이슈브리프를 제작 및 배포하여 공감대 형성 및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등을 제고하고자 하며, 총 2회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하였음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6	지역 내 갈등과 협력 I - 미국과 일본	이론강의(PPT자료), 조별발표 및 토론
7	지역 내 갈등과 협력 II - 중국과 일본	이론강의(PPT자료), 조별발표 및 토론
8	중간고사	중간고사
9	지역 내 갈등과 협력 III - 북한과 중국	이론강의(PPT자료), 조별발표 및 토론
10	지역 내 갈등과 협력 IV - 한국과 중국	이론강의(PPT자료), 조별발표 및 토론
11	지역 내 갈등과 협력 V - 미국과 중국(1)	이론강의(PPT자료), 조별발표 및 토론
12	지역 내 갈등과 협력 VI - 미국과 중국(2)	이론강의(PPT자료), 조별발표 및 토론
13	한반도 정세변화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I	이론강의(PPT자료), 조별발표 및 토론
14	한반도 정세변화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II	이론강의(PPT자료), 종합정리 및 종합토론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 교직관련 교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연계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중등교육과 단원명 제시)을 기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론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현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관련 이슈 및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1	강의 소개	디지털캠퍼스 안내
2	전쟁과 평화란 무엇인가?	디지털캠퍼스 안내
3	전쟁의 역사	디지털캠퍼스 안내
4	전쟁의 원인	디지털캠퍼스 안내
5	전쟁의 종결방법	디지털캠퍼스 안내
6	전쟁과 안보(security)	디지털캠퍼스 안내
7	미중패권 전쟁, 핵전쟁	디지털캠퍼스 안내
8	중간고사	디지털캠퍼스 안내
9	평화(소극적 평화): 군축과 군비통제	디지털캠퍼스 안내
10	평화(소극적 평화): 참에 의한 평화, 세력균형	디지털캠퍼스 안내
11	평화(소극적 평화): 외교와 국제기구	디지털캠퍼스 안내
12	평화(적극적 평화): 인권과 환경/생태학	디지털캠퍼스 안내
13	평화(적극적 평화): 빈곤과 불평등	디지털캠퍼스 안내
14	평화(적극적 평화): 화해와 비폭력, 민주주의	디지털캠퍼스 안내
15	종합토론 & 기말고사	디지털캠퍼스 안내

* 교직관련 교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연계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중등교육과 단원명 제시)을 기재

전쟁과 평화 (황수환)

과목코드	1200058	과목명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분 반	1	강의실	60주년기념관 110	요일및시간	월A2/목A2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황수환	연구실		면담시간		전화	0
성적평가	중간: 30%	기말: 30%	과제: 20%	출석: 10%	기타: 10%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전체전공)전학년		교과구분	균형	교직구분		
직업군분류1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직업 연관성1	상		
직업군분류2				직업 연관성2			
직업군분류3				직업 연관성3			
직업군분류4				직업 연관성4			
직업군분류5				직업 연관성5			
교과목표 및 개요	<p>1. 전쟁과 평화라는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2. 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국제정세 속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3.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상호관계를 복합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p> <p>본 수업은 전쟁과 평화(2부)로 구성된다. 제1부 '전쟁'에서는 전쟁의 의미, 원인, 최근 전쟁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2부 '평화'에서는 평화의 의미, 평화구축방법 및 유지방안에 대해 살펴본다.</p>						
수업운영 방식	<p>강의식, 질의응답식, 토론식 수업 진행됩니다.</p> <p>수업 전 공지하는 내용과 과제에 대해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정도의 분량으로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p>						
교재 및 참고문헌	<p>David P. Barash-Charles P. Webel 지음, 송승중·유재현 옮김, 「전쟁과 평화」(영인문화사, 2018). 추가 참고자료는 수업시간 및 디지털캠퍼스를 통해서 제공합니다.</p>						
선수과목 및 지식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관심있는 학생 누구나 수강가능합니다.						
수업효과 및 기대	전쟁과 평화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 및 통일문제의 이해 (윤홍근)

과목코드	1200083	과목명	북한및통일문제의이해(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unification problem)				
분 반	1	강의실	교육1호관 307	요일및시간	화5.6.7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윤홍근	연구실		면담시간	강의 후	전화	-
성적평가	중간: 35%	기말: 35%	과제: 10%	출석: 10%	기타: 10%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전체전공) 전학년		교과구분	균형	교직구분		
직업군분류1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직업 연관성1	상		
직업군분류2				직업 연관성2	상		
직업군분류3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직업 연관성3	중		
교과목표 및 개요	<p>교양수준에서 우리에게 위협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대상인 북한의 이점성을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한다. 또한 정치 안보관련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토대를 제공 하고 통일한국의 비전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p>						
수업운영 방식	<p>북한 및 통일문제의 강의(PPT, 동영상)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수업 운영</p>						
교재 및 참고문헌	<p>1. 교재: 강의 PPT 2. 참고문헌 (1)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2019) (2)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2019) (3) 박영택, 북한 김정은체제 이해 (서울, 북코리아, 2017)</p>						

	(4) 대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서울, 기피향, 2018) (5)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서울, 북한연구소, 2019) (6) 인연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서울, 타커스, 2018) (7) 국방부, 2019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9) (8) 주성하, 방랑 자본주의 백과사전 (서울, 북동출, 2018) (9) 주성하, 조선 레벌루션 (서울, 서울벨릭스, 2018)
선수과목 및 지식	균형잡힌 시각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의 이해
수업효과 및 기대	북한의 객관적 현실, 남북관계의 현황 및 주변 4강의 대한민국 정책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가관과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방식	수업 전 공지하는 내용과 과제에 대해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정도의 분량으로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업효과 및 기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각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통일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1	강의 개관 (과목 및 수업 진행 소개)	1주차 강의PPT
2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2주차 강의PPT
3	북한 정치	3주차 강의PPT
4	북한 외교	4주차 강의PPT
5	북한 군사	5주차 강의PPT
6	북한 경제	6주차 강의PPT
7	북한 교육, 문화 및 주민생활	7주차 강의PPT
8	중간고사	8주차 강의PPT
9	통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9주차 강의PPT
10	남북관계의 전개	10주차 강의PPT
11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11주차 강의PPT
12	우리의 통일 노력	12주차 강의PPT
13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	13주차 강의PPT
14	기말시험	14주차 강의PPT
15	보충강의 (북한 및 통일문제 토의)	15주차 강의PPT

* 교직관련 교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연계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중등교육과 단원명 제시)을 기재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1	강의 소개	개별자료 제공
2	북한의 기본적 이해	개별자료 제공
3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개별자료 제공
4	북한정치사1: 분단과 한국전쟁	개별자료 제공
5	북한정치사2: 김일성 시대	개별자료 제공
6	북한정치사3: 김정일 시대	개별자료 제공
7	북한정치사4: 김정은 시대	개별자료 제공
8	중간고사	-
9	북한의 정치, 행정체계: 당, 군, 내각	개별자료 제공
10	북한의 외교, 군사정책	개별자료 제공
11	북한의 경제정책	개별자료 제공
12	북한의 사회문화정책	개별자료 제공
13	한반도 통일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개별자료 제공
14	한반도 통일2: 주변4국과 통일	개별자료 제공
15	기말고사	-

* 교직관련 교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연계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중등교육과 단원명 제시)을 기재

북한정치와 사회 (황수환)

과목코드	4323067	과목명	북한정치와사회(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분 반	1	강의실	사회과학2호관 121	요일및시간	화2.3.4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황수환	연구실		면담시간		전화	-
성적평가	중간: 30%	기말: 30%	과제: 20%	출석: 20%	기타: 10%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교과구분	전선	교직구분		
교과목표 및 개요	<p>2018년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국제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분단 이후 지속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세계 유일한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 이해는 매우 절실하다. 과연 무엇이 북한을 현재까지 유지하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본 강의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사상과 지배관, 권력구조, 군사력, 경제, 대외관계, 통일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본다.</p>						
수업운영	강의식, 질의응답식, 토론식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전쟁과 평화 (황태연)

과목코드	1200058	과목명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분 반	1	강의실	60주년기념관 111	요일및시간	수2.3.4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황태연	연구실		면담시간		전화	-
성적평가	중간: 30%	기말: 30%	과제: 20%	출석: 15%	기타: 5%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교과구분	균형	교직구분		
직업군분류1	관리직			직업 연관성1	중		
교과목표 및 개요	<p>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명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다. 과연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픈의 고리를 끊고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본 강의는 국제관계를 단순하게 전쟁과 평화라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둘을 동시에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문제를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해 전쟁과 평화라는 관점에서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이해하며, 나아가 새로운 미래의 모습,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하고 전망해 본다.</p>						
수업운영	본 강의는 주로 강의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개별(조별) 발표를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토론 수						

방식	업을 병행한다. 기타 온라인 및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여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이리애이카저? 쯔진구? 이종국의 『20세기의 전쟁과 평화(개정판)』, 연암서가, 2016. 2. David P. Barash? Charles P. Weber 저? 송승중? 유재현 역, 『전쟁과 평화』, 영인문화사, 2018. 3. Nye, Joseph S. 저, 알준희? 이종삼 역, 『국제관계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 2009. 4. Baylis, John (존베일리스) 외 저? 허영선 외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12. 5. 이등기편자, 『20세기 평화백서 15선』, 아카넷, 2013.
수업효과 및 기대	1. 본 강의를 통해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평화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한다. 2.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본다. 3.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망해 본다.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1	강의소개/왜 전쟁을 하는가?	이론강의(PPT), 강의 관련 질의응답
2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론강의(PPT), 발표주제 소개 및 조편성
3	세계대전에서 이르는 길	이론강의(PPT), 토론
4	20세기의 대전쟁들 I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동영상 시청
5	20세기의 대전쟁들 II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6	냉전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7	냉전 후의 전쟁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8	중간고사	중간고사(필기시험)
9	세계화와 상호의존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10	초국가행위자와 국제사회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11	세계화 시대의 평화담구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12	국제적 쟁점 그리고 신세계질서?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13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I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14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II	이론강의(PPT), 조별(개별)발표 및 토론
15	기말고사	기말고사(필기시험)

* 교직관련 과목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한에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종교등학교 단원명 제시)을 기재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한건수)

과목코드	4327057	과목명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Tradition and Change in Korean Culture)				
분반	1	강의실	사회과학2호관 332	요일및시간	화7,8,9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한건수	연구실	사회대 301호	연담시간	수업 전후	전화	-
성적평가	중간 : 50% 기말 : 50% 과제 : % 출석 : % 기타 : %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교과구분		전선 교과구분		
교과목표 및 개요	본 강의는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를 문화이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과목이다. 문화의 개념, 사회가 문화의 변동을 견제하고 있을 만큼 문화의 변동은 모든 문화에서 경험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문화의 전통과 변동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 과목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학습할 것이다.						
수업운영	수업은 강의와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강의 초반에 문화변동에 대한 이론						

방식	적용 방식을 가진 후에는 한국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전통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논문과 책을 읽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교재 및 참고문헌	교재: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서울: 민속원 참고문헌: 피터 버크 <문화론총서> 서울: 이음 참고문헌: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서울: 동아시아 참고문헌: 로버트 영, <식민지민행> 북코리야
수업효과 및 기대	한국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한 한국문화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1	강의 및 교재 소개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2	문화의 개념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3	문화변동 이론: 문화집변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4	문화변동 이론: 혼성문화	피터 버크 <문화론총서>
5	문화변동 이론: 트랜스컬처레이션	<디아스포라와 혼성성>
6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한국문화의 다양성	<디아스포라와 혼성성>
7	중간고사	시험범위
8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혼인과 가족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9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10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종교 1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11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종교 2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12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지역문화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13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도시화와 공동체	줄리안 스튜어트 <문화변동론>
14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	북한대학원대학교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분단 너머 마음잇기>
15	기말고사	시험범위

* 교직관련 과목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한에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종교등학교 단원명 제시)을 기재

한반도의 국제관계 (임유진)

과목코드	4323096	과목명	한반도와 국제관계(Korean Peninsular and Regional Affairs)				
분반	1	강의실	사회과학2호관 121	요일및시간	월A6/목A6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임유진	연구실		연담시간		전화	-
성적평가	중간 : 40% 기말 : 40% 과제 : 10% 출석 : 10% 기타 : %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교과구분		전선 교과구분		
교과목표 및 개요	본 강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현재를 이해하고 종전국으로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안보 갈등과 지역협력이라는 중층적인 갈등과 협력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전공자로서 국제관계에 관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강의내용 및 주제는 주주 변동 가능함)						
수업운영 방식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강의와(강의안은 e투리 게시판 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관계 이슈에 대한 수강생들의 토론으로 진행됨						
교재 및	유현석, 2018, 『국제관계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개정판 5판)						

참고문헌	
수업효과 및 기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변화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국가들의 노력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1	강의소개, 국제관계이론(1)	강의안, 유현석 1장
2	국제관계이론(2)/	유현석 1장
3	국제기구: UN과 한반도	유현석 9장
4	미국: 주한미군과 동맹	유현석 6장
5	중국: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 미중갈등과 한반도	유현석 3장
6	일본: 미일관계와 한일협정	강의안
7	북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북핵 문제/중간고사	유현석 7장
8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	강의안
9	유럽의 지역통합과 한국	유현석 5장
10	무역(1): WTO와 한국	유현석 14장
11	무역(2): ASEAN과 한국	유현석 14장
12	금융(1): IMF와 한국	유현석 15장
13	금융(2): OMI와 한국	유현석 15장
14	남북한 경제협력	강의안
15	종합토론(12, 16)/ 기말고사(12, 19)	기말고사

* 교직관련 과목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한에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종교등학교 단원명 제시)을 기재

강원도와 DMZ (김창환)

과목코드	1300030	과목명	강원도와 DMZ(Gangwon-do and DMZ)				
분 반	1	강의실		요일및시간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김창환	연구실		연담시간		전화	2506695
성적평가	중간 : 30% 기말 : 30% 과제 : 10% 출석 : 30% 기타 : 0%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전체전공)전학년		교과구분		특화 교과구분		
직업군분류1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직업 연관성1		상		
직업군분류2	관리직		직업 연관성2		중		
직업군분류3	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직업 연관성3		상		
직업군분류4	군인		직업 연관성4		중		
직업군분류5	영양 및 판매 관련직		직업 연관성5		중		
교과목표 및 개요	본 과목은 강원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리적 환경과 한반도 유일의 분단 도(島)인 강원도를 만들어 낸 DMZ, 그리고 그로 인해 뜻하지 않게 탄생한 '점령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수업운영 방식	-이러닝 강좌 운영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 6주차 강의 -7주차 중간시험(오프라인) 실시						

교재 및 참고문헌	-DMZ와 점령지역> 7주차 강의 -15주차 기말시험(오프라인) 실시 한국지리지 강원도, 2015, 국토지리정보원 강원도. 김창환, 2011, 김창환교수의 DMZ지리지이야기, 살림터.
수업효과 및 기대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우리 강원대학교는 비전 2030으로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을 주창하며, 그 전략으로 '지역사회와 통일한국의 허브대학'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에서 '강원학연구 활성화'와 '점령지역 발전 지원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대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이러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여 강원대학교 학생다운 소양을 키워야만 공동체로서의 강원대학교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1	-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	-
2	- 강원도의 자연환경(1)	-
3	- 강원도의 자연환경(2)	-
4	- 강원도의 인문환경	-
5	- 강원도 각 지역의 특성(1)	-
6	- 강원도 각 지역의 특성(2)	-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강원도 각 지역에 대한 지리적 현상 10가지 사례 모으기
7	중간시험	중간시험
8	- DMZ의 탄생과 공간적 범위	-
9	- 점령지역의 특성	-
10	- 점령지역의 근대화화유산	-
11	- DMZ와 사라진 마을	-
12	- DMZ의 가치	-
13	- 강원도와 DMZ 지리여행(1)	-
14	- 강원도와 DMZ 지리여행(2)	- 강원도 여행 인증 샷
15	기말시험	기말시험

* 교직관련 과목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실습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한에 현장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종교등학교 단원명 제시)을 기재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류승렬)

과목코드	1300035	과목명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History of unification for unified Korea)				
분 반	1	강의실	60주년기념관 201	요일및시간	화6,7,8	학점및시수	3-3-0-0
담당교수명	류승렬	연구실	교육4호관 401호	연담시간	목 14:00-17:00	전화	2506686
성적평가	중간 : 30% 기말 : 30% 과제 : 20% 출석 : 20% 기타 : %		평가방법		등급		
수강대상	(전체전공)전학년		교과구분		특화 교과구분		
직업군분류1	관리직		직업 연관성1		중		
직업군분류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직업 연관성2		중		

대학 평화·통일교육 매뉴얼 개발 (박보람·신중섭)

○ 교과개발 내용

- 현재 중등교육에서는 도덕과 및 사회과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확대되어 시행되면서 중학생의 통일교육원 체험 및 참여형 교육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통일교육이 오랫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했던 정치적 원인, 대학생의 통일 의지 약화에 따른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 확대, 대학 교육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의 다양성 부족, 통일교육 담당 교강사의 전공 학문 편협성 및 학생 흥미 계고 부족, 새로운 통일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재 부족, 정치경제 지향의 통일교육 패러다임 지속에 따른 사회문화적 접근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은 미래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대학생, 특히 중등 예비교사의 통일 실현 의지와 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교육 실행을 위해 활용할 평화·통일교육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미래 통일 한국을 대비한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은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이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하는 역량 함양을 두 축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은 민주시민성의 구성요소인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참여의 영역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이질화에 따른 사회갈등을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능력, 남북한 출신 시민 간의 문화 차이를 관용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능력, 선거 등 민주주의의 제도과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능력, 통일 한국의 사회문제와 현상 등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등을 교육과정(교과목)으로 연결하고 평화·통일교육 매뉴얼에 따라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시민의 일상 삶을 위한 역량으로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자신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능력, 심리적 능력 등을 교육과정(교과목)으로 연결하고 평화·통일교육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
- 이러한 평화·통일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대학에서 구현 가능한 평화·통일 교육 과목은 사범대학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으로서 “평화와 통일 문제의 이해”, 사범대학 통일교육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내용학으로서 “통일교육론”, 교과 교육학으로서 “도덕·윤리교육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학 평화·통일 교육의 과목 구성과 교육 범주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 통일교육의 구성과 전개, 교재 내용 주제, 교재 삽입 시각 자료 등을 달리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교강사가 운영할 강의의 진행 방식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수강의형: 이론 강의 중심
- 학생참여형: 이론 강의 중심 + 토론 발표 활동 중심
- 학생활동형: 팀플 및 프로젝트, 수업시연 중심
- 실습실기형: 실험 실습과 실기 중심
- 플립러닝형: 블렌디드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운영
- 융합터치형: 팀티칭 및 융합으로 구성된 융합 강의 중심
- 사이버강의형: 온라인 강의

- 이처럼 다양한 강의 진행 유형을 고려할 때 각 유형에 적합한 평화·통일교육 매뉴얼을 개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수의질병학 교재개발(김현철)

○ 연구 배경

- 남북평화 및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에서 남북교류는 정관계에서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강원대학교는 이에 대응하고자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통일강원연구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주축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되고자 하고 있다.
-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수의학은 가족의 방역 측면에서 학술 및 사업의 초기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수의학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서 주축이 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수의학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들의 확보이며, 해당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방법의 정착이 필요하다. 수의과대학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북한 전문 수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에 “북한 수의질병학” 교과목 개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교과 개발 내용

< 교양과목으로서 “평화와 통일 문제의 이해” 에서 평화·통일교육 매뉴얼 >

범주	대주제
통일교육의 원리로서 평화교육	통일교육에 대한 평화교육 관점
	배려 윤리에 기초한 평화교육
	평화교육 제약 극복 평화·통일교육의 방법
평화 개념과 평화주의	평화주의와 통합·통일
	평화 개념과 평화주의의 이념의 근거
	평화에 대한 기능주의 접근
평화시민성의 핵심가치와 역량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갈등과 권용
	평화시민성 함양을 강화하는 통일교육
	평화시민성의 핵심가치
	평화시민성의 핵심역량

< 교과 내용학으로서 “통일교육론” 에서 평화·통일교육 매뉴얼 >

범주	대주제
평화와 통일교육의 이해	통일교육의 목표와 주안점
	통일교육의 지향
	통일문제에의 이해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북한 사회와 주민의 삶
통일환경과 정책의 이해	국제 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
	통일정책의 이해
	통일과제의 이해

< 교과 교육학으로서 “도덕·윤리교육론” 에서 평화·통일교육 매뉴얼 >

범주	대주제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요소
	도덕 교과서에서 평화·통일교육이 목표와 내용 요소
도덕과 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 방법	평화·통일교육의 접근 방법
	평화·통일교육의 지도 원리
도덕과 통일교육의 실제	평화·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평화·통일교육의 평가

-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은 교육과정상 개설 과목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관심, 흥미, 진로 등에 맞게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 인성교육 필수 교육과정 등 다양한 경로로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통일교육 역시 구분하여 차별적 특성이 드러나게 평화·통일교육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강의 진행 교수법에 따

(1) 교과 개발 목적

- “북한 수의질병학”은 수의 전문분야로 타학과와의 공동 연구가 어렵고, 북한 전문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의질병학에 대한 초빙 강의에 한계가 있다.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북한 수의학 및 수의질병에 대해 파악을 하고, 획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수의 관련 학술지인 “수의축산”이 발간되고 있으나, 연구의 결과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국제 수의학 저널에서 북한 수의학과 관련된 연재의 발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주요 가축 전염병의 발생이 강력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최근의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 주변의 간접적인 연구 및 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국내에서는 소멸되거나 드물게 발생하는 후진국형 주요 수의질병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수의질병 상황을 추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관련 수의 분야 전문가로서 수의과대학의 전임 교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과 강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북한 수의질병학”은 수의과대학에서 대학원의 교과 과정에 개설하는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첫 번째 교과목으로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필요하다. 교과목의 목적은 북한에서 예상되는 수의 질병을 예상하고 이 질병들에 대한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각 수의학 전공 교과목으로부터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15주의 강의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 교과 개발 결과

(가) 개요

-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일환으로 수의과대학 대학원 과목에 “북한수의질병학” 개설
- 남북교류 협력, 북한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정보, 수의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 교과과정 개설과 함께 교재(교안) 개발

(나) 수강 대상

- 수의과대학 일반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다) 개발 내용

- 북한의 수의질병학 관련 교재(교안) 개발
- 대학원 강의 교재(교안), 매뉴얼 개발
- 대학원 개설 예정 교과목 선정 : “북한 수의질병학”
- 강좌 운영방법: 수의과대학 대학원생 대상 개발된 교재 및 교안을 바탕으로 전임교원들의 팀 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그 외 일정에 대해서는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 주차별 강의 내용

주차	교수자	강의 주제	비고
1	김현철	북한의 수의학 관련 연구동향	강의교재 p.1
2	김현철	야생동물 기생충학	강의교재 p.11
13	김현철	수의기생충학 I	강의교재 p.32
4	김현철	수의기생충학 II	강의교재 p.47
5	위명복	중독성 가축질병	강의교재 p.59
6	김종택	DMZ 야생동물의 현황과 보전관리	강의교재 p.75
7	김종택	DMZ 야생동물의 현황과 보전관리	
8		중간평가	
9	권학부	인수공통질병(Viral Zoonoses)	강의교재 p.86
10	안진숙	Canine Distemper Virus	강의교재 p.93
11	김두	대동물 질병 (기타질병 및 우군 관리)	강의교재 p.97
12	정진영	소동물 질병 - 소와기 -	강의교재 p.107
13	오연수	돼지 질병	강의교재 p.111
14	김현철	총평	
15		학기말평가	

강의교재 제작 내용 발췌

주 차	주 제	주요 내용	교재명	페이지
1	북한 수의학 관련 연구 동향	북한 수의학 관련 연구 동향	강의교재	p.1
2	야생동물 기생충학	야생동물 기생충학	강의교재	p.11
3	수의기생충학 I	수의기생충학 I	강의교재	p.32
4	수의기생충학 II	수의기생충학 II	강의교재	p.47
5	중독성 가축질병	중독성 가축질병	강의교재	p.59
6	DMZ 야생동물의 현황과 보전관리	DMZ 야생동물의 현황과 보전관리	강의교재	p.75
7	DMZ 야생동물의 현황과 보전관리	DMZ 야생동물의 현황과 보전관리	강의교재	p.75
8	중간평가	중간평가		
9	인수공통질병(Viral Zoonoses)	인수공통질병(Viral Zoonoses)	강의교재	p.86
10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Distemper Virus	강의교재	p.93
11	대동물 질병 (기타질병 및 우군 관리)	대동물 질병 (기타질병 및 우군 관리)	강의교재	p.97
12	소동물 질병 - 소와기 -	소동물 질병 - 소와기 -	강의교재	p.107
13	돼지 질병	돼지 질병	강의교재	p.111
14	총평	총평		
15	학기말평가	학기말평가		

○ 기대효과

“북한 수의질병학”은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대학원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북한 수의학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수의사로 수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교과목으로 이와 같은 교과목을 통해 배출된 통일한국 중심대학의 창의적 인재는 통일 및 평화 분위기의 한반도 분위기에 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 관련 대학원 교과목이 개설되어 성공적으로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교과목들이 개설됨에 있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통일 또는 북한 관련 수의학 분야의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통일 교육이 체계화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배출된 수의사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초기에 북한의 가축전염병을 조속히 파악하여 북한 가축방역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고, 국내로의 전염병 유입의 효과적 차단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부부를 포함한 다수의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본 교과개발 프로그램은 처음 개설되는 수의과대학의 북한 관련 대학원 교과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 교재개발(최수영)

○ 연구 배경

강원대학교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전개에 따라 역사적, 지리적, 인문사회적 특성을 살려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한다. 수의 분야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요한 분야로 인지되고 있으며, 학술, 교육, 사업, 교류 등의 분야를 선도할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북한에서 가축의 방역을 포함한 학술 및 사업에 대한 수의 및 관련된 분야에서의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방침의 일환이며, 현재 전국수의과대학의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의 교육과정에서 북한 관련 교과목의 개설은 확인된 바 없다.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2019년도 2월에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에서 실시한 단과대학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조사에서 수의예과에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교과목이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에서 배출하게 될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중 수의사로서의 비전을 공유함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교과 개발 내용

(1) 교과 개발 개요

해당 교과목인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은 수리학을 입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수의예과에서 학생들이 북한 전문 수의사라는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공 교과목으로 개설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통하여 교재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가축 전염병이 상재화되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축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북한의 가축 방역은 초기 남북교류에서 주요한 사업이 되어야 하지만, 북한은 최근의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의 파악이 어렵다. 북한과 수의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에는 강사 섭외, 교재 개발, 강의계획 수립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0년도에 개설될 해당 교과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분야에 대한 교재 개발 및 마련을 선행하고자 한다.

(2) 교과 개발 단계

교재 내용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수집

- 문헌 사전 조사: 북한은 외부로 공개되는 연구 문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도, 확인되는 소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수의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 전문가 섭외 및 인터뷰: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교재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하고 섭외하여 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 강의 및 세미나: 세미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수의학에 적합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한다.

정보 분석 및 선별

-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 교과목은 수의예과 학생들에게 입문용 강의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들이 해당 교과목의 강의 내용으로 활용하기에 주제 및 심도가 적합하지 않더라도 통일 또는 북한 수의학에 대한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의 축적 차원

에서 수집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요구된다.

- 정리된 정보들을 수의예과 학생들에게 강의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1학기에 해당하는 분량 및 주제로 정보를 선별한다.

강의 계획서 개발 내용

과목코드	과목명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			
분반	1	강의일	수리학관 112	요일및시간	학점및시수
담당교수명		연구실	연담시간	전 화	
성적평가	중간 : % 기말 : % 과제 : % 출석 : 50%	기타 : 50%	평가방법	기부	
수강대상		교과구분	전선	교과구분	
교과목표 및 개요	체계적인 통일 교육을 위한 기초 강의로써 남북교류협력에서 수의학 분야의 기대 사업과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수업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문기 초빙 강의 남북 정세를 비롯한 농축산 분야의 최근 동향 소개 남북 교류에 따른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학점의 부여는 다음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되는 모든 초빙 강의를 이수하여야 “기” 학점을 부여한다. - 결석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한 초빙 강의는 과제 대체로 이수할 수 있다. - 강의 이수를 위한 대체 과제는 담당 교수가 제시한 내용으로 제출한다. (공백 제외 2500자 이상) 				
수업효과 및 기대	남북교류협력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북한 전문 수의사로서의 전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수의학 분야의 통일 교육의 기반이 될 것이다.				

주차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물	비고
1	오리엔테이션-수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2	남북한 양돈산업 현황 비교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3	북한의 수의학 교육 과정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4	북한의 가축질병 발생 상황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5	북한의 경제 현황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6	북한의 경제 전망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7	통일 농수산사업단 활동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8	북한의 양돈시설 소개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9	남북 수의분야 교류협력 추진 사업 1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10	남북 수의분야 교류협력 추진 사업 2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11	북한의 가축 방역 정책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12	남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북한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13	북한 부분의 계획과 시장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14	남북한 수의축산업계 협력 방향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15	강의 총평	유인물또는파워포인트	

* 교육관련 교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 교육철학 포함),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경우는 비교연계 현황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관성(교과내용학의 경우 주차별 강의 주제와 관련 강도등과도 단연관 제시)을 기재

– 교재 및 강의자료 개발 내용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

주요내용
 박인영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동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종현 고려대학교
 송영일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권혁진 6864 농업농촌혁신연구소

목차

서론: 남북관계

I. 총정리

-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 북한의 농업 정책 현황
- 북한의 농업정책 동향
- 농업정책의 방향

II. 육신분야

- 북한의 육신
- 세부기술 육신기술 조성방향 및 교과
- 북한의 질병예방 및 방역
- 북한 수의학의 현실
- 육신 정책 방향과 수의학의 미래

III.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하여

남북관계의 최종 목표

- 정치적 통합이 아닌 경제 통합

De Facto Unification

- 통일이 아니지만 통일과 같은 상태

2019년 북한 신년사

- 농업은 주민의 생활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
- 효과적인 농업기술 지도와 영농을 중점정책으로 추진할 것
- 농업상 도 농업지원위원회, 군 영농장장영위원회, 영농농장 농업관리체계를 통한 영농기술 지도와 보급
- 중앙 신년사를 통해 농기계 및 비료의 증산
- 농촌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방안
- 육신업 발전을 위한 4대 과학기술 동종, 사료 공급, 사양 관리, 수의 방역
- 육신 기기의 현대화, 현대화
- 농장원의 의사결정 자율을 존중하고 사무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 장수의 영농농장의 문제 해결
- 농장원 복지를 통한 영농농장 내 문제

○ 기대효과

-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의 해당 교과목에 전문성을 가진 전임 교원이 없고, 국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강의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교과목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당 교과목은 수의예과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수의예과는 2년의 짧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료하도록 보완할 수 있는 운영 탄력성이 낫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과 운영의 기반이 되는 교재 개발은 해당 교과목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 본 교과목이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경우, 통일과 수의학이라는 관련 주제로 추가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수의학 교육 과정이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해당 분야의 비교우위를 선점하여 국내외 타 수의과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북한 전문 수의사는 북한의 가족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하여 국내의 다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망을 학생들과 공유하게 될 것이다.

- 수의학 분야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구, 수의예방, 산업 및 반려동물 임상으로 크게 구분된다. 통일 관련 이슈에서 수의 분야에서 가장 먼저 기대되는 남북교류 분야는 수의예방 분야이다. 본 과제의 성과를 통한 북한 전문 수의사 교육 방침의 정착은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이 통일한국 중심대학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의예방 분야에서 특성화 전략이 성공함에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해당 교과목의 교재를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여, 북한 전문 수의사를 배출하는 통일 교육이 체계화된 수의과대학의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통일 관련 수의학 분야에서 국내외 타 수의과대학에 비교우위를 통하여,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남북한 관련 이슈 다큐멘터리 교과개발 연구(윤학로·김민오)

○ 연구개요

- 남북한 관련 이슈(통일, 판문점, 탈북민) 혹은 다문화 관련 이슈 (탈북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혹은 한국거주 외국인 등)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한 강좌를 운영함.

○ 교과 개발 내용

- (1) 교과 목표
 - 다큐멘터리 장르의 속성과 발전과정 이해
 - 다큐멘터리의 미학적 특성과 타 장르와의 연관성/응용 이해
 - '기록'을 위해 '현상'과 '인물', 그리고 '진실'을 대하는 창작자/수용자의 관점 이해와 응용
- (2) 실습작품 주제
 - 남북한 관련 이슈(통일, 남북한 대중문화, 탈북민 관련 이슈 등)
- (3) 수업 운영 방식
 - Team 구성: 수강신청 인원내 따라 결정(1팀 당 max. 8명)
 - 길이: 자유 (단, 전체 러닝 타임이 1시간을 넘기지 말 것)
 - 형식: 제약 없음. (archive 영상물 활용 OK, 단 직접 촬영한 source가 전체 분량의 70% 이

- 상이 되어야 함. 외부 출품을 목적으로 하는 팀은 저작권에 유의.)
- 평가기준: (비중 높은 것부터) 진정성 > 주제의식 > 제작과정에서의 팀원 협력 > 작품성
- 성적 반영도: 작품 참여도 30% + 수업 참여(출석) 20% + 프로덕션 리포트/과제 30% + 팀별 인센티브 20% (최초 아이디어 선정된 사람은 인센티브 받음)
- Production schedule: (수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세부일정 조정)
- 스텝구성 시 유의사항
 - 구성: 연출/촬영/스크립터/프로듀서(메인, 라인)/편집/연출부/소품, 나레이션 등
 - 각 팀 당 연출/촬영(스크립터)을 반드시 같은 비율로 구성할 것
 - 프로듀서는 main producer와 line producer로 분업
- 작품제작/평가 시 유의사항
 - 프로듀서는 반드시 pre-production과 production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정리, screening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함. (프로덕션 회의록, 장소현팅, 촬영스케줄 등등)
 - 감독과 촬영은 반드시 촬영론터와 스크립트를 제출해야 함.
 - 모든 스텝은 production 진행과정에서의 본인의 수행업무를 기록, 제출해야 함.
 - 팀원 중 낙오자가 없고 협력지수가 높은 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마지막 주 까지 작품을 완성시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 작품의 가변점까지는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주차별 강의 내용

- <주차별 강의 주제>
- 01주: 수업소개
 - 02주: 연출자 아이팀 발제/선정/팀구성, 새터민(탈북민) 관련 특강
 - 03주: 아이팀 2차 점검 (팀별 pre-production 세부계획, 사전자료조사 점검)
 - 04주: 다큐멘터리 제작 특강 (오세현 감독)
 - 05주: 다큐멘터리 제작 특강 II (오세현 감독)
 - 06주: pre-production 진행상황 점검 (장소, 인물현팅, 촬영스케줄 점검)
 - 07주: pre-shoot 점검/촬영스케줄 최종확정
 - 08주: 촬영 주간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 09주: 촬영 주간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 10주: 가편집본(촬영영상) screening/feedback (오세현 감독 감수)
 - 11주: 보충촬영 기간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 12주: 포지션 별 프로덕션 리포트 발표
 - 13주: 포지션 별 프로덕션 리포트 발표
 - 14주: TBA
 - 15주: 최종작품 시사회 (감독/프로듀서 프로덕션 리포트 발표)

<이론 강의 (프로덕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
- 다큐멘터리의 시작과 분화
- 다크 다크 시네마/시네마 베리페
- 다큐멘터리의 신경향

(5) 강의자료 및 학생 산출물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Storytelling in Documentary</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Storytelling in Document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rytelling = story(사건에 대한 진술) + telling(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즉, 담화의 양식) ○ Narrative = "사실들의 연결, character의 setting을 포함하는 스토리" + "스토리가 그려내는 대담(담화)과 의미(담의)" ⇒ 결론, storytelling = narrative · 내러티브에 대한 일반적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네마 이야기', 즉 허구적 이야기 뿐 아니라 사실적 사건을 다른 이야기 형식까지 포함 - 사실의 혹은 허구의 사건을 시간과 인과 구조에 따른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서술하는 담화 양식 ⇒ 내러티브는 결국 허구적 사건 뿐 아니라 사실 또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자체가 허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Reality" & the Current Documentary Trend</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리얼리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매체가 갖는 '리얼리티'의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작품의 리얼리티는 그 작품이 그려내는 현실, 즉 재현(representation)을 의미한다. ○ '재현'이 얼마나 외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현하는가, 즉 외부세계의 리얼리티와 작품의 리얼리티의 일치/불일치의 문제가 논쟁의 핵심이다. ·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리얼리즘'의 출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재는 물리적 실재, 즉 리얼리티가 우리의 인식/경험하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시각 ○ 현실세계: 인간의 재현 너머 독립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순전히 인간 가설이라는 점에서 출발 → 실재론은 진리 주장 ○ 반실재론에 대한 상대론적 재현론: 실재론은 존재론적인 의미이며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외부세계의 실재는 우리가 어떤 표현이 난관을 갖는 지극한이 표현한다는 의미. 무엇을 부장하며 어떤 '구상'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며 자기 때문에 결국 실재론이 강조하는 '외부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를 포함할 모든 주장에 의미를 갖게 하는 전체가 된다.

< 다큐멘터리 - '원주행 열차' 진행 보고서 >

- 제목: <원주행 열차>
- 장르: 다큐멘터리
- Running Time: 20분
- STAFF 구성
- 감독: 신재원
- 프로듀서: 오혜미
- 라인프로듀서: 이예빈
- 촬영: 김하은
- 편집: 진다영
- 스크립트: 유길정

● Pre-production

▶ 09.19 (목) 1차 회의

- ▶ 1차 기획안 PT (내용 요약 : 한국전쟁과 이산가족을 주제로 잡아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함)
 - 교수님 피드백 ⇒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음.
 - 어려 소스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발전 가능할 것.
 - 할아버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어 나가보는 것은 어떨지.

▶ 팀 확정

▶ 회의 내용

- 정기회의 날짜 : 매 주 다큐멘터리 수업 이후 (목요일)
- 채원(감독) : 할아버지께 연락해볼 것

▶ 09.22 (일) 2차 회의

▶ 전체적인 기획안 수정 (할아버지와 Contact 붙기)

- 1안 : 새터민, 아바이 마을
- 2안 : 경원선 열차
- 3안 : 민복마을
- 4안 : 탈북학교

✓ (투표로) 2안 '경원선' 선택

⇒ 용산과 원산을 잇던, 지금은 끊겨버린 철도 경원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살펴보는 기록형 다큐멘터리

▶ 영상구성

용산역을 시작으로 연천역 → 한탄강역 → 철원역 → 월정리역을 살펴봄. 경원선의 연결 흐름을 남과 북의 관계와 함께 연결 지어본다.

▶ 자료조사

- 용산역 조사 ⇒ 김소현, 김예은
- : 경원선의 흔적 (+ 북한)
- 배역 _ ex. 한탄강역 등 옮기는 지역
- *인터뷰 - 경원선을 실제로 운행하셨던 분

○ 경원선이 만들어진 이유 ⇒ 오혜미, 유길정
: 일제 강점기 시대 당시 경원선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지고, 활용되었는지 등

○ 철원 + DMZ + 철원역/월정리역 ⇒ 김하은, 진다영

- :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료들
- *인터뷰 - 백마고지역에 대해 설명해주시 분

○ 한국전쟁 + 남북관계 + 연천역 ⇒ 신재원, 이예빈

▶ 다음 회의 내용

- 촬영 로케이션 정하기
- 촬영 일정 정하기
- 인터뷰 Contact 시각
- 시놉시스, 콘티, 편집안 등 구체적인 구성 짜기

▶ 중간 피드백

▶ 교수님 피드백

-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줄일 필요가 있음.
- 참고했던 다큐멘터리와 다른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음.

▶ 제회의

회의 결과 : 북한의 관계와 경원선의 연결 진행 상황을 중점으로 진행할 것
앞서 진행되었던 자료조사는 일시중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경원선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

▶ 09.26 (목) 3차 회의

▶ 2차 기획안 PT

- 교수님 피드백 ⇒ 쉽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함.
- 인터뷰가 많이 필요할 것
- 배경설명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너무 걱정 X
- 감독 > 전체적인 플롯을 생각하면서 폭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음(기승전결)
- 트리트먼트 할 필요가 있음.

지원 측 공지 ⇒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영상

▶ 자료조사

- 로케이션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서			
과목명	다큐멘터리	지도교수	
제목	'원산행 열차'	길이	약 20 - 30분
STAFF	감독 신재원		
	조감독 김소현 김예은	프로듀서 배민-오혜미 라민-이예빈	촬영팀 활영-김하은 스크립터-유길정
			편집 진다영
기획의도	남과 북은 만날 수 있을 듯 만나지 못하고 정치적 상황, 그리고 득과 실 사이에 놓여 저울질 되고 있다. 더 이상 중립적인 원산으로 가지 못하는 열차, 다시 이어질 듯 이어지지 못하는 경원선은 이런 남북관계와 닮아있다. 우리는 원산행 열차처럼 용산역, 한탄강역, 백마고지역 순서로 경원선에 속해 있던 역들의 변화를 확인하려 한다. 그 변화들은 남북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 남북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촉매제가 되어 줄 것이다.		
내용	경원선은 용산역에서 시작된다. 지금도 용산에는 경원선 철도가 존재하지만, 원산행이 아니라 청량리, 의정부 동두천 등으로 가는 지하철이 오고 가고 있다. 금강산등 관광지를 지나갔던 경원선은 관광열차로 인기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목적으로 용산에서 경원선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열차만 타면 갈 수 있던 곳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갈 수 없을 지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한탄강역은 폐역이 될 예정이다. 동근열차가 운행되던 경원선 동두천-연천 노선은 열차의 전철화로 인해 지하철로 바뀌기 때문이다. 남아 있던 경원선의 역들도 초기의 모습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잃을 것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분단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분단 후에 태어난 사람이 많아졌다. 건물도 돌건도 이제는 분단 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새로운 것은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중일까? 과거의 것을 버리는 중일까? 우리는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 할 만큼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닐까?		
연천역은 분단 전 북한 관할의 역이었다. 때문에, 북한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은 역이기도 하다. 연천역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보며 경원선에 원산행 열차가 있었을 당시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백마고지역은 경원선을 연장하기 위해 만든 역으로 기존에는 있던 역이지만 월정리역이 민통선 안에 있어 대체로 만든 부인역이다. 월정리까지 이어지던 경원선을 연결하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월정리역, 남에서 북한에 있는 역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역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경원선 연장은 백마고지 이후 멈춰져 있다.			
경원선은 백마고지역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꽤 오래 그럴 것이다.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가 다 될 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도 우리는 경원선이 백마고지역을 넘어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을까? 어쩌면 경원선의 흔적조차 사라질지도 모른다.			

▶ 일정

<10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일정 정리 및 인터뷰 연락	4	5	6
7	8	9 로케이션	10 4차 회의 X	11	12	13
14	15	16	17 5차 회의 X	18	19	20
21	22	23	24 6차 회의 X	25	26	27

28	29	30	31 프리 마지막 회의 O			
----	----	----	-------------------	--	--	--

<11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장비 대여*	2 1회차 촬영 동부역 1 백마고지	3 1회차 추가 촬영 OO
					편집 시작	
	4 *장비 반납*	5	6	7 촬영 회의	8 *장비 대여*	9 2회차 촬영 용산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중간 점검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로케이션

10월 9일 ⇒ 용산역부터 시작 (백마고지역, 월정리역, 철원역 제외)

▶ 촬영 및 인터뷰 일조

- 촬영
- 지하철 : 역내 촬영 허가 = 지하철 운영기관에 승인
단순 촬영, 영리적 목적 등에 따라 별도의 비용 청구될 수 있음.
- *1-8호선 = 서울 교통 공사, 1호선(청량리-서울역 외) = 한국철도공사
- 3호선(지축-대호역), 4호선(남태평-오이도역),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노선에 따라 운영기관 다름.

• 인터뷰

- 경원선 설명해주실 분, 한탄강역 주변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실 분, 한탄강역 역장님 혹은 관계자, 백마고지역 설명해주실 분
- 연천군청 > 문화관광부 : 관광해설사
- 강원대학교 > 통일연구원 : 정치외교학과 or 문화인류학과 교수님

▶ 부서별 체크

- 스크립터 - 어디서 촬영 했는지, 누구를 인터뷰했는지 계속해서 정리해주시 (촬영 담당)
- 제작부 - 촬영 허가를 위해 역과 연락하기

▶ 제작비

▶ 인터뷰 협조

- (1) 통일강원연구원 :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님 > 월요일 13시 미팅
- (2) 철원군청 : 월요일에 다시 연락 바람.
- (3) 연천군청 : 담당자 부재로 연락처 남겨 놓음.
- (4) 철원 종합문화 복지센터
- (5) 한반도 통일미래 센터 : 031-839-7950 월요일에 다시 연락 바람.
- (6) 연천군 신사면 행정 복지센터 : 시민 인터뷰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시길도 함.

<결과>

- 철원군청 => 문화 해설사 상시대기로 백마고지 관련 인터뷰 가능
- 연천군 신사면 노인회장 이희종님 => 신사면 복지센터에서 노인회장님 연락처 받음.
- 통일강원연구원 => 인터뷰 요청 후 연락처 받음. 교수님께 기획안과 인터뷰 질문지 보냄.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님)
- 철원 종합문화 복지센터 => 예전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중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 있음.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행사 등을 알아보고 말씀해 주심.

▶ 촬영 협조

- (1) 백마고지역 : 철원군에서 관리 중
별도의 신청서나 요금 필요 X
직원 분께 문의 시 역사상 철도 촬영 가능
화요일 휴무
- (2) 월정리역 : 군부대와 연락 필요 = 절차 복잡
- (3) 한탄강역 : 역장님께 안전교육과 안내사항 들은 후 촬영 가능
선로 위 계의 역사, 선로 밖 촬영만 가능
수도권 동부본부 연락 후 본부 승인 받은 상황
- (4) 용산역 : 별도의 요금 X, 신청 서류 O
촬영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 가능
- (5) 연천역 : 공사 중이라 현재 촬영 가능여부 확인 불가능 (-10월 말)
11월 중엔 본사 내부 일정이 있어 촬영 가능 여부 미정

코레일 본사 연락 후

- 연천역, 한탄강역 부분은 안전교육 후 촬영 가능하다고 답신을 받음.

- 연천역 : 안전교육 이후 직원과 동행하여 내부 촬영

● Production

2주간 촬영 진행
<스틸컷>



첫 번째 촬영 이후, 촬영 소스 편집팀으로 넘김 (첫편집 시작)
11/7 (목) 2번째 촬영에 대해 간단한 회의 진행

두 번째 촬영 이후, 나레이션 콘티 작성 후 본격적인 편집 시작

<나레이션 콘티>

구분	장면	설명
인트로	지하철 창문에서 보이는 밖 풍경들	다양한 시간 장소에서 촬영 같은 구도로 촬영
	용산역 앞 횡단보도	현대적인 느낌과 분주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현대적인 느낌의 지하철역 물건들	필요에 따라 주변 c.u
		스크린 도어, 지하철의자 등등.. 고정 샷 뿐만 아니라 카메라 무빙도 주기

▶ 10.09 로케이션



▶ 연천역



▶ 한탄강역

▶ 용산역 땀방울록

: 땀방울록은 용산에서 나오는 경원선 열차가 처음으로 지나가는 건물목에 위치한 곳이다.
원래 이름은 '백빈건널목'
=> 땀방울록 관리원분 인터뷰 (O)

▶ 10.31 (목) 마지막 회의

▶ 촬영기간

- 촬영팀 제의,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영상 혹은 사진 찾기

▶ 지원금 사용

- 11/1 (금) 티머니 충전, 간식 사기, 식사 결제

▶ 인터뷰 진행 마지막 체크

- 노인 회장님 > 촬영 3일 전 다시 연락, 그때 정확한 시간 및 장소 조율
- 백마고지 > 돼지 열병으로 관광소 운영 X
개인 연락을 통해 인터뷰 가능
- 채원 큰할아버지 인터뷰 가능 (철원)

(미답)

- 송영훈 교수님 > 메일 확인 후 다시 연락주시기로 함.

- 추가적으로 강원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지리교육학과 교수님께 기획서와 질문지 보냄.

▶ 촬영 마지막 체크

구분	장면	설명
경원선의 시각 용산역	타이틀 "원산행 열차"	페이드 아웃 검은 화면
	용산역 1호선, 동두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지하철에 문이 열린다.	나레이션 시작 경원선 열차에 대한 이야기
	지하철에 드나드는 사람들	열차는 안 들어가게 구도 잘 잡아서 촬영 혼잡한 느낌
	원산행 열차에 대한 자료화면	
이제는 사라지는 역 한탄강역	백빈건널목 주변 풍경	NA. 백빈건널목에 대한 설명
	백빈건널목 관리인 인터뷰	
	한탄강역 주변 풍경	설정샷. 어디인지 보여주는 컷
북한 관할이었던 연천역	전쟁에 대한 자료 화면	NA. 한탄강역 이름의 의미
	연천역 외관 모습	NA. 한탄강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나레이션
	열차 모형	설정샷. 어디인지 보여주는 컷
	급수탑 모습	필) F.S 급수탑 전체 모습 c.u 총 작곡
연결될 희망 백마고지역	주변 나무나 식물 등	나레이션 나올 때 쓸 수 있을 컷들
	노인회장님 인터뷰	연천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질문이 주. 필요에 따라 음성은 인터뷰 화면은 자료 화면으로 사용
	백마고지역 주변 횡단 도로 역에서 바라보는 철원평야	
	백마 동상과 설명문	
	문화해설사 백마고지역, 월정리역, 철원역에 대한 인터뷰(월정리역, 철원역 자료화면)	
	역 내부 모습 (철도 방송벽, 집표함 등)	
열차 중단점 팻말		
백마고지역에서 끊어져있는 철도		

<나레이션 대본>

S#1 인트로

후전 이후 대한민국은 빠른 발전을 이뤄냈고 전쟁의 흔적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상처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것, 더 발전한 것을 찾아가는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타이틀<원산행 열차>

S#2 용산역

앞쪽에 노래 넣기// 용산역 내부 화이트하게 찍은 컷-수 //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즐거움을 가지고 어

Date	Topics	Date	Topics
12.5	Global Security Governance & Nuclear Non-proliferation of DPRK : Group Presentations (I) UN Security Council, IAEA, 외교부 & Global NGOs	12.5	Global Human Rights Governance &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 Group Presentations (II) UNHCR, ICC, 국가인권위원회 & Global NGOs
12.9	Global Development Governance &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Group Presentations (III) UNDP, OECD-DAC, 코이카 & Global NGOs		12.2. 특강: 지속가능발전관점으로 본 남북 지자체 간 교류협력: 강원도 사례 김택희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국장)

— 학생 산출물 (발췌)

FINAL PRESENTATIONS

Global Security Governance & Nuclear Non-proliferation of DPRK

Name:
Park Jaewoo
Yang Seongho
Lee Suhyun
Ham JungJun

Date: 2019. 12. 5.

OECD-DAC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2019. 8.25-27
A first visit to Korea
Exchange opinions on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Korea is expanding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exemplary donor country. In particular,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mid-sized donor countries such as Korea in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nvironment are required.

UN Security Council
(Source: <https://www.un.org/securitycouncil/>)

Structure
All existing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re comprised of the fifteen members of the Council. While standing committees are chaired by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advisory and advisory bodies, other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re chaired or co-chaired by designated members of the Council who are authorized in an annual decision by a vote of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Leadership profile
The Prime Minister is the leader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policy and operations. The Prime Minister also oversees the oper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government agencies.

Members
Permanent Member: China, Franc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on Permanent Member: Belgium, Chile, Greece, Germany, Dominican Republic.

Financial status
Financial support through a United Nations contribution.

UN Peacebuilding Commission
(http://www.un.org/en/peacebuilding/about_us.asp)

Leader's profile
Mr. Guterres was born in New York City on July 20, 1945. He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Bronx Manual Preparatory School in 1961, received a B.A. degree from Yale University, Magna Cum Laude in 1965 and M.Ed. fro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1967.

He is President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 private, congressionally supported grant-making institution with the mission to strengthen democratic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rough non-governmental efforts. In addition to presiding over the Endowment's grant program in Africa, Asia, the Middle East, Eastern Europe, the former Soviet Union and Latin America, he has overseen the creation of the quarterly "Journal of Democracy," International Democracy and the "Democracy Index."

He also took the lead in launching in New Delhi in 1999 the "Millennium Fellowship Program," which is a global network of democracy practitioners and scholars. He is currently encouraging other democracies to establish their own foundations devoted to the promo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e world.

- Meeting Present with SSKSpace 세계 시애틀 -
- 2019년 12월 17일 (수) -

성남시 4호
UN의 한반도 안보와 미중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 implemented from 2000 to 2019 and set u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the largest go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ill be actively implemented from 2020 to 2030. SDGs are 17 goals and 169 sub-goals. It is followed by the UN "Peace Action and Security Initiatives" which is aimed at providing a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all levels, providing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system.

20. Wednesday afternoon I visited lecture venue again and attended the "Peace" Seminar. The "Peace" Seminar was focused on inter-Korean relations. Seminar was composed of lecture by Insoo Yoo, a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Kyunghee National University and Kim Hyungsik, an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and ODA officer. The most interesting was Professor Kim Hyungsik's lecture.

Professor Kim Hyungsik first said that the "Peace"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establishing the North Korea relations, and that the North Korea is under pressure to open up amid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is worked to force cooperation but with many constraints to entry were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ASEAN's role was emphasized. As a regional organization that included the US on the West, ASEAN was a very effective channel of sustainable cooperation in getting North Korea to engage in negotiations. He also stressed that the improvement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rough sustainable and the advantage of South Korea's own initiative rather than wait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 through the US and China.

After the lecture, I asked the professors at the ODA office. "I hope that inter-Korean relations have made a lot of progress from the past through the Singapore or Hanoi conference, but what we should pursue is inter-Korean relations to grow up naturally and steadily. So I'm afraid that current cooperation can be changed easily by attitude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Professor Soha Yoo also replied, "It is true that inter-Korean relations are unstable and sensitive, but one should be sure that it will not go back for the first time, even if relations get worse."

Meanwhile and in the "3 principles of 4-23" that the quality of a true research and practice is to have the idea that "only then" it can be applied that

○ 기대효과

- 글로벌 공공정책 및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이론 및 전략을 강의함으로써 통일 시대를 대비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및 정책 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통일 시대를 선도하는 강원대학교의 비전 실현 및 역할 담당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화해와 통합의 이해(황수환)】

○ 연구배경

- 한반도 화해, 협력 시대의 도래에 맞게 2019년 2학기 개설하는 '화해와 통합의 이해'교과목에 대한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교과 개발 필요
-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화해와 통합의 정착과 강원지역 타 학교와의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강원대학교의 비전인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에 맞는 특색 있는 평화와 통합, 통일 관련 교과목 제시 필요
- 화해와 통합에 대한 학제적 접근 필요
- 통일 및 평화실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교과목 개발 필요

• 강의 개요 및 목표

-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적대적 관계가 지속된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에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 본 수업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화해와 통합적 요소가 필요인지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각종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학습한다.
- 세계 유일한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체제가 달성되기 위한 국내외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대해 탐구한다.

• 주요내용

- 국제적 문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한 이론과 역사를 이해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추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국내적 문제: 갈등관계, 불평등, 차별 문제 등 각종 국내사회적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들을 원인과 결과에 대해 탐구하여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 종합적 문제: 화해와 통합, 그리고 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한 이론과 역사,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내외 사회의 노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화해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있었지만 어느 한 개인의 식견, 한 가지 이론 혹은 사조로 이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각을 학습할 예정이다.

• 주요교재

-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이동기, 『20세기 평화학 15선』 (아카넷, 2013)
- 박호성, 『공동체론 : 화해와 통합의 사회 정치적 기초』 (효형출판, 2009)
- 중앙사학연구원, 『동서양 역사 속의 소통과 화해』 (학교방, 2011)
- 박명규 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명인문화사, 2018)
- 도널드W. 슈라이버2세, 『적을 위한 윤리』 (이화여대 출판부, 2001)
- 케네스 웰즈, 『인간 국가 전쟁 :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정성훈 옮김 (아카넷, 2007)
- E. H. 카, 『20년의 위기』 . 김태현 편역 (늑문당, 2000)
- 한국정치학회 편, 김영재 외, 『국제관계학:인간과 세계 그리고 정치』 (박영사, 2015)

○ 교과 개발 내용

(1) 개요

- 강원대학교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통일강원연구원 개설 교양과목인 '화해와 통합의 이해' 교과목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화해와 통합의 이해' 신설 추진
- 강원원주대학교 학생과의 교환프로그램 추진

(2) 교과 운영 목적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학생뿐만 아니라 삼척캠퍼스, 강원원주대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해, 평화, 통합 관련 교과목 매뉴얼 개발 및 내용 구성 목적
-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간의 강의 연계 방안 모색
- 분단현실 강원지역 특색에 맞는 평화,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특색 있는 교과목 개발 목적
- 향후 타 지역으로 화해와 통합의 이해관련 모범 교과목으로 확산 도모
- 화해와 통합관련 교과목으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15주의 강의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

(3) 교과 진행 방향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화해와 통합 관련 커리큘럼 조사 및 분석: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등 관련 대학 교과목 현황 조사
- 화해와 통합관련 교재 내용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수집: 문헌조사, 전문가 섭외 및 인터뷰 조사 진행
- 화해와 통합의 이해 강의계획서 발전방안 작성
- 통일, 평화, 북한 등과 관련된 유사수업과 관련된 강의에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재 개발 추진

(4) 교과 개발 내용

- '화해와 통합의 이해' 교과개발 및 발전방안 전체 개요
 - '화해와 통합의 이해'에 전반적 강의계획안 소개와 국내외 대학교에서 화해, 통합, 평화와 관련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교과목을 소개한다.
 - 본 과목의 강의계획서는 강원대학교 교과 일정과 내용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본 과목은 국내외 화해와 통합, 평화와 관련된 대학교 커리큘럼은 향후 본 수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강의계획서

- 우철구, 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 조지프 S. 나이,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 200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의 쉼' 동영상
- 학점 및 평가 :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 중간고사는 8주차에 실시되며 강의 내용을 토대로 비교분석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2-3문단 내외로 응답하는 문제와 자유로운 형식의 에세이로 응답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된다.
-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실시되며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분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고사와 동일한 형식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 과제 (20%) : 화해와 통합과 관련된 "국내사회의 현상 분석", "국제사회의 현상 분석"에 대한 감상문과 수업 중 제공된 시청각 자료에 대한 감상문을 e-루리에 제출해야 한다.

· 출석 (10%) 및 수업참여 (10%) : 학생들은 수업시간 전에 읽기 과제를 모두 읽고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 읽기 자료에 제시된 중요한 주장과 핵심 개념들에 대하여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화해와 통합의 이해 수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수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결사항 및 기타사항은 강원대학교 학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기대효과
 -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맞아 관련된 국내외적 정치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현안에 대해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남, 남북 갈등에 따른 화해와 통합의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기대한다.

- 강의일정(안): 15주 기준
 - 1주차: 화해와 통합의 이해 수업 소개
 - 2주차: 화해란 무엇인가
 - 3주차: 한국사회 차별과 불평등 현상
 - 4주차: 남북한 간 화해가 가능한가
 - 5주차: 한일 간 화해가 가능한가
 - 6주차: 통합과 통일이란 무엇인가
 - 7주차: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8주차: 중간고사
 - 9주차: 전쟁이란 무엇인가

- 10주차: 평화란 무엇인가
- 11주차: 안보와 평화유지
- 12주차: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체제
- 13주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관점
- 14주차: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방향
- 15주차: 기말고사

- 주차별 강의 자료 (발췌)



○ 기대효과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 강원원주대 등으로 남북 간 화해와 통합이라는 평화인식의 확산 기여
- 화해와 통합의 이해를 적용한 평화교육, 통일교육의 방향 제시 기대
- 유사 평화, 통일 관련 전공 및 교과과목에서 참고 강의안으로 활용 가능

1.3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 연구지원

1.3.1 주요내용

- 평화·통일, 북한 관련 개인 및 공동연구 등의 형태로 다양한 전공에서 학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창출된 연구 성과를 교과목에 적용시키고자 함. 또한 지원 범위를 학교 교내 공동연구 또는 대학 네트워크 협동기획 과제로 확장시켜 연구 결과의 활용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1.3.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연구지원 수 10건	140% (1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북한 관련 연구지원 13건 신청 (19.7.23) ·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3건에 대한 결격 심사 진행 완료(19.8.19) · 제1차 지원 대상 연구 6건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및 연구 진행 · 제2차 연구지원 공모 진행(10.30). 평화·통일, 북한 관련 연구지원 12건 신청(11.20) ·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2건에 대한 결격 심사 진행 완료(12.17) · 제2차 지원 대상 연구 8건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및 연구 진행(12.18) · 사업 종료 기간 내 학술 연구 실적 결과물 제출 완료(총 14건), 사업 참여 1년 이내(1차 기준 20.8.31, 2차 기준 20.12.31)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결과 제출 예정
2	정량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수 5건	100% 이상 예정 (기한 미도래)	
3	정성	연구 종료 1년 이내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여부		
4	정성	연구과제 영역의 다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통일, 북한 관련 연구지원에 참여한 교원의 소속 학과 및 전공이 경영대, 사범대, 산문대, 수의대, 인문대,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다양함. · 질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교류, 평화·통일 틀 안에서도 교육, 정치, 의료, 문학, 관광 등 연구주제의 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하였음.

1.3.3 세부과제 운영실적

가) 평화·통일 관련 연구 선정 및 진행

○ 평화·통일 관련 연구 선정 현황

- 평화·통일 관련 교내 연구 공모사업 진행 결과, 총 25건 신청 중 공모과제 연관성, 연구논리 전개, 적합성, 연구배경의 타당성, 시의적절성, 창의성, 교과활용 가능성(기여도)에 대한 전문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14건을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순번	구분	연구자 소속 학과	연구제목
1	1차 공모	간호학과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공헌에 미치는 영향
2	1차 공모	관광·경영학과	대학생의 남북통일에 대한 지각된 편익과 우려를 통한 북한관광 태도 형성에 관한 연구
3	1차 공모	교육학과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북한의 조선어 교재 분석 연구
4	1차 공모	교육학과	19세기 말~20세기 중반 남북 강원도 지역 여행기(旅行記)를 통해 본 강원도의 정체성
5	1차 공모	정치학과	한반도 평화시대의 통일교육 담론-지속성과 단절성의 복합적 딜레마
6	1차 공모	자유전공(국문학)학부	강원도 문학과 분단 극복의 시화(詩化)
7	2차 공모	행정심리학과	점령지역에서의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기초연구
8	2차 공모	관광경영학과	지역사회통합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 기반평화통일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9	2차 공모	농업자원경제학과	철원평화산업지 내 상업적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체계연구
10	2차 공모	국어교육과	통일 대비 남북 문법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
11	2차 공모	일반사회교육과	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12	2차 공모	의학전문대학원	전원부 질량의 남북간 유병률 및 특성 비교
13	2차 공모	과학교육과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백두산의 화산활동 모니터링
14	2차 공모	관광경영학과	DMZ 열차 제어요동의 선행 요인에 대한 연구

(1차 선정)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한국의 전체 인구의 4% 이상이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점차 그 비율의 증가를 보이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한국인정정보과, 2018). 이러한 현상과 함께 병원에서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대상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민지영, 2018), 이러한 배경에서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으로 다문화 역량이 대두되었다.
- 다문화 대상자 중에는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북한 이탈주민은 장기간에 걸친 분단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한 주민과 상이한 가치관, 언어, 생활방식, 이념 등을 갖게 되며, 이러한 차이를 단일민족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김경화, 2015). 실제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은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 남한에서 상대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른 외국인 이주민과 동일하게 다문화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권수현, 2011).
- 선행연구(이인숙, 2017)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친밀감, 지지적 태도, 수용적 태도 중 지지적 태도가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생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대혜택 제공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김경화, 2015). 최근에는 간호대학생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다문화 인식수준은 타 문화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Park, Lee, 2019). 이는 향후 임상에서 치료적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다른 다문화 대상자와는 구별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며, 공감을 통한 다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다문화 역량이란 다문화에 대한 인식, 지식, 기술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다문화 인식은 지식이나 기술에 선행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원숙연, 문정희, 2016). 다시 말하면 간호에 있어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인식을 시작으로 지식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통해 기술로서 적용되는 것이다(Harder, 2018). 그러므로 특히 문화적 인식은 다문화 역량 중 핵심요소라 되며, 선행연구(고미숙, 2017)에서 문화적 인식을 포함한 역량은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대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역량과 공감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공감이란 이타적 행위를 위한 동기를 활성화하는 정서(Batson, 2011)로 수용적 태도를 취하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타문화와 통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우정희, 채덕희, 강경화, 2013).
- 분단 70년을 돌아보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 집단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

한 이해와 함께 북한사회와 주민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는 통일교육이 요구되고 있다(신희선, 2015).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박범중, 2018) 속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미래상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감 능력과 다문화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함께 통일교육을 접목하고자 시도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대상자를 접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북한 이탈주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적 역량모델을 근간으로 개발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역량과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에서의 결과로서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

- Background: South Korean society is increasingly multicultural. As the percent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married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increases, nurses will encounter mor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which can pose a substantial burden. There is also a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mong young people generall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unification on nursing student's empathy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 Method: A six-session re-unification educational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a cultural-competency model. It was implemented outside the regular nursing curriculum among first-year and second-year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9. Data were collected from 65 students: 32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3 in the control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chi-squared test, and the t-test for independent samples.
- Finding: Multicultural "capacit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relative to the control group ($t = 2.60, p < 0.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re-unification education can build and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college students.
- Conclusion: This result can be an important part of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because these students will be the main providers of nursing care for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at that time.

- Keywords: Re-unification educational program, nursing-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e, empathy

생의 의식조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향후 남북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관광과의 잠재적 수요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 통일의 편익과 우려,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북한관광의 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통일인식의 실증적 자료를 관광 소비시장에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검증은 통해 대학 내 통일교육 방향설정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 연구 결과

- 현존하는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통일인식의 부족에 대한 지적하고, 향후 통일한국의 주역이 현재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도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관광과의 잠재적 수요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 통일의 편익과 우려,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와 북한관광의 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남북관계 및 북한관광과 관련된 현존하는 문헌을 검토하여 제작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2019년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10일동안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조모형의 '지각된 우려 → 통일태도' 간에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경로(북한인식 → 지각된 편익; 북한인식 → 지각된 우려; 지각된 편익 → 통일태도; 통일태도 → 북한관광)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통일인식의 실증적 자료를 관광 소비시장에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한 검증은 통해 대학 내 통일교육 방향설정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1차 선정) 대학생의 남북통일에 대한 지각된 편익과 우려를 통한 북한관광 태도 형성에 관한 연구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18년 4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올해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까지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은 점증적으로 고조되고,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통일을 주제로 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관광객이 증대하였고(중앙일보, 2018), DMZ 민통선 내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통일뉴스, 2018).
- 학계에서도 북한관광에 대한 연구가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관광에 대한 연구는 2008년 한국인의 북한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성과 금강산 관광(정철·최승목·정란수, 2002)과 남북관광협력 체계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장동식·고계성, 2014)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 북한체제와 관광산업(박희진, 2015; 이윤규, 2016), 북한관광자원 및 북한 관광특구(윤인주, 2015a)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북한관광 연구들은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수요측면에 주안점을 둔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남정환·Suboleski·김영국, 2017). 한편, 박범중·서선영(2018)은 젊은 세대는 노년층에 비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보고했고, 이미정(2014)은 향후 통일한국의 주역이 현재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도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당위성을 현존하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북한관광의 수요측면과 대학

(1차 선정)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북한의 조선어 교재 분석 연구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김중삼·조현용(1996), 김중삼·조현용(1998), 김중섭(2000), 이관식(2005), 이관식(2007a), 이관식(2007b), 강남옥(2011), 김인규(2011, 2012), 강남옥(2012), 조해천(2015), 오현아·전영근(2018, 2019), 박진희·민현식(2019, 06 AATK 발표) 등이 있다.
- 김중삼·조현용(1997, 1998), 김중섭(1999), 이관식(2005) 등에서 주로 유학생용 교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영희(2007)에서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독습용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강남옥(2011), 김인규(2012)에서는 특정 기관에 체류했던 실습생을 면담하여 교재, 교수-학습, 학습 기관 운영 등의 면면을 재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남옥(2014)에서는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북한의 조선어 교재에 대한 분석 연구가 국어국문학 차원, 언어정책학 차원, 한국어교육학 차원, 북한의 교육 자료 출판과 서지 및 저자 연구를 통한 교재 연구의 네 가지 연구 영역으로 유형화가 가능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오현아·전영근(2018, 2019)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북한의 특학용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북한의 조선어 교재인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어 교재와 김형직사범대학의 조선어 교재를 분석하여 최근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현황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 내용 목차

1. 연구목적 및 방법
 - 1.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표
 - 1.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3. 연구결과 활용계획
 - 3.1. 연구의의
 - 3.2. 연구성과
 - 3.3. 참고문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II 장의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2020년 12월까지 SSCIE 학술지에 관한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논문 투고 및 게재 예정임.
-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외국인 학습자 대상의 조선어 교재 현황,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의 언어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어휘, 문법 형태 등 교육 내용 기술의 차이와 언어

문화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국과 북한의 외교 정책에 의해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조선어연수를 경험한 중국의 한국어교육 교수자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또한 북한의 외국인 학습자 대상 조선어 교육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중국 계의 동포 조선어 교육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선정) 19세기 말~20세기 중반 남북 강원도 지역 여행기(旅行記)를 통해 본 강원도의 정체성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18년 춘천과 원산은 자매 도시 결연을 맺었다. 두 도시는 각각 남강원도와 북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다. 유일한 분단 도(道)인 강원도가 통일을 위한 시발점이자 가교지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위 '도일분수(道一殊)'라는 말마따나 하나였던 도가 나뉘며 다른 세계가 된 작금(昨今)의 처지를 직시하고, 과거를 살펴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현재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문지리학적 측면에서 강원도가 남북 강원도로 나뉘기 이전 시기에 현 남북 강원도 일대를 하나의 지역성을 띤 지역으로 인식하고 강원도와 강원도 각 지역을 이야기한 각양의 기억들을 소환해 내 하나로 집적한 가운데, 그 속에 담긴 지역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분단 상태가 오래될수록 기존에 지녔던 강원도 지역의 공동유산과 그 전통의 색깔과 의미는 점차 희석될 수밖에 없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강원도가 지리적 요인뿐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 공동의 유산을 간직했던 공간이었음을 확인하고, 이에서 향후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통일 대비 인문지리학적 방향 설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는 향후 남과 북 강원도가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대상과 과제가 무엇인지 그 윤곽을 확인하고, 잊어버린 고유한 가치와 유산을 재정비하는 작업의 다음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남북 강원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 자원(문화유산과 의식)을 찾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인문학적 사유의 근간을 찾는 데서 시작 가능하다.
- 본 연구는 무엇보다 분단 이전 시기, 곧 1945년 해방 전후 시기까지 현 남북 강원도를 하나로 인식했던 요소를 복원해 내고, 그 의미를 새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항 이후부터 분단 이전 시기까지 강원도 지역을 다지면서 강원도 지역에 관해 기록한 각종 기록물들, 예컨대 기행문, 여행록, 그리고 수필이나 시, 소설, 민요 등 문학 및 비문학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거기서 지역적 의미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 특별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자 한 시기는 분단 이전 시기다. 개항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역사의 소용돌이에 의해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기 이전 시기에 산출된 각종 기록물들은

- 이전 시기, 곧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여행록, 시문, 민요 등 기록문학, 구비문학, 각종 역사서 등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한 현재 이념적 차이로 인해 한반도 내 두 국가 체제로 존재하는 현재와 달리,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남북 강원도를 다룬 기록물에서는 분단 전 하나였던 강원도의 원 모습을 오롯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나였던 강원도에 관한 의식과 정신적 지평까지 가능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이에 관한 관심이 너무 적었다. 이제라도 강원도를 분열과 단절이 아닌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출해 낼 수 있는 고유한 지역적 특징이 이미 이 시기에 산출된 기록물들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결국 본 연구는 강원도 여행기로 통칭할 수 있는 기록물 속에서 남북 분단 이전 시기에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온 강원도 로컬리티(Locality)를 살펴보고자 함의 다음 아니다. 이는 통일 대비 인문학적 시선의 교두보와 같다. 이때 강원도를 향한 시선은 100년 전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남북 강원도를 다녀간 코스를 중심으로 그대들이 남긴 기록 내용에서 쫓겨가 잃어버린 수 있다. 이는 현 남북 강원도 상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특징적인 변별자질, 곧 강원도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나 마찬가지다. 분단 이전 남북 강원도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재 우리가 망각(忘却)해 버린 것들과 잊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과 근대 강원도의 풍경들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려낸 지역 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연구 내용 목차

1. 들어가는 말
2. 19세기 말~20세기 중반 남북 강원도 여행기(旅行記) 개관
 - 2.1. 남북 강원도 여행기 이해를 위한 전체
 - 2.2. 외국인이 쓴 강원도 여행기
 - 2.3. 내국인이 쓴 강원도 여행기 및 기록들
3. 19세기 말~20세기 중반 남북 강원도 여행기(旅行記)를 통해 본 강원도의 정체성
 - 3.1. 금강산 및 명승 관광의 메카로서의 강원도
 - 3.2. 통과하는 여행지로서의 강원도
 - 3.3. 통일과 조화의 원천으로서의 강원도
 - 3.4. 자기 수양과 지역 향토의 본산으로서의 강원도
4. 나오는 말

○ 주요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산출된 남북 강원도 지역 관련 기록유산' 자료들을 모아 총정리하면서 분단 이전 시기에 형성된 강원도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 분단 이전 시기에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온 강원도 로컬리티(Locality)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인 동시에 통

- 일 대비 인문학적 시선의 교두보 마련이란 전체 아래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방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모았다. 수록된 남북 강원도 제 지역의 풍경, 역사, 고적, 경제, 문화, 명승, 자연, 종교, 생활 모습과 이것을 바라보았던 국내 명사들과 외국인의 다기한 시선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적 삶의 터전이자 우리 민족의 보고(寶庫)였던 강원도 지역의 제 풍경을 이에서 적잖이 확인 가능하다.
- 분단 이전 남북 강원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현재 우리가 망각(忘却)해 버린 것들과 잊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과 근대의 풍경들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려낸 지역 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동력이다. 이런 점이 본 연구에서 길이 올린 소중한 의의라 지명한다.
- 분단 이전 시기에 현 남북 강원도 지역은 하나의 생활공간이었고, 하나의 여행지로서 동질적 공감대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이에 남북 강원도가 지닌 동질적 요소를 '금강산 및 명승 관광의 메카로서의 강원도', '통과하는 여행지로서의 강원도', '통일과 조화의 원천으로서의 강원도', '자기 수양과 지역 향토의 본산으로서의 강원도'로 나뉘어 살펴본다.
- 19세기말부터 1945년 이전에 남북 강원도 지역으로 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척박한 땅으로 인식된 강원도를 19세기 말에 외국인들이 먼저 찾았기 시작했다. 다른 어느 도보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외국인들이 '조사(踏脚)'와 '여행', 그리고 '휴양'과 '관광'이란 이름으로 대거 강원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자는 1910년 이전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후자는 1914년 이후 일반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원도의 경관과 사할, 명산과 명승지, 지역민의 생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을 남겼다. 유람하며 통과하는 관광객으로서 자연과 명승지를 인상과 감상 수준에서 강원도를 이해한 이들이 많았지만, 자기 수양 내지 대타적 사회 문제를 염두에 둔 채 관찰자요 순례자 입장에서 풍요롭지 않지만 순박하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강원도민의 모습과 강원도의 특색을 음미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 강원도 여행자들은 공동적으로 금강산 여행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그리하여 강원도 행을 택한 이들이라면 대체로 금강산을 다녀가는 데 할애했다.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금강산을 세계적인 명산으로 꼽고, 그 이유를 다각도로 제시하며, 그 감흥을 언어의 마법사처럼 형용해 낸 기록들이 다수를 이룬다. 또한 휴양지로서 유명한 원산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외국인 거주지에 관한 소개, 그리고 주변 명승지와 사할, 폭포 등에 초점을 맞춘 기록도 적지 않다. 거기엔 강원도와 거주민에 대한 편견과 긍정적, 부정적 시각도 분명히 공존했다.
- 그러나 내국인 중에는 금강산 여행에 대한 감흥뿐 아니라 소소한 산촌, 어촌, 농촌 마을에 대한 풍경과 감상을 적고, 강원도의 지방색, 곧 정체성 문제를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특히 강원도가 고향인 예술가, 명사들은 고향에 관한 추억담과 회고담, 그리고 손 소리를 적지 않게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근대화되면서 변화되어 가는 강원도의 전통과 생활모습을 담담하게 기록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현재의 남북 강원도를 누구나 다 동일한 여행 지역으로 묶어 이해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은 단연 현재의 남 강원도가 아닌, 금강산과 원산이 있는 북 강원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강원도 여행과 유람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원산 역까지 가는 경원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간 경유지에서 내려 다양한 경로로 강원도

여러 지역을 두루 주유하거나 목적에 맞게 이동할 수 있었다.

- 이 경원선 철도와 경원가도는 1914년 개통 이후부터 가장 일반적인 이동 수단이자 교통로로서 남 북 강원도를 하나로 묶어 강원도를 다닐 수 있게 한 중추 신경과 같았다. 1920년대에 금강산 철도가 별도로 놓이고, 1930년대에 동해북부선 노선이 1930년대에 건설됨으로써 동해안을 끼고 남북 강원도를 오가는 노선이 또 다른 교통로로 크게 발전했다. 동해북부선은 현재 북 강원도인 안변군에서 통천군을 거쳐 현재 남 강원도인 고성군, 양양군에 이르는 총 192.6km 거리에 걸쳐 있었다. 이중 금강역 역은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에 속한 지역으로 세계적 명산인 금강산의 하차 역으로 금강산을 찾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인근의 여행지도 덩달아 발달하고 지역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 이처럼 교통의 발달은 강원도와 금강산, 그리고 인접 해안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당시 외금강해금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산에서 장전까지 배 또는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금강산과 해금강을 연결함으로써 관광노선으로서의 가치도 올라갔다. 그러나 안변에서 양양까지 운행했던 동해북부선 철로는 한국전쟁 이후 끊어진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전통적 의식과 근대적 의식이 만나 충돌하거나 폭넓게 수용하려는 시기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기억, 보존하려는 우호적 의식이 다분히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1890년대~1900년대에 강원도를 지나간 비숍 여사, 밀러, 세로세프스키 등은 가난하고, 무질서한 강원도민의 생활을 비판하거나 동경하는 태도를 취했고, 개인적 편차가 컸다. 그러나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이후로 서울-원산 간 교통이 발달한 이후에는 강원도를 관광지, 휴양지로 인식하고 금강산과 인근 명승지 개발에 열을 올림에 따른, 크고 작은 부작용과 자연 훼손이 심각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만의 정체성도 경제논리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선정) 한반도 평화시대의 통일교육 담론 : 지속성과 단절성의 복합적 딜레마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외적 변화의 맥락에 위치시켜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탈냉전 및 남북 UN통시기입 시대에 반공-안보-이데올로기 대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냉전시대의 통일교육 담론을 대체할 새 담론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김대중, 노무현의 진보정부 시절에 그것들이 발전되고 실행되어 간 과정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보수정부가 그것을 정제 내지 전통적 방식들로 회귀시켰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가능하다.

- 그 작업은 우리의 통일/통일교육 담론이 시대적 변화와 상호 연계 속에서 진화해왔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추세적으로 한국의 통일/통일교육 패러다임의 기본방향은 반공-안보 중심에서 화해-협력지향으로 진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적위/적위로부터 공존과 통일을 함께 할 대상으로 바꾸어 왔다. 통일은 당위의 영역에서 점차 실득과 선택의 영역으로 진화하며 그 양상 제도로 통합에서 인간적, 사회문화적 통합과 공동체 건설로, 그리고 보다 이상적으로는 결과나 최종적 상태보다 과정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방법론적으로도 선택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토론과 능동적 참여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성찰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송정호·조정아 2009, 171).

- 이 논문은 그런 변화의 전반적 추세 속에서도 한국의 통일담론은 몇 가지 본질적 모순에 갇혀 있으며 한반도 평화시대에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기와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기존의 통일담론들을 분석하여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자기중심성의 모순, 공급자 중심성의 모순, 그리고 결과 중심성의 모순으로 종합한다. 이 모순들은 전통적인 반공/안보 중심의 담론들은 물론 소위 신패러다임의 범주에 속했던 담론들도 공유하며 그것이 한국 통일담론들의 성공을 막는 족쇄가 되었음을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시대에는 그런 모순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극복하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득력 있는 담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만약 시대적 여건에 따라 통일/통일교육 담론이 변화해 왔다면 우선 시급한 작업은 한반도 평화시대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며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의 통일담론 변화과정을 시대적, 국내외 정치적 맥락과 연계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한반도 평화시대는 통일과 관련해서 이전과 어떤 측면에서 다르며 무엇이 새로운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의 담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 주요 연구 결과

- 이제 한반도 평화시대의 한국은 정파와 세대, 국제 및 국내정치적 여건, 남북관계의 양상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기본사고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통일 이후 이질적 남북한 사회의 통합과 체제진화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이미 일정한 형태로 통일의 형태와 목표에 대해 사전적

- 이 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본격 전개되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열린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립하기 위한 작업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및 남북관계의 경색기를 극복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전환이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는 지난 70여년 간 한반도를 규정했던 냉전적 분단체제의 본질적 변화의 시작이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는 한미일 남북삼각과 북중러 북방삼각이 각각 편대를 이루어 적대적 대립관계를 구성해 왔던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공존질서를 가져오려는 노력이며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축즉발의 전쟁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던 남북관계가 항구적 평화라는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시대적 의미도 가진다.

- 물론 70여년 간 극한 대립과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남북과 북미가 일시에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지역에 평화질서를 수립하며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뒤덮었던 전쟁의 상흔과 상호불신, 핵전쟁 위협 그리고 극단적인 적대성을 상호 이해와 평화적 공존 그리고 공동의 번영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통일부 2018; 통일교육원 2018 참조).

- 이런 변화된 지역정세와 남북관계는 그에 걸맞는 통일관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실 통일교육은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지향성, 내용,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 등 모든 면에서 고도로 국제화/지역화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동향 그리고 정치화된 국내정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현재도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냉전기의 반공-안보 교육을 거쳐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의 해빙이 진행된 1990년대 이후 통일교육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 등 진보적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 정책들이 교차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북한관과 통일관 그리고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양상 등을 반영하여 크게 변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분단과 대립 그리고 보수적 사회분위기로의 회귀 등으로 지속성을 보이는 이중적 양상을 띠어왔다.

-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에 70여 년 간 상존했던 냉전의 흔적을 평화의 질서로 대체하는 역사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통일담론과 교육 패러다임이 다시 한 번 필요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시대의 통일담론과 통일교육은 과거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던 분단과 대립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구시대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지향한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 남북평화시대의 새로운 통일담론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통일담론의 흐름을 국내

판단을 내포하는 주장이 된다. 독일이 통일 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던 것을 참고 삼아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그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통일은 진정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정이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번영의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일 후의 상태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교육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된다. 논쟁적 이긴 하지만 독일통일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한 현재의 통일논의에 대해 본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통일 과정에 남북한이 충분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공동 발전을 이루어 정치체제 및 경제 발전수준의 상당한 접근을 이룬다면 그런 고민은 사족에 불과해진다. 말하자면 이제까지와 같이 통일 후의 상태를 가정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적 사고를 가르쳐서 새로운 정치체제에 적응하도록 돕겠다는 식의 통일교육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짧은 세대에 인위적으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것이 없다는 점을 지난 수십 년 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 통일/통합의 과정은 아니었던 과거로 복귀하거나 두 체제의 산술적 결합을 뛰어넘는 창조적 과정이어야 하며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는 미지의 세계여야 한다.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북한을 여행하게 되고 북한 학생들과 교류하며 북한적 삶이 무엇이고 우리와 어떻게 달랐고 다름지를 이해하며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조화되고 함께 살아가 수 있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고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결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한국인의 머리 속에 전쟁과 상상 그리고 도발과 피해의식으로 남아있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인식을 현재의 북한, 객관적 사실 속에서의 북한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현 상태에서 존재하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체제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통일논의는 어차피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다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다음을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사고는 무용할 수밖에 없다.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쟁과 분단은 한국사회의 대타자(Other)와 같다. 이는 현 단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든 하더라도 그 형성과 성격에 있어서 민족 분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2010년대 후반의 한반도 정세는 분단에 관한 시각과 이론적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지역문학 문제까지도 관점의 재고를 요구한다.
- 현 단계 지역문학 연구의 추세를 두고 볼 때 강원권 현대문학은 가장 소외된 대상에 해당된다. 연구자 불포나 연구 결과, 관련 자료의 축적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강원권 문학이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문제적 대상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된 시의 성은 분단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경학적 위상을 위시하여 기타 문학사회학적 실정 속에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 이러한 전제 위에서 본 연구는 분단을 모티프로 하는 강원권 시문학의 대표적 사례와 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그로부터 형성된 문학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적 정체성 논구는 지역문학론의 궁극적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인 만큼 이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항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 본 연구는 미진한 강원권 문학사를 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총량을 다하고 기존 한국 문학사를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시도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병행될 때 강원도를 거점으로 하는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 강원도는 한국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역사적 공간이었고, 현재까지 유일한 분단 권역으로 실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경학적 조건은 강원권 문학장의 실정에 그대로 연동된다. 분단이라는 선험적 조건은 강원권 문학의 현재성을 구성하는 특별한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근현대 강원권 문학작품 속에는 분단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형상화 양상이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 조명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강원권 문학장 내에서 전개되어 왔던 분단 문학의 양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통일 문학사를 대비하는 실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 통일 및 평화 교육은 이론적 추상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구체적 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일 교육에 있어서 인문학의 전통 분야인 문학은 원론적이고도 실질적인 범주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근현대 문학장의 정립기를 중심으로 강원권 시문학 양상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도 통일 및 평화를 주제로 하는 텍스트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 문학사 및 관련 교육의 주요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 문학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성격이 전쟁기 당대를 넘어 이후 강원권 지역문학장의 구조적 속성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있다.
- 요컨대 분단을 주요 화소로 지니는 강원권 지역문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첫째는 문단 자체의 비수월성이며, 둘째는 문학 내용의 순수서정화이다. 강원권 지역은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지경학적 공간으로서 문학을 포함한 문화계 전반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에 정훈문학을 위시하여 반공과 순수로 문학적 내용이 일관되는 계기를 이루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고착화된 동인지문단은 이후에도 구조적 경향을 반복하면서 현 단계 강원권 지역문학장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 여기서 명명한 것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후문학적 제경향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서 전후 남북한 사회의 대타자적 존재인 전쟁은 문학에도 지배적 결정인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대의 창작 주체들이 전쟁이라는 타자에, 그것이 수반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타자에 선험적으로 지배된 나머지 그 역반응인 주체의 강화로 모든 문학적 경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후문학은 전후 현실의 황폐성과 삶의 고통을 개인주의의 내면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파헤치지 못한 채 정신적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후 남북한 문학의 공통된 한계 상황이었다.
-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이성적이고 총체적인 주체의 소멸로써 문학의 경향을 진단하고 있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자성의 선험적 지배를 받던 시대로부터 타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확보는 통일문학사를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지역문학은 이처럼 문학의 타자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이론적 범주가 될 수 있다.
- 한국전쟁이 가져온 강원권 지역문학의 결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한 매체 상실은 개인의 문학적 단절은 물론 강원문학 전반에 아머추어리즘적 경향을 조성하는 근타자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단 최전선에서 전쟁의 포화를 온몸으로 맞이해야 했던 지경학적 조건, 휴전 이후에도 계속된 남한사회 내에서의 소외구조 등이 연동된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은 강원권 지역문단에 두 가지 방향에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는 문단 자체의 비수월성이며, 둘째는 문학 내용의 순수서정화이다. 동시에 진행된 부산경남지역과 제주지역의 문학활동을 대비하자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정훈문학을 위시하여 반공과 순수로 문학적 내용이 일관되는 계기를 이루기도 한다. 강원 지역 출신으로서 전쟁에 참가하여 제주 지역에서 활동한 김구량의 사례는 강원권 지역문학이 전쟁을 전후하여 겪어야 했던 이주의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착화된 동인지문단은 이후에도 구조적 경향을 반복하면서 현 단계 강원권 지역문학장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분단과 분단 극복의 모티프로 중심으로 강원권 시단의 대표적인 매체와 작가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대상 텍스트들이 자연적 연관 외에 지역문학적 정체성을 크게 담보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문학장의 형성 자체가 전쟁 이후 본격적인 지역 문화의 과정과 맞물린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이는 지역문학 연구가 한국문학 연구의 일환이요 그 총량을 밝히는 거시적 목적에 부합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역문학적 접근은 기존의 문학사적 관점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학적 다양성을 밝히는 하나

○ 연구 내용 목차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3. 분단과 분단 극복의 시화
 - 1) 전쟁과 강원권 시단의 쟁점
 - 2) 분단과 분단 극복의 가능성
4. 맺음말

○ 주요 연구 결과

- 한국전쟁기 강원권 지역문학의 양상은 지극히 열악한 것이었다. 기존 문학사를 통해 보듯 한국전쟁은 남북한 문학 이질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해방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한 소위 '분단문학'은 전쟁을 계기로 고착화되었다. 사실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상황은 당시 문학은 물론 여타 예술과 사회제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전쟁기의 시는 전쟁현장의 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전쟁 체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편들은 전쟁의 가열함 속에서도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실존적 몸부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선험적 조건에 모든 창작 역량이 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문학작품이 어느 역사적 사실에 의해 그 내용과 형식을 지배받았다면 그것이 지닌 예술적 의의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 순수 서정시는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전통적 요소인바 이러한 경향이 전후에 계승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분단 극복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작품에서는 "현실의 고통을 개인적 감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극복하려는 정신세계"를 보여준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기도 하지만 대개 현실과는 거리가 먼 내면세계로의 매몰 경향이 강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0년대 남한 시단의 다른 한 축에는 후반기 동인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시운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성의 문학, 질서, 권위 등을 부정하고 1930년대 모더니즘의 감각과 기법을 받아들여 새롭고 모더니즘 시운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대결하려는 절박한 자의식, 현란하고 장식적인 이미지, 즉유와 패러의 그늘에서 삶의 허망함이나 새로운 감각으로 포착해내려는 시도 등을 보여주었다. 모더니즘 운동의 의의는 전통의 답습보다는 새로운 기법을 구사하여 50년대적 고뇌에 시적 형식을 부여해보려 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컸던 나머지 문명 비판과 기성 부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지 못하고 공허한 관념의 포즈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시장르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대개 소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전후문단의 진반경향에 비해 때 강원권 지역문학은 주로 순수 서정의 맥락을 따르는 형국이라 하겠다. 생각해볼 문제는 전문적인 지역문학의 매체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개별 작품의 양상이 삶과 문학의 원천인 지역적 삶과는 거리가 먼 다소 주관적인 혹은

- 의 논거이기도 하다.
- 통일문학과 생태문학은 강원권 지역문학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강원도의 지경학적 조건은 분단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분단문학에서 통일문학으로 지향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강원도는 우리나라 생태의 보고이며 자연의 보부이다. 이 역시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배경이요 문학 본연의 생태적 의미를 실현하는 기제가 된다. 한국전쟁은 강원권 지역문학에 선험적 한계를 남기 놓았다. 또한 동시에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지경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식적 전유는 강원권 지역문학이 분단이라는 대타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의무가 아닌, 이-푸 투안 식으로, 인간이 문학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운명일 것이다.



(2차 선정)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필요성 증가
- 2019년 10월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이 비무장지대(DMZ)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
- 북한과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대응조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돼지열병으로 축사폐해 확산되며 전염병에 대한 남북한 협력적 대응방안의 필요성 증가.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의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협력 필요
-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함
- 2019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ASF의 발생지점을 살펴보면 북한과의 접경 지역(민통선 안쪽을 포함)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한반도에서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을 둘러싼 남북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한반도에서의 ASF 발생 확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감염실태와 관련한 북한의 투명성을 촉구함.
 - 그러나 북한은 ASF가 처음 발생한 2019년 5월 이후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정보공유 등의 협력체계 구축마련이 시급함.
- 산불의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협력 필요
 - 접경지역은 세계적인 생태계 보전지역을 갖추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접경지역(DMZ 포함)에서 80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접경지역은 정전협정 등의 문제로 소방대응이 제한적이며 UN사령부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소방행기 진입허가를 받고 있으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변동적인 상황에 있음.
 -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 4월 경기도 연천군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이례적으로 다수의 소방행기를 투입했으나 남북 공동대응 협력체계 미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진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군사상의 이유로 토지이용도 제한되어 있어 생태계 및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서도 남북한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 수해의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협력 필요
 - 남북한은 임진강과 북한강 등 수계를 공유하고 있는 하천이 여러 존재하고 있음.
 - 임진강 수계에서는 1996년, 1998년, 1999년 각각 임진강이 범람하는 수해사건이 발생하여 이재민 피해와 3조원 대의 수해 복구비용이 투입되었음.
 - 북한 측은 '황강댐' 등 여러 댐을 건설하였는데 해당 댐들이 저수한 물을 대량 방류할 경우 하류 지역에서는 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큼(2001년 10월, 2002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5월 등)
 - 실제 2009년 9월 북한 측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을 방류하여 접경지역 주민 6명이 사망하였음
 - 남한에서 '군납홍수조절지'를 설치하였으나, 북한이 위치정 방류할 경우 도담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움.
 - 수계를 공유한 하천에 대한 홍수대응과 북한의 무단 방류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
- 미세먼지의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협력 필요성 증대
 -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남북 모두 국경을 초월하여 피해를 주고 있음.

○ 연구 방법 및 내용

- 북한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탈핵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남북교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하기에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음.
 - 과거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지속성 및 실효성의 한계가 있었음.
 - 최근 발생한 임진강의 수해와 DMZ의 산불 등으로 인해 남북한 공동 협력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중국과 몽골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남북한이 동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재난이기에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협력하여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점차 한반도의 재난으로 확대되어 가는 미세먼지 대응도 현 정부의 남북한 발전정책의 기조 하에 계획 및 사업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자연재난 재난관리를 남북한 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사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등과 같은 전염병, 산불, 수해, 미세먼지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할 예정임.
-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재난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임.
- (사업대상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①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북한의 재난대응 법적도적 체계를 분석하여 재난관리 대응사항을 살펴보고 ②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재난대응 협력체계의 문제점(제약요소 및 법적도적 미비 등)을 도출한 후 ③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의 재난관리 체계를 합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남북한 공동대응 방안모색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등과 같은 전염병, 산불, 수해, 미세먼지 등을 샌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의 관점으로 연구함.
 - 2015년 이후 제시된 국제사회 공동대응 전략의 패러다임은 개발(빈곤퇴치)-환경(기후변화)-재난관리(재해위험경감)의 융합적 접근을 유도하고 있음.
 - 2015년 세계재난경감회의(WCDRR)에서 채택된 샌다이 프레임워크는 효고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를 개편한 프레임워크로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

- 특히 남한은 중국 산업화로 인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북한의 석탄과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영향까지 받고 있음.
 - 현재 북한의 미세먼지 농도는 공식적인 발표자료가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조선중앙방송에서 경보발령이 내려지는 등 대기오염의 악화가 보도되고 있음.
 - 중국에서 오는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자체배출량, 관리부족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됨.
 - 2007년 12월 남북한은 환경분야 합의를 채택한 적이 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합의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음.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P4G 정상회의(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에 참석해 북한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러나 현재 미세먼지 관련 남북한 공동 대응협력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우선 북한이 자력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을 시작으로 협의체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이 시급한 과제임.
- 북한은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capacity) 미흡에 따른 공동대응 필요
 -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동일한 규모의 자연재난을 입은 나라보다 더 큰 경제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의 GDP의 3.6%가 손실되는데 이는 기후위험지수 10위권 국가의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한국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음.
 -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자연재난 피해는 한민족이라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함.
 - 1953년 휴전 이후로 군사적 대치를 통한 휴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을 우리영토에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새로운 개념과 인식을 도입하고 종합적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공동재난 대응 협력을 신뢰구축을 위한 지속성의 관점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함.
 - 북한의 재난관리 특수성을 이해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진행방법 및 내용) 북한 재난에 관한 UN의 통계자료) 및 통일부 자료, 국내외 언론자료, 북한 재난관련 법규 등을 문헌 연구자료로 이용하고 관련한 전문가 자문, 국내외 실무자 간담회 등을 활용함.
 - UN의 재난 지표를 통해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 검토, 국내외 언론자료를 통해 북한 내부적 재난대응 사례를 분석
 - 통일부 북한통계 및 연감을 활용하여 남북한 공동 재난대응 원칙과 협력의무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
 - 국내외 언론자료와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부처 자료를 통해 남북한 재난협력의 필요성 및 근거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남북한 공동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의 기본방향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제시함.
- (세부내용)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남북한 공동재난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함
 -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패러다임은 개발(빈곤퇴치)-환경(기후변화)-재난관리(재해위험경감)의 융합적 접근을 유도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국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각 국가들의 이행력 강화와 이행 점검(모니터링)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분야 간 긴밀한 결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중 샌다이 프레임워크는 재난대응에 관한 국제사회 패러다임의 대표로써 2030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감소를 기대효과로 설정하고 목표를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틀인 샌다이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각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목	<목표 1> 지역사회 기반의 리질리언스 및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목표 2> 신뢰성 높은 지표 개발 및 목표 설정을 통한 실질적 재난 손실 감소
표	<목표 3> 책무성을 강조한 보고 및 평가 체계 구축-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증대
	<목표 4> 통합적 관점에서의 재해위험경감 정책 마련 등의 사항을 강조
우선	<우선순위 1> 위험 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통한 논의 기반의 확대
순	<우선순위 2,3> 이전 효고 프레임워크의 한계였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이행 추진체계와 재정적 수단의 정비
은	<우선순위 4> 개발과정과 연동된 재해위험경감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리질리언스 확보 및할 문제해결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성 재고

<샌다이프레임워크의 목표 및 우선순위>

- 이전 국제 전략들과 샌다이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차이는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음.

1) 유엔인도지원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및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의 자료 등을 이용

- 이전 전략들에서 위험은 외생적인 것으로 효과적 대응 및 복구, 발생확률 및 피해규모 감소 등에 노력을 집중하였지만 샌다이프레임워크에서는 내생적 위험을 전제로, 개발과정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 이전 전략들의 정책수단은 조기경보시스템 등 재난관리의 직접적 정책이 집중하였지만 샌다이프레임워크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위험에방투자 및 관리 등의 정책수단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에 맞는 남북한 재난협력의 공동대응 전략을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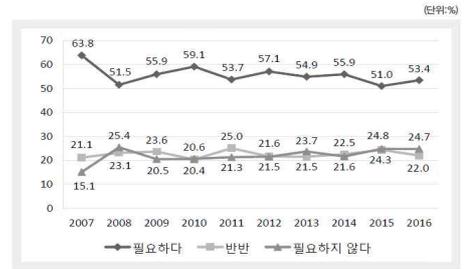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북한은 식량부족과 경제체제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매우 약한 것은 기정을 사실이며, 하천정비 등의 방재인프라가 부족하여 수해 등의 자연재난 피해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분할하여 관리하는 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임.
- 남북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한 재난관리 공동협력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제제가 있으며 지원 품목에 대한 규정 및 절차가 정립되어있지 않음.
- 재난관리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우리나라 관련 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북한에 지원할 경우 임시방편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 자연재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과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현재 관련부처 사이트에서 북한의 연도별 집중호우 피해현황 정도 등에 대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 현황은 관련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둘째,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의 최신상황을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셋째, 본 연구의 내용에 기초하여 향후 남북한 재난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시범협력 사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 넷째, 재난을 위해 남북이 갈등과 대치가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신뢰구축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차 선정)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 기반 평화통일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도 잠정적으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처해있지만, 지난 2018년 4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올해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까지 남북교류는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정부는 대외적으로 평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평화의 시대를 위한 평화 및 통일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한승태, 2019).
-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8)의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0대 대학생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10년 간 지속적 추이를 살펴볼 때 무관심 중대 경향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20대가 생각하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보다는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연령대에 높다고 보고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따라서 몇몇 선행연구는 젊은 세대는 노년층에 비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기 때문에, 향후 통일한국의 주역이 현재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박범중·서선영, 2018; 이미경, 2014).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8)
<그림 1> 통일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 학문적으로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은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연구를 중심으로(e.g., 배영애, 2017; 이미경, 2014; 임현모, 2017; 최정진, 2017)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교수법에 대한 제시(e.g., 류성창, 2016; 박찬석,

2016: 이지연, 2018)과 같이 유형이 대체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의 주제를 대학이나 정부로 보고, 상대적으로 교육 주체인 대학생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한승태, 2019). 뿐만 아니라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제안과 같은 개괄적인 접근이 다수를 차지하고,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대학의 전공계열 및 대학과 지역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미흡한 것도 현 평화통일교육의 미흡한 점이다.

- 본 연구는 향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주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의 특성을 전공계열을 반영하여 평화통일경영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강인도를 연구대상으로 한정짓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전공계열, 지역특성, 그리고 지역과 연계를 토대로 접근하고, 연구대상은 실용인, DMZ, 군사시설, 북한과의 체감이 높은 강인도에 있는 대학을 위한 평화통일경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의 전공별 특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에 기반 해 경상계열 대학생들을 위한 평화통일경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한 과제를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및 연구설계

<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

- 대학의 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이지연, 2018). 1968년 정부가 대학에서 국민윤리 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이수하도록 하게 한 이후 1988년까지 국책과목으로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중요한 위치를 점립하였다(이미경, 2014)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80년대 말 탈냉전이라는 국내외 사회적 분위기로 대학 통일교육은 대학의 자율적 운영으로 책임이 전가되었고, 내용도 기존의 획일적인 이념교육에서 평화, 북한이해 등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미래 통일사회의 대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동국대, 명지대, 관동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선문대, 조선대, 인제대 등 7개 대학에 북한학과가 신설 운영되었으나, 2016년 현재 북한학과 개설 대학 중 동국대만 축소해 유지될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폐과 혹은 타학과로 통합되어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정부 및 대학의 관심과 지원 부족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지연, 2018; 임현모, 2017).
- 선행연구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들이 받아 온 통일교육의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지연, 2018; 임현모, 2017). 예를 들어 임현모(2017)의 연구 결과는 광주교육대학생의 통일교육에 대해 전체 학생의 92%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고했고, 통일교육에 대해 58%가 '형식적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수강한 경험은 없지만(84.7%), 대체로 통일교육 강의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평가(62.9%)해 현재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지연, 2018).
- 대학 통일교육에 관하여 현존하는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기반 한 통일교육연구(e.g.,

변종현, 2012; 이미경, 2014), 통일교육을 보편적 확장을 위한 방향성 연구(e.g., 홍용희, 2012; 정경환, 2012)와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e.g., 김중수, 2015; 조은희, 2016)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언급한 유형의 대학생의 통일의식 저하와 대학생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의 통일의식 조사를 통해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까지 무관심했던 대학생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변종현, 2012; 이미경, 2014). 하지만 이 연구들은 대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유형의 선행연구는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홍용희, 2012; 정경환, 2012). 이들 선행연구는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로 평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으로 인하여 대학 통일교육이 소극적인 분단 차원의 넘어 통일 전후의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학 통일교육의 현재의 상황과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방향에 대한 구체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홍용희, 2012; 정경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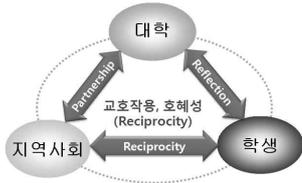
- 세 번째 유형은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김중수, 2015; 조은희, 2016). 현존하는 선행문헌은 대학에서의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은 몇몇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양에서 개설된 과목들의 경우 제한적인 계열의 학생들만이 접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김중수(2015)는 대학 통일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학생들이 시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조은희(2016)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 교양과목 사례를 통해서 통일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최근 대학 통일교육 관련 방향이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다양한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대학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이나 대안과 방법이 대부분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중수, 2015; 조은희, 2016).

<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 >

- 21세기를 위한 교육의 재구조화 모형(a model for restructuring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에서는 지역사회경험학습에 관한 주요한 몇 가지 기본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정명화·김경란, 2013; Melaville, Berg & Blank, 2006; Owens, 1994). 우선 학교는 배움과 실제적인 삶의 감각을 증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기회를 찾아야 하고, 실제 세계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수업에 도입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도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할 필요를 언급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육을 평생교육 관점에서 연속적인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머 더불어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경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네 번째 강조점은 학습은 학습자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교수자와 멘토 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함께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섯째는 미래의 직업은 더 많은 교육을 필

요로 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팀워크, 지식응용능력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여섯째로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일곱째, 오늘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족,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여덟째, 지역사회경험학습의 적용은 기초가 되는 이론적 원리를 이해하고, 모형에 따라 실시하고 실행을 평가할 수 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언급하였다(정명화·김경란, 2013).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재구조화에서 강조되는 지역과의 연계는 지역사회경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으로 발전하였고,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교육적으로 줄이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유용하다(형정은·정명화·김경란, 2011; Melaville, Berg, & Blank, 2006). 지역사회경험학습은 학생, 대학, 사회의 3개 주체가 협력하여 목표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루어진다. 학생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코디네이터를 두어 교과 개설 및 지역사회기관 섭외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형정은·정명화·김경란, 2011).



출처: 형정은·정명화·김경란(2011)
 < 지역사회경험학습의 3주체 상호작용 >

Owens & Wang(1996)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은 3가지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계획단계-활동단계-반성적 성찰단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교사 또는 지역사회의 관리자는 멘토가 되어 학생과 함께 상호 협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때 계획이 뚜렷할수록 학습자는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인 활동단계에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지역사회에서 실제 경험을 얻었다. 이런 활동은 각 교과에 관한 지식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하게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반성적 성찰은 개별 또는 집단토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현장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수업에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보도록 하는 단계라고 보고했다(Owens & Wang, 1996).

두 번째 구성요소는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세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필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대학생을 위한 지역사회경험학습형(CBL) 평화통일경영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과 제안을 위해 교수, 통일관련 전문가,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는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활용하고자 한다.
- 델파이 기법은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전문 패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이다(Dunn, 1994; Lawshe, 1975). 델파이 조사는 패널들은 설문지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응답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반복적이고 통제된 피드백을 통해 합의가 유도된다(Dunn, 1994; Lawshe, 1975). 델파이 기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패널(panel)이라고 하는 전문가집단의 구성과 몇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설문조사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이뤄지며 1차 설문은 개방형과 폐쇄형을 결합한 혼합형으로, 2차 설문은 폐쇄형으로 각각 Likert-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 지역사회경험학습형(CBL) 평화·통일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 >

델파이 조사에서 1차 설문은 비 구조화된 응답 양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현재 평화통일경영 교육과 관련한 참고자료가 미흡하고, 강원도에 기반 한 지역사회경험학습형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 폐쇄형 질문과 주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함께 채택하여 혼합형 설문지를 1차 설문 조사에 포함 할 계획이다. 회수된 응답결과를 통해 패널들의 합의수준을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상황에 맞춰 2차 조사 패널은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패널과 함께 1차 조사에 참여를 못한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두번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도출한 최종안에

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멘토의 역할은 교수, 코디네이터,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그리고 동료 등이 할 수 있다고 제시했고, 멘토는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하고 학습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며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지식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멘토의 역할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이 잘 이루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Owens & Wang, 1996).

마지막 핵심 구성요소는 반성적 성찰(reflection)과 상호교호성(reciprocity)이다(Melaville, Berg, & Blank, 2006). 반성적 성찰은 지역사회경험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수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며 상호교호성이란 교수, 학생, 현장담당자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파트너가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사회경험학습은 세 주체 간의 동반 관계가 중요하며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사회의 연결이 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Melaville, Berg, & Blank, 2006).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델파이 조사의 신뢰도는 일반화 가능계수(generalization coefficient)를 통해서도 추정할 것이다. 일반화 가능계수 추정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와 동일한 것으로 본 연구에 적용할 것이다(이종성, 2011).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를 적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타당도는 CVR(Content Validity Ratio)값을 구해 확인할 것이다(Lawshe, 1975).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학문적 활용방안 >

대학은 남북 간 경제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미래설계와 진로와 관련하여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실제 북한과의 체감이 높은 강원도 기반의 대학들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할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대학의 평화·통일교육이 대학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이나 방향성, 혹은 교양수업에 기초한 교수법 제시 등과 같이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전공계열에 대한 접근과 지역연계에 대한 관심을 적용함으로써 학문적 특성을 적용한 교수법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교육적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물은 대학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이론 및 강의식 수업에 대한 문제를 지역현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인 지역사회경험학습(CBL)을 평화·통일교육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DMZ와 군사시설이 현존하는 강원도 연구 대학과 경상계열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유·무형 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실제 이러한 자원을 평화·통일경영의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오고 평화·통일경영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평화·통일경영 교육프로그램의 제안은 북한과의 체감이 높은 강원도 연구의 대학생들에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평화·통일자원을 산업 활용할 수 있는 인제양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민·관·학 평화·통일경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평화·통일경영 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차 선정) 철원평화산업지 내 상업적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체계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9년 3월 26일 강원도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평화

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곡장지인 철원을 북강원도 평강과 함께 남북 농업협력의 중심지대로 육성할 계획으로 밝힘.

- 철원평화산업단지의 구성안이 되는 통일연구원의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에 따르면, 남측 철원지역에서는 대북지원용 농기계 및 비료를 생산하여 대북지원을 명목으로 북한에 이를 인도하며, 북측 철원지역에서는 남북 공동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함.

- 한편, 북한은 인구의 40%를 넘는 1,100만명이 영양부족 상황에 노출 등 식량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남북 공동 농업협력 사업은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남북의 평화조성과 번영에 일조해야 함.

- 이를 위해 남북 공동 농업협력 사업은 일차원적인 인도적 식량 지원을 벗어나 교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북측 철원지역에서는 남북 공동 농업협력사업으로 생산된 농산물로 남측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여해야 하며, 남측은 시장거래를 통해 북측에 식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문헌필-김영훈(2018)은 상업적 교류협력이 가능한 농산물 품목의 기준 제시하고, 호냉성 원예작물(고랭지 배추, 무, 양배추, 감자, 당근, 오이, 호박, 토마토 등)과 중국산 대비 비교우위 작물(쌀, 녹두, 밤, 잣 고사리, 표고버섯, 인삼, 식물성 한약재)을 상업적 교류협력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지만, 이들 품목은 북한 전역에서 재배되는 품목들로 철원의 통일경제특구와 같은 특정 지역의 전략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 품목으로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적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강원도 철원이라는 지역적 특색과 통일경제특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생산품목 제시할 것임. 또한, 세부적으로는 남북 공동 농업협력 강화를 위해 최적화 이론에 기반한 시스템적 농산물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내용

- 남측의 농산물 수급에 기여율이 최적이 되는 북측 철원지역의 생산수량계획* 연구
- 작기, 생산제약,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 이론에 따른 남북농업협력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대상 농산물은 남측의 농산물 수급 동향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최적 품목 선정
- * 생산수량계획 : 장래의 일정기간(1개월 - 1년)동안에 생산해야 할 농산물의 생산수량을 사전에 예상하여 결정하는 방법

문제라는 사실임. 만약 통일 될 경우, 이러한 초등, 중등 교과별 전문 용어에 대한 비교 연구의 기초 연구가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 출신 초등, 중등 학습자의 집단적인 학습 부진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인 학습 부진은 통일 이후 통일 사회에 대한 불만, 혹은 남한 출신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불만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미국 내 공교육에서의 언어가 백인 중산층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흑인의 학업 성취도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흑인들의 사회적 불만, 흑인 집단 거주지의 슬럼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1960년대 이후 미국내 교육사회학적 논의들과도 그 맥을 같이함. 이는 미국 내 인종 갈등, 인종 차별의 문제로 늘 교육사회학에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의 문제임.

- 통일 이후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과별 전문 용어 비교 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출신 학습자들의 학습 부진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음. 통일 이후 북한 출신 초등, 중등 학습자가 교과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해 그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통일 대비 남북한 교과별 전문 용어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오현아(2019)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중등 문법 교과서 차원에서 남북한 문법 용어 비교 분석을 진행한 바 있음.

○ 연구 방법

- 본고의 이러한 연구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대상 자료로 다음의 자료를 선택하였음.

▣ 북한 문법 전문서	▣ 남한 문법 전문서
김옥희(2005), 조선어품사론, 사회과학출판사.	남기삼,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2019), 새로 쓴 표준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정승기(2005), 조선어형태론, 사회과학출판사.	
김백련(2005), 조선어문장론, 사회과학출판사.	

- 김옥희(2005), 정승기(2005), 김백련(2005)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세 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언어과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언어학 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규범문법적 이론서인 『조선어학전서』 시리즈의 일부로서 북한 문법 전문서로서의 대표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음.

- 남기삼,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2019) 역시 남한의 대표적인 문법 전문서로서 대표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음.

- 연구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그림1]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음. 이 진행 절차는 회귀적으로 언제든 이전 절차로 돌아와 재반복되는 구조라 할 수 있음.

-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과 국내 식량작물 농산물 간의 거래 방법 연구
- 국제통상법 상에서, 남북농업협력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 교류가 북한 제재에 저촉 여부 논의
- 남북농업협력 농산물 거래 시, 거래 방법연구의 일환으로 단순 매매거래 형태인 농산물의 상업적 매매거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주문생산 방식의 위탁가공교역, 농산물의 현지 생산 계약재배 연구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북측 철원지역을 활용한 남북농업협력 방안은 1차적으로 북측의 식량부족 문제 완화와 남측의 농산물 수급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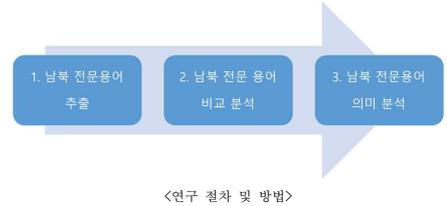
- 북측에서 생산수량계획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남측의 시장거래 질서 하에서 적정 가격에 의해 남측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 농산물과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매커니즘은 최종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기초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측 철원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남측 철원의 통일경제특구(철원평화산업단지) 내 농산물 산단에서 가공될 경우 원가절감 및 안정적 원료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차 선정) 통일 대비 남북 문법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기존 남북한 언어 관련 연구는 '민족 동질성 회복' 키워드가 주류를 이룸. 때로는 남북한어의 차이를 어휘 수준에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통일 대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인들의 남북한 언어 차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 중등 북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오현아, 김지혜(2019), L)에서는 탈북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에서의 보고서 관련 문식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밝히고 있음.
- 남한 내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학업 경험 여부, 중간 경유지(중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출생 여부, 남한에서의 학업 시작 연령대 등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 탈북 과정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출생 탈북 청소년의 경우 남한 청소년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부모의 남한 사회 교육 정보가 충분치 않아 일상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띠. 또한, 남한 사회 교과별 전문 용어는 대개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한자어에 노출이 적거나 북한 사회에서의 교과 전문어와의 차이로 인해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경향성이 높음.
- 문제는 이것이 탈북 청소년의 학습 인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의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남한 사회 교과별 전문어는 대개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 한자어에 노출이 적거나 북한 사회에서의 교과 전문어와의 차이로 인해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경향성이 높음. 문제는 이것이 탈북 청소년의 학습 인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는 사실임.
- 만약 통일 될 경우, 이러한 초등, 중등 교과별 전문 용어에 대한 비교 연구의 기초 연구가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 출신 초등, 중등 학습자의 집단적인 학습 부진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인 학습 부진은 통일 이후 통일 사회에 대한 불만, 혹은 남한 출신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불만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는 미국 내 공교육에서의 언어가 백인 중산층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흑인의 학업 성취도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흑인들의 사회적 불만, 흑인 집단 거주지의 슬럼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1960년대 이후 미국 내 교육사회학적 논의들과도 그 맥을 같이함. 이는 미국 내 인종 갈등, 인종 차별의 문제로 늘 교육사회학에서 지금도 현재진행형의 문제임.
- 통일 이후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과별 전문 용어 비교 연구가 필요함.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출신 학습자들의 학습 부진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음. 통일 이후 북한 출신 초등, 중등 학습자가 교과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해 그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통일 대비 남북한 교과별 전문 용어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 격차, 학습 부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즉 통일 대비 예비 교사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2차 선정) 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 연구 배경

- 통일은 이질적인 제도와 문화의 총체를 하나의 정치 공동체 속에 담아야 하는 고난도의 과업이

다. 1953년 정전 협정 체결을 기준으로 삼아도 이미 66년의 세월을 분단과 상호 적대적 보낸 남과 북이 온전한 통일에 도달한다는 것은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과거 분단과 이산의 경험을 몸소 갖고 있던 세대가 많았던 시절만 해도 같은 민족의 재회가 뒤 그리 어려운 일일까 싶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혈육의 정과 민족적 회한이 체제나 계도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를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직접 분단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한 민족이라는 동질감도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 통일이란 단일 정부에 의한 헌정 체제를 의미한다. 남과 북에 하나의 정부가 존재하고 대통령 이든 총리든 한 명의 행정부 수반이 선출된다는 것이다. 가장 상상하기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통일의 모습이지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통일의 모습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아니라면 남북의 정부는 각각 있되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만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연방제라고 하거나 다른 연방 국가들처럼 협의체가 강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한반도를 지역 공동체로 하는 연합 정부 정도의 위상이란 EU라는 선진적 사례가 있기는 하다.

- 이처럼 정부 수립과 체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하면 모든 것이 난제이다. 두 개의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없던 국가를 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두 체제가 서로를 적대시했다면 그 어려움은 몇 갑절 더할 것이다. 상위 정치(high politics)는 국가의 존립 외에는 고려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 의심스러운 상대 앞에서 체제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군비 증강을 통한 세력 균형만이 답이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목도했던 남북 관계의 롤러코스터는 바로 이러한 현실주의의 논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 나지 못했다.

- 정부 대 정부, 군사력 대 군사력은 공동의 이익이라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 70년 동안 못 찾았으니 앞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하위 정치(low politics)에서의 남과 북은 그나마 상호 교류의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가령 스포츠계가 막 막된 정부 간 소통 창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고, 문화예술계가 서로의 땅을 오가며 서울과 평양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일찍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기된 구성주의는 국가 간의 간주관적 이해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다. 남과 북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이해는 학문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학계가 남과 북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이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남북한 통일도 중요한 과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제와 교육과정, 교과(목) 편제에 대한 이질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양측 간 차이의 양상을 규명하고, 이를 조화롭게 합치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육 분야에서의 통일 담론은 크게 통일교육 논의 또는 교육 체제의 통일 논의에 관한 것으로 대별된다. 특히 통일교육에 관한 논의는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관련 연구 분야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오기성, 1998; 김용재, 2000; 김숙자 외, 2003; 박찬석, 2004; 안승대,

2015; 박찬석, 2016; 조경아, 2018 등 다수).

- 한편 교육 체제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학제, 남북한의 교육과정, 남북한의 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창환 외, 2004; 신효숙, 2008; 장중욱, 2009; 한만길, 2015; 이용율, 2017; 문민영, 2017 등 다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남북한 통일 상황에 대비하여 학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교육 분야의 통합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영역에서의 이질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방략을 구안하는 데 주력하기도 한다.

-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들어 보다 구체적인 교과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어 교과에서는 남북한 국어교육의 통합 방안과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제안, 교수학습 내용 선정의 통일 문제와 교과서 통일 문제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진태하, 1989; 이인재, 2005; 고경희 외, 2015; 한명숙, 2017 등 다수). 수학 교과에서는 남북한의 초중등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최택영(1998), 이화영 외(2018) 등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정환옥(2008)은 동서중 등등학교의 수학교육 현황과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 통일 담론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남북한 간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 통일 대비 교과별 연구 추세는 교과 내용 내지 학습 경험이 통일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회과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태연 남북한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비교하거나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로는 은지용(2002), 정영선 외(2019) 등의 연구가 있다. 사회과에서 활용 가능한 남북 통합적인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음(옥일남, 2014a), 남북한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비교 분석하거나 교과서 내 통일교육 관련 내용 소재를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권효숙, 2006; 옥일남, 2014b). 통일에 대비한 사회과 교사교육의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정우, 2006; 차조일·원준호, 2017)까지 연구 영역과 주제는 세분화되어 있다. 이 외에도 통일 관련 수업에서의 교수내용지식의 방향성을 제안하거나(김영현, 2019), 통일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를 어떻게 교재화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김용신, 2002)도 확인할 수 있다.

- 종합컨대 교육학 영역에서의 통일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통일교육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어떻게 조화로운 교육제도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학제 통합, 교육 정책 통합에 주목하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개별 교과 단위로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방법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과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교육 내지 보편적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법교육에 관한 남북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연구 문제

- 본 연구는 남북한의 법교육을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법교육이 추구하는 목표, 교수·학습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법교육은 일반적인 시민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초중등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사회과교육 분야 특정 학습 영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보편적인 시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본질적 내용 영역이 법교육인 셈이다. 따라서 법교육의 목표,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교수·학습방법 등의 특성은 특정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과 길러내고자 하는 바람직한 시민(인민)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남북한 간 이질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특히 법교육 분야에서의 학습 경험과 목표, 인제상과 같은 본질관은 그 이질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따라서 북한 법교육을 둘러싼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이를 우리의 법교육의 비교분석해 보는 과정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순히 북한의 법교육 교육과정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고자 한다. 법교육은 해당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법질서와 체제 구조, 신념 체계를 전달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즉, 법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성장하는가를 알 수 있다. 학교는 남북한 사회의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법교육은 그 중에서도 체제에 가장 적합한 시민(인민)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과교육이니, 법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법제와 학제상의 특징을 파악함.
 · 북한의 법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교과서(『사회주의도덕과 법』) 내용을 토대로 북한 법교육의 특성을 분석함.

- 전문가 자문 협의회
 · 사회주의 법제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법학자 및 법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협의회를 실시함. 이를 통해 북한의 법교육을 분석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을 마련함.

<연구내용>

· 북한의 법 체제 고찰
 · 성문법제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법 체제(관료법 체제 등)에 비추어 북한 법 체제의 특

수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 ‘사회주의 헌법’과 ‘부분법’의 관계를 헌법과 법률의 위계 구조에 비추어 도식화하여 파악함.
 · 북한 헌법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이념, 입법 목적과 절차 등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명료화 함.

- 북한의 교육제도 고찰
 · 최근 개편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개편 이유와 목적, 학제 상 특징, 우리 학제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함.
 ·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 단행된 북한의 2013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봄. 우리에 비해 단조로운 교과 편성의 특징, 우리 교육과정과의 교과 비교 등을 실시함.

- 북한의 법교육 분석
 · 북한 고급중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 『사회주의도덕과 법』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법교육 내용 분석
 · 교과교육학적인 법교육 분석의 준거로서 ‘교육 목표’ - ‘내용 요소’ - ‘교수학습 방법’ - ‘평가측면’의 분석을 실시
 · 우리의 법교육과 비교하여 북한 법교육의 특성을 명료화하고 남북 간 교육 교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 도출

○ 결론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법학계에서 수행해온 북한 및 사회주의 법제에 관한 연구와 교육학계에서 수행해온 북한의 학제와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법교육’이라는 공통요소로 융합하는 시도임.

- 사회주의 법제의 틀로 현재의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있는 접근이지만,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존속하게 만드는 법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미래의 북한 사회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임.

- 북한 관련 연구의 주류는 대체로 국제정치나 국방, 군사 분야가 주도하고 있음. 상위 정치 분야 아닌 교과교육학 차원에서 남북한의 비교 연구는 드문 편임. 이는 남북 간 교과가 대칭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교과교육은 어떤 교과든 김일성 가계에 대한 충성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교조적 학습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임. 즉, 교과교육적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적다는 의미임.

- 그러나 법교육은 사회 체제와 이념, 사상의 내면화를 직접적인 내용 요소로 담고 있는 교과교육 영역이기 때문에 남북한 직접 비교 연구의 효용성이 아주 높음.

- 남북한 비교교육 연구의 결과는 상호 이해 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음. 이것은 우리나라에 다문화교육이 도입되었던 2000년대 초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됨. 북한 사회도 이질적인 문화라는 점에서는 다문화교육적 접근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그 사회의 정부 구조, 사회제도, 사상 체계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시작됨. 현재에도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은 우리 사회의 기본 제도, 법질서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으로부터 시작함.

- 이 연구는 사범대학의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일 교육 강좌의 중요한 주제 분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강원대학교가 선도하고 있는 북한학 관련 커리큘럼의 일부 교육 내용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음.

(2차 선정) 전안부 질환의 남북간 유병률 및 특성 비교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의 의료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최상위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는 않는 수준으로, 백내장 및 각결막질환 등의 질환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의 빅데이터의 수집 및 통계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백내장 및 각결막 질환 등의 유병률 및 위험인자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각 질환의 치료지침 개발 및 병태생리의 이해, 치료 약제 및 수술법 연구 등에 유용한 근거가 되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한편, 북한지역의 경우 인종적으로 남한과 매우 유사한 반면, 사회경제적으로는 의료비 및 의료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증 질환에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안부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특성이 남한 지역과 유사하면서도, 중증도 등에서 남한에 비해 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 일례로, 국내에서는 백내장 수술은 이제 당일입원으로 간단하게 수술하며, 단순히 백내장의 치료 뿐 아니라 굴절교정 및 노안 교정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과 진료면에서 세계 최상위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북한지역의 경우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거의 없어, 백내장 수술을 거의 받지 못하며, 백내장으로 인해 실명하는, 국내에서 1970년대 이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루어지는 수술의 대부분은 외국 의료진의 의료봉사 등에 의한 경우가 많음.
- 한편, 남한에 비해 산업화 수준이 낮고, 교육 및 직장에서의 경쟁이 적으며 성취에 대한 압박이 적은 북한 사회의 특성 상 안구건조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질환의 경우 오히려 남한에 비해 유병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북한지역 주민은 인종적으로는 남한지역 주민과 매우 유사하여, 질환의 인종적 요인에서는 유사한 소견을 지닐 것으로 생각됨.
- 반면 고도로 산업화되고 교육 및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국내와 달리, 산업화 단계가 매우 낮고, 사회주의 국가로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의 유인이 적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남북간의 전안부 질환의 유병률 및 특성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 북한지역은 의료 수준이 낮고 의료자원의 접근도가 떨어져 백내장 및 각결막질환 등의 전안부질환이 제때 치료되지 못하고 중증도가 심해졌을 수 있으며, 저개발국가에서 볼 수 있던 인한 실명 등이 흔하게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북한지역의 전안부 질환의 유병률 및 이러한 특성을 조사하고, 남한지역의 유병률 및 특성과 비교하는 것 자체로 추후 남북협력시대에 북한지역의 전안부 질환의 치료 및 예방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남북한 교류의 확대와 함께 나후된 북한 지역에 병원 건립 및 의료진 파견, 의료기기 구입 및 의료자원 및 예산 배분에서 국내의 상황과 확연히 다른, 북한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효율적인 배분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여, 가능한 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북한 주민의 눈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백내장 수술 및 각결막질환 치료 등의 경우, 국내의 진료 및 수술 장비, 인력수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인 반면, 북한지역은 거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국내 기준으로 계산 시 약 30년 이상의 진료 수준 격차가 존재함. 본 연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빠르게 북한지역의 안과적 의료혜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과학적으로 전안부질환의 유병률 및 특성에서 남북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면, 해당 질환의 병태생리 연구 및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전안부질환의 유병률 및 특성의 남북한 주민간 차이 자체만으로, 인종적으로 유사한 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차이가 각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또한,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전안부 질환의 병태생리 연구 및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기타사항

- 가급적 2020년 연내에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북한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봉사 및 북한 주민 다수의 진료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임.
-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2020년 연내 북한방문이 어려운 경우, 북한정부 자료, UN 및 국경없는 의사회들의 진료 기록 및 자료 등을 가급적 다량 확보하여,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지역 전안

- 따라서, 이러한 북한지역의 전안부 질환의 유병률 및 특성을 조사하고, 남한지역의 유병률 및 특성과 비교하며,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면, 해당 질환의 병태생리 연구 및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이러한 자료는 남북한 교류의 확대와 함께 나후된 북한 지역에 병원 건립 및 의료진 파견, 의료기기 구입 및 의료자원 및 예산 배분에서 보다 북한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배분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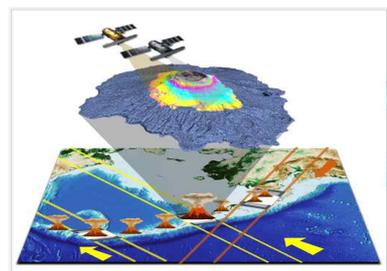
- 북한지역 전안부질환의 유병률 및 특성의 연구를 위해서는 가급적 연구자가 직접 북한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일정 지역에 의료봉사 등을 통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설문조사 및 의문기록 조사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그러나, 남북관계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지역의 출입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 경우는 통일부 등 당국의 승인을 얻어 북한정부의 통계 자료 및 북한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시행하는 UN, 국경없는 의사회 등의 국제기구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강원도청 및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이미 북한을 방문하여 여러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으며, 2019년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나 2020년 정세변화에 따라 다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북한 지역에서 의료봉사 및 의료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 안과 의사 및 사회단체에서 평양에 백내장 등 안과수술장비를 기증하고, 안과병원을 건립하여 진료를 한 바 있어 2020년에 북한지역에서 안과진료 및 봉사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건이 성숙될 경우 수개월 내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안과 의사들은 이미 미얀마, 라오스,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백내장수술 등 활발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어 나후된 지역에서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라이온스클럽 및 종교단체 등의 예산지원 역시 충분하여, 여건이 성숙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 북한지역에서 국내외의료진이 활발한 개인수술 등 봉사를 시행하고, 전안부질환을 진료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평양 또는 원산 지역의 안과병원을 방문하여 국내의 발달된 안과 치료기구를 보급하고, 백내장 등 수술을 시행하며, 북한지역 환자를 진료하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의 자료와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0년 북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UN 및 국경없는 의사회, 그리고 북한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취합하여 북한지역 전안부 질환의 유병률과 특징, 위험인자들을 연구하고, 남한 지역의 자료와 비교하며, 북한방문이 가능해지면 후속 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실제로 진료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부질환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보고서 및 논문을 작성하며, 추후 남북관계 회복 후 빠르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둘 계획임.

(2차 선정)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백두산의 화산활동 모니터링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백두산의 화산 활동(지진 발생 빈도 및 규모의 증가, 화산 가스량 증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관계 발전보다는 과학적으로 상호 공동연구 방안을 제안할 시점임.
-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백두산의 화산활동 감시를 인공위성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다면, 북한에게 매력적인 공동연구 주제임.
-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과학적 활용은 지도제작, 국토계획, 토지관리, 환경, 재난/재해관리, 자원탐사 등의 분야에서 활발함. 특히 인공위성 레이더를 이용한 지표면위의 정밀측정 및 주요 정밀 관측은 환경변화 지역의 지속적인 관측과 더불어 인공위성의 지구과학적 활용에 있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제적 선도 기술의 개발과 동시에 국제적 관심지역의 연구를 통한 국내 위성 레이더의 활용 극대화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함.
- 인공위성 레이더를 통한 지구변화 관측은 수십 km 이상의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지표면 위를 수 cm 내지 수 mm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지진, 화산, 빙하이동, 산사태, 지하수, 매립지 침하, 수위변화관측 등과 같은 많은 분야에 적극 활용되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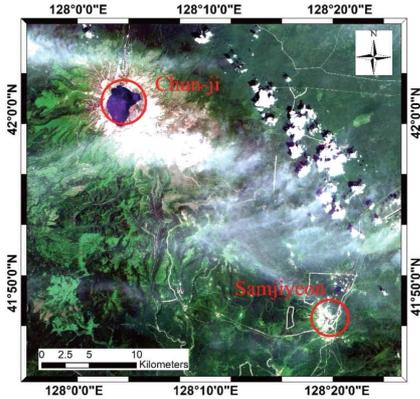


<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화산 활동 감시 >

- 특히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자연재해 중 화산활동에 의한 자연재해는 폭발 당시 분출된 용암류와 화산쇄설물에 의한 도시, 농경지, 식생 등의 파괴와 더불어 지진과 산사태 및 쓰나미 등의 이차적인 문제를 발생하기도 함.

○ 연구방법 및 내용

- 백두산은 북위 41° 59' 34"N 동경 128° 04' 39"E에 위치(그림 2)하고 있으며 최고봉의 고도는 약 해발 2750 m로 남북한 통틀어 가장 높은 산에 해당하며, 천지의 칼데라호수는 장경은 4.4 km이고, 단경은 3.7 km, 면적은 9.82 km², 고도는 2189 m, 최대 깊이는 374 m, 저수량은 약 20억 톤에 육박함.
- 화산 활동이 시작되면 마그마방이 상승하고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가 칼데라호의 온도에 영향을 미쳐 수온을 상승시키며, 이를 증거로 화산활동의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는 증거가 됨.
- 고도가 높은 백두산은 겨울이 상대적으로 길며 이에 따라 천지의 얼음과 물은 일년을 주기로 얼고 녹기를 반복함. 인공위성 기법을 이용한 위성레이더 영상의 활용시 얼음은 상대적으로 강한 후방 산란을 나타내지만 물은 대부분의 신호를 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산란 강도를 비교하는 얼음 탐지법은 얼음을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백두산과 칼데라호인 천지의 위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천지의 얼음의 면적과 기온 변화를 비교하여 얼음과 기온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주로 레이더 위성 영상인 JERS-1, ALOS-1/2 및 RADARSAT-1/2 영상을 활용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시계열로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밝혀 다른 자료들과 비교 및 검증 하고자 함.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결과는 백두산의 화산활동 시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남북한의 과학기술 협력 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음.
-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천지의 온도 변화 분포 및 얼음의 면적 측정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백두산 화산 분화 전조 현상 관측에 있어서 화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조 현상 감시 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임.
- 국가 재난 대응 기관에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백두산 화산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충분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백두산 화산활동을 감시하고 분화 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를 산출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국내에서 현재까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산분화의 대응 및 예측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선도 기술을 갖게 됨으로써, 국제 수준의 선도기술 개발과 국제 수준의 연구 성과 도출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취시킬 수 있음.

(2차 선정) DMZ 열차 게이머의도의 선행 요인에 대한 연구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DMZ 열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축하여 다양한 통일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 (연합뉴스, 2019). DMZ 열차는 통일관광영역에서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줄 역할을 하며 해외관광객들에게는 한국의 통일관광에 대한 첫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통일관광이 활성화된다면 대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DMZ 열차는 경영성과가 다소 좋지 않아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에 신경을 쓰는 등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 티티엘뉴스, 2019). 즉, DMZ 열차는 관광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 할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관광객들의 DMZ 열차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DMZ 열차 관광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게이머의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게이머는 관광수입을 상승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DMZ 열차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선행연구를 또한 게이머의도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동균, 2003; 최주호, 2003; 최경도, 2007; 배재권·정화민, 2009; 김용만·이계석·정정희, 2009; 김지윤·이민재·서원석, 2011). 게이머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들은 다양한 경영, 서비스, 관광영역들의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가격 공정성(전기연·하동현, 2010; 김학곤·한진수, 2014), 정시성(박진영·정성열·윤세환, 2012; 이보형·박장훈·백호중, 2017), 객차내부시설(최창권, 2004; 이정실·박명주, 2005), 휴미(하동현, 2009; 이계석·송학준·이중기, 2011), 교육(송학준, 2013; 천덕희, 2013), 환기(송학준·최영준·이중기, 2011; 하지영·이승현·김덕현, 2014), 및 미관(이정원·김은자, 2012; 장윤영·서원석, 2014), 혼잡도(임재운·신재현, 2003; 김지희·이호선·윤설민, 2014), 직원서비스(이형룡·이민주·이종직, 2003; 강재정·오정훈·오상훈, 2007), 편의시설(정용약·이중주, 2005; 박덕병·이민수, 2006), 편안함(류기상·손용현·김우중, 2015; 김윤영·조우재, 2016) 및 이용편리성(양희진·최성철, 2011; 최하환, 2012)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의 게이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본 연구는 DMZ 열차 이용에서 관광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항목을 참고하여 설문 항목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게이머 의도나 지불의도와 같은 요인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는 게이머의도와 지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것이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리서치센터 혹은 엠브레인과 같은 전문 데이터 업체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계획이다. 연구의 대상은 DMZ 열차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50-300 부 정도의 설문을 수집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빈도 분석을 통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리맥스 직교회전 방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할 것이고 요인 적재값의 임계치를 0.5로 설정하고 아이겐 값을 1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Hair et al., 2006).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Cronbach's α 값 0.7을 임계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Hair et al., 2006).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도출된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계산할 것이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진단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은 주요인만을 이용한 분석과 주요인과 통제변인(인구통계학적요인)들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두 차례를 실시하여 제시된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관광객 행동에 대한 연구의 영역을 DMZ 열차 영역으로 넓혀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관광, 서비스 및 교통 관련 영역의 연구에서 이용된 다양한 요인들의 설명력을 통일 관련 영역으로 확장시켜 설명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철도 경영자들에게 마케팅 전략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소비자들의 행동에 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관광객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실무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DMZ 열차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통일 관광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다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국인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DMZ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1.4.1 주요내용

－ 북한 및 평화·통일 관련 국내외의 전문가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학술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과목 개발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4.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평화·통일, 북한 관련 포럼 개최 5회	280% (14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통일, 북한과 관련된 분야로 현재까지 총 14회의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세부 진행 주제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일자</th> <th>주제</th> </tr> </thead> <tbody> <tr><td>1</td><td>19.4.19</td><td>지역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td></tr> <tr><td>2</td><td>19.5.24</td><td>대방호 DMZ 평화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평화의 길과 평화지대</td></tr> <tr><td>3</td><td>19.6.4</td><td>2019 평화학 심포지엄-평화시대 통일강원의 미래가 밝아오다</td></tr> <tr><td>4</td><td>19.7.9</td><td>북한 투자제도의 현황과 최근 동향</td></tr> <tr><td>5</td><td>19.7.10</td><td>북한의 과학기술현황과 남북교류 협력</td></tr> <tr><td>6</td><td>19.9.6</td><td>투키디데스 함정과 한일관계</td></tr> <tr><td>7</td><td>19.9.17</td><td>분단과 재일교포, 그리고 한일관계</td></tr> <tr><td>8</td><td>19.9.27</td><td>2019 DMZ 평화포럼-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td></tr> <tr><td>9</td><td>19.10.11</td><td>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변화: 소설과 수치사이에서</td></tr> <tr><td>10</td><td>19.10.22</td><td>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td></tr> <tr><td>11</td><td>19.10.22</td><td>인제군·금강군 산림협력사업 포럼</td></tr> <tr><td>12</td><td>19.11.13</td><td>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td></tr> <tr><td>13</td><td>19.11.25</td><td>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td></tr> <tr><td>14</td><td>19.12.10</td><td>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td></tr> </tbody> </table>	No	일자	주제	1	19.4.19	지역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2	19.5.24	대방호 DMZ 평화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평화의 길과 평화지대	3	19.6.4	2019 평화학 심포지엄-평화시대 통일강원의 미래가 밝아오다	4	19.7.9	북한 투자제도의 현황과 최근 동향	5	19.7.10	북한의 과학기술현황과 남북교류 협력	6	19.9.6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일관계	7	19.9.17	분단과 재일교포, 그리고 한일관계	8	19.9.27	2019 DMZ 평화포럼-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9	19.10.11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변화: 소설과 수치사이에서	10	19.10.22	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	11	19.10.22	인제군·금강군 산림협력사업 포럼	12	19.11.13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13	19.11.25	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	14	19.12.10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No	일자	주제																																											
				1	19.4.19	지역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2	19.5.24	대방호 DMZ 평화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평화의 길과 평화지대																																											
				3	19.6.4	2019 평화학 심포지엄-평화시대 통일강원의 미래가 밝아오다																																											
				4	19.7.9	북한 투자제도의 현황과 최근 동향																																											
				5	19.7.10	북한의 과학기술현황과 남북교류 협력																																											
				6	19.9.6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일관계																																											
				7	19.9.17	분단과 재일교포, 그리고 한일관계																																											
				8	19.9.27	2019 DMZ 평화포럼-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9	19.10.11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변화: 소설과 수치사이에서																																											
				10	19.10.22	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																																											
				11	19.10.22	인제군·금강군 산림협력사업 포럼																																											
				12	19.11.13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13	19.11.25	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																																															
14	19.12.10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2	정량	평화·통일, 북한 관련 학술회의 개최 2회	550% (11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통일, 북한 관련 현재까지 총 11회의 학술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일자</th> <th>주제</th> </tr> </thead> <tbody> <tr><td>1</td><td>19.4.27</td><td>DMZ 국제평화회의</td></tr> <tr><td>2</td><td>19.5.24</td><td>2019 DMZ대방호 평화문화제</td></tr> <tr><td>3</td><td>19.5.31</td><td>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 공동 주최</td></tr> </tbody> </table>	No	일자	주제	1	19.4.27	DMZ 국제평화회의	2	19.5.24	2019 DMZ대방호 평화문화제	3	19.5.31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 공동 주최																																	
				No	일자	주제																																											
				1	19.4.27	DMZ 국제평화회의																																											
2	19.5.24	2019 DMZ대방호 평화문화제																																															
3	19.5.31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 공동 주최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일자</th> <th>주제</th> </tr> </thead> <tbody> <tr><td>4</td><td>19.6.25</td><td>한반도와 SDGs 공동 학술회 (강원대,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공동)</td></tr> <tr><td>5</td><td>19.6.28</td><td>2019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한반도 대전환기-북한의 선택, 가능성과 한계</td></tr> <tr><td>6</td><td>19.8.20~8.21</td><td>2019 현대일본학회 하계학술대회-격동의 한일관계 격동의 한반도</td></tr> <tr><td>7</td><td>19.8.23</td><td>2019 현대북한연구 경기 학술회의-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td></tr> <tr><td>8</td><td>19.11.12</td><td>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와 지속가능한 남북 협력</td></tr> <tr><td>9</td><td>19.11.13</td><td>한반도 평화·번영과 에너지 협력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td></tr> <tr><td>10</td><td>19.12.10</td><td>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td></tr> <tr><td>11</td><td>19.12.27~12.28</td><td>대학의 융합연구와 평화·통일 교육의 과제</td></tr> </tbody> </table>	No	일자	주제	4	19.6.25	한반도와 SDGs 공동 학술회 (강원대,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공동)	5	19.6.28	2019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한반도 대전환기-북한의 선택, 가능성과 한계	6	19.8.20~8.21	2019 현대일본학회 하계학술대회-격동의 한일관계 격동의 한반도	7	19.8.23	2019 현대북한연구 경기 학술회의-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8	19.11.12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와 지속가능한 남북 협력	9	19.11.13	한반도 평화·번영과 에너지 협력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10	19.12.10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	11	19.12.27~12.28	대학의 융합연구와 평화·통일 교육의 과제
					No	일자	주제																									
					4	19.6.25	한반도와 SDGs 공동 학술회 (강원대,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공동)																									
					5	19.6.28	2019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한반도 대전환기-북한의 선택, 가능성과 한계																									
					6	19.8.20~8.21	2019 현대일본학회 하계학술대회-격동의 한일관계 격동의 한반도																									
					7	19.8.23	2019 현대북한연구 경기 학술회의-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8	19.11.12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와 지속가능한 남북 협력																									
					9	19.11.13	한반도 평화·번영과 에너지 협력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10	19.12.10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																									
					11	19.12.27~12.28	대학의 융합연구와 평화·통일 교육의 과제																									
					3	정성	학술회의(포럼) 주제 및 개최장소의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 북한, 남북관계 등 행사 주제 및 개최장소 다양성 확보 － 학술적 확산을 꾀하기 위해 교내·외, 강원도 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학술회의 및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참석대상의 다양성도 확보하였음. － 행사 주제의 경우 국가적 측면에서 남북뿐만 아니라, 일본 등의 주변국과의 관계와 강원도 내에서의 분단 및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물리적·지리적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과학기술, 지역환경, 법률, 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질적 수준을 제고함. 																						
4	정성	학술회의(포럼) 주제 교과목 활용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 2020학년도 1학기 운영 예정인 남·북한, 평화·통일과 관련된 교과목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로 포럼을 운영하여 학술적 의미의 확산과 교과 내용의 질적 심화를 동시에 꾀함. － 특히 포럼 및 학술회의에 수강학생들의 참여 비중이 높고, 유관 과목의 교수자가 강의 운영에 있어 포럼 및 학술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교과 활용도를 제고함. 																											

1.4.3 세부 운영 실적

가 평화·통일, 북한 관련 포럼 진행 실적 (14회)

○ 평화·통일, 북한 관련 포럼의 운영은 평화·통일관련 학술교류 활동을 통해 강원도의 남북협력 의제 발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하며 학술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온라인 확산 및 공유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9.4.19(금) 15:00 ~ 17:30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23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관심 있는 성인 등 25명
- 진행자 : 사회 (송영훈-강원대) / 발표 (이선우-전북대, 황수환-강원대, 구분상-충북대)
- 진행 내용 : 중아시아 체제 전환과 북한에 대한 함의,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주장에 대한 남북한 인식 비교, 한반도 변화와 통일인식 분석 등을 내용으로 지역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전방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2019 공동 학술회의 : 평화의 길과 평화지대

- 일시 및 장소 : 2019.5.24(금) 13:00 ~ 17:30 /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205호(국제회의실)
- 대상 : 대학생 및 지역주민 등 50명 참여
- 진행자
 - － 세션 I : 사회(남궁영-한국외대) / 발표 (김민희-한국외대, 김경래-국민대, 한상민-고려대)
 - － 세션 II : 사회(김정원-대진대)/ 발표(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황수환-강원대, 이윤규-백석대)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대진대 DMZ연구원·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한국검경지역통일학회 / 통일부, 대진대
- 진행 내용 :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의 국내외적 상황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방향과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기회를 마련하며, DMZ(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평화공원과 평화둘레길(평화의 길)의 조성 및 개발방안 모색으로 평화관광의 가능성 검토함. 분단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식을 공유함.



○ 2019 평화학 심포지엄-평화시대 통일강원의 미래가 밝아오다

- 일시 및 장소 : 2019.6.4(화) 15:00 ~ 18:00 /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AMP컨퍼런스홀 201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100명 참여
- 진행자
 - 세션 I : 주제발표(박명규-서울대, 송영훈-강원대)
 - 세션 II : 좌장(한광석-강원대), 토론(문아영-페르모모, 이찬수-서울대, 주진형-강원대, 전찬규-강원대)
- 주관 및 주최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지역사회연구원/ 강원대 일반대학원 평화학과
- 진행 내용 : '평화시대, 통일강원의 미래가 밝아오다'를 주제로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협력을 넘어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선순환적 구조조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강원대와 강원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새로운 평화문명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함.



○ 북한 투자법제의 현황과 최근 동향

- 일시 및 장소 : 2019.7.9.(화) 15:00 ~ 17:00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109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15명 참여
- 진행자 : 임형섭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통일부 통일교육원, 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진행 내용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개관, 조선대의 경제법률상담소, 북한 투자법제 설명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해안심층수개발리용과 경제합작 사례, 국제상품진람관 투자가능성보고서, 북한 투자법제 설명회의 시사점 등에 관하여 법률 상 명시 내용과 실제 사례 형태로 설명함.



○ 북한의 과학기술현황과 남북교류 협력

- 일시 및 장소 : 2019.7.10.(수) 14:00 ~ 16:0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50명 참여
- 진행자 :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Chancellor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통일부 통일교육원, 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진행 내용 : 2000년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변화와 과학기술 현황, 과학기술을 접목한 교육의 변화 형태, 남북교류 및 협력 사례와 전망, 평양과학기술대학 현황과 역할 등에 관하여 포럼 및 특강을 진행함.



○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일관계

- 일시 및 장소 : 2019.9.6.(금) 10:00 ~ 12:0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30명
- 진행자 : 일본 기후쿄리츠대학 김광욱 박사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투키디데스 예시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미중대립 및 북미대립 상황 속에서의 한일관계 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강연 주제에 대해 참여인원과 의견을 공유함.



○ 분단과 재일교포, 그리고 한일관계

- 일시 및 장소 : 2019.9.17.(화) 14:00 ~ 16:0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70명
- 진행자 :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송남선 교수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통일교육센터/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진행 내용 : 재일교포의 구성 및 형성과정,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립된 재일교포의 의미, 한일 관계 속에서 재일교포의 사회적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강연 주제에 대해 참여인원과 의견을 공유함.



○ 2019 DMZ 평화포럼 - 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 일시 및 장소 : 2019.9.27.(금) 9:30~17:30/세라톤 서울 플라자 강남 호텔 다이너스티A
- 대상 : 교수, 학생, 성인 등 100명 참여
- 주최 및 후원 : 통일연구원, 강원대, 대진대 / 철원군, 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진행 내용 : DMZ 공간에 관하여 공존, 생태의 보고 등을 주제로 한 평화의 공간의 의미와 DMZ평화시대화의 경제적 관점, 지자체와 접경지역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화해·평화를 위한 DMZ 접경지역의 미래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



○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변화 : 소설판 수치 사이에서

- 일시 및 장소 : 2019.10.11(금) 13:30 ~ 15:00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50명 참여
- 진행자 : 박종철 경성대 교수
- 주최 및 후원 : 대한석탄공사,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석탄공사의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 및 석탄산업의 교류에 초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되었음. 특히, 남북 평화공존시대에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기술력과 인력을 기반으로 평화에너지로의 가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공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



○ 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및 장소 : 2019.10.22(화) 14:00 ~ 15:30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50명 참여
- 진행자 : 김강일 연변대 교수
- 주최 및 주관, 후원 : 대한석탄공사,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강원일보사
- 진행 내용 :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과 개혁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를 모색하고자 함.



- 주최 및 주관 : 대한석탄공사, 통일강원연구원 /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남북 평화공존시대에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스하이델베당 한국사무소 베른하르트 쾰러 대표를 초청해 '에너지 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독일 통일과정의 중요한 시사결과 향후 남북 에너지 협력 가능성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였음.



○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 일시 및 장소 : 2019.12.10.(화) 14:00~15:30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50여명
- 주최 및 주관 : 대한석탄공사, 통일강원연구원 /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남북 평화에너지 활용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피터 빈대학교 연구원을 초청해 포럼을 진행하였음.



○ 인제군·금강군 산림협력사업 포럼

- 일시 및 장소 : 2019.10.22.(화) 09:30~11:3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30여명
- 주최 및 주관 : 우원식 국회의원, 인제군, 산림청/남북강원도협력협회, 강원연구원,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 진행 내용 :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인제군과 금강군의 산림협력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 일시 및 장소 : 2019.11.13.(수) 09:00~11:3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40여명
- 주최 및 주관 : 통일강원연구원 /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진경이 교수(북경대학교)를 초청하여 북중관계의 역사, 중국 및 북한의 개혁개방 시도 사례,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요소의 확장 사례 등을 토대로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포럼을 개최함.



○ 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

- 일시 및 장소 : 2019.11.25.(월) 16:00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50여명

나 평화·통일, 북한 관련 학술회의의 진행 실적 (11회)

○ DMZ 국제평화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4.26.(금)~ 4.27(토)/철원 DMZ평화문화광장, 한탄리버스파크호텔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국경선평화학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성공회대,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YMCA연맹/강원도, 철원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진행 내용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민의참여와 역할 모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국제사회 여론형성 및 평화지역 강원도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학술연구 및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민(民)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진행함.



○ 2019 DMZ대봉호평화문화제 학술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5.24.(금)~ 5.26(일) / 화천 간동종합문화센터, 한국수달연구원
- 주최 및 주관 :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DMZ대봉호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 대봉호사람들,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통일교육센터, (사)한강생명포럼
- 진행 내용 :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에 대한 강연과 '평화의 시작, 대봉호'를 주제로 대봉호 지역을 시작으로 시도할 수 있는 평화적 접근에 대한 학술회의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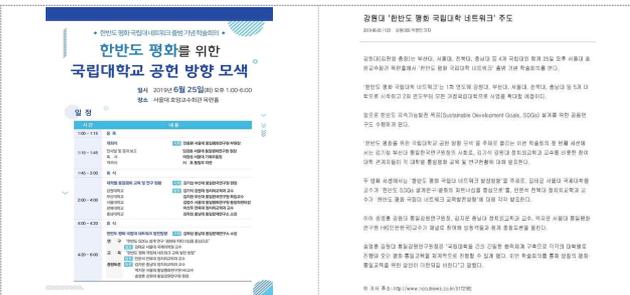
○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 :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의 남북교류협력과 상생발전

- 일시 및 장소 : 2019.5.31.(금)~ 6.1.(토)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주최 및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연구원,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한국관광공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진행 내용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남북교류협력과 상생발전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등을 논의함.



○ **한반도와 SDGs 공동 학술회의(강원대, 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전북대)**

- 일시 및 장소 : 2019.6.25.(화) 13:00 ~ 18:00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주최 및 발표자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발전방향(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 진행 내용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공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대, 서울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가 공동으로 대학별 통일평화 교육 및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2019 북한연구학회 : 한반도 대전환기-북한의 선택, 가능성과 한계**

- 일시 및 장소 : 2019.6.28.(금) 13:00 ~ 18:00 /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 주최 및 후원 : 북한연구학회,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주최 및 발표자 : 남북철도협력의 의미와 과제(황수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진행 내용 :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남북경협, 학교통일교육, 분단 장르 영화, 북한 정치체제의 변동 가능성, 남북철도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함.



○ **2019 현대일본학회 : 격동의 한일관계 격동의 한반도**

- 일시 및 장소 : 2019.8.20.(화)~21(수) 13:00 ~ 18:00 / 강원도 춘천시 배어스호텔
- 주최 및 후원 : 현대일본학회/외교부,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 진행 내용 : 긴장감 고조 및 악화된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의 갈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제동원 관건 이후의 한일 관계에 대한 현황보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일관계, 문화계 반환 문제와 북일 관계, 일본 수익과 북일 관계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2019 현대북한연구 :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 일시 및 장소 : 2019.8.23.(금) 13:00 ~ 18:00/강원대 60주년기념관 313, 314호
- 주최 및 후원 : 현대북한연구회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 주최 및 발표자 :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황수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진행 내용 : 대외경제부문 및 평화 담론의 변주와 같은 경제·사회분야, 북한의 리더십 및 북한의 군사, 대남관계 등의 정치·군사·남북관계 분야, 체육정치 및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와 같은 문화·체육·교육 분야 각각에서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 일시 및 장소 : 2019.11.12.(화) 09:30~17:00 /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컨퍼런스홀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일보/강원도
- 참석자 : 크리스토퍼 힐(전 미국부부 아태차관보, 전 주한 미국대사), 에릭 존(전 미국대사, 현 보잉코리아 사장), 존 브래드록(Broad Oak Group International 대표), 최완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즈미하시메(도쿄 국제대 교수), 진정이가(qnrdeo 교수) 등
- 진행 내용 : 미중, 북미, 한일 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 또한 강원도와 강원도 유관 기관들의 남북교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논의함. 구체적으로 지역재생, 지역혁신과 남북강원도의 발전을 주제로 존 브래드록(Broad Oak Group International 대표) 등의 발표와 크리스토퍼 힐(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전 주한미국대사)의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에릭 존(전 미국대사, 현 보잉코리아 사장), 진정이가(북경대 교수), 이즈미하시메(도쿄국제대 교수) 등의 패널 발표를 진행함.

○ **한반도 평화·변영과 에너지 협력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2019.11.13.(수) 13:00~17:15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 주최 : 대한석탄공사, 통일강원연구원, 한국경제
- 진행 내용 : '서민에너지에서 평화에너지로'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변영과 에너지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진행함. 크리스토퍼 힐(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전 주한미국대사)의 기조연설, 신재현(대한석탄공사 기획조정실장)의 주제발표 등을 진행하였으며, 전제섭(삼척시 부시장), 최윤(민주평등 강원부위원장), 홍석훈(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선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참여로 남북한 평화에너지 자원 활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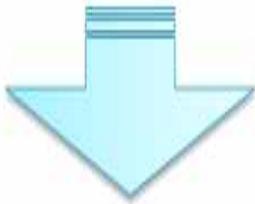
○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9.12.20.(화) 13:30~17:00 /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 주최 및 주관, 후원 : 경남대, 광주교육대,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강원대, 인제대, 한동대 / 아주통일연구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
- 참석자 :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교 총장 및 연구책임자 등
- 진행 내용 : 연속 및 신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교의 사업 운영 결과 내용 공유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 등을 교류함.



○ 대학의 융합연구와 평화·통일 교육의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19.12.27.(금) ~ 12.28(토) / 춘천상상마당 세미나실
- 대상 : 교직원, 학생, 시민 등
- 주최 : 통일강원연구원, 한국사회역사학회
- 진행 내용 : 한국사회역사학회와 공동 주최 하에 '대학의 융합연구와 평화·통일 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2020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전망, 대학교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 및 학술발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으며, 이선향(한국사회역사학회장), 최아진(연세대), 송영훈(강원대), 정다빈·오건영·이기현(한국외대), 정대진(아주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였음.



【 1차년도 성과 】

○ 복합적이고 다양한 영역의 대학생 통일교육 모델(안) 마련

- 대학생 대상 평화·통일·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전공을 융합시킨 가상학과 설치 추진
-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평화·통일 관련 강의안 마련

○ 평화통일 관련 학술적 행사 및 연구 실적 성과

- 평화·통일·북한 관련 다양한 주제 행사 진행으로 통일교육 교과목 개발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
- 교육학, 정치학, 인문학, 수의학, 산림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바라본 평화·통일 관련 연구실적 산출, 연구 결과 확산 기대

2. 통일교육 강좌 운영

구분	단위사업	주요내용
교과	①유니버스 특강 및 강좌지원	o 교과개발 준비 특강 o 비교과 특강 및 행사 지원
	②교과운영지원	o 신규교과 운영 지원 o 기존교과목 확대개편 지원
비교과	①동해평화학교	o 동해안 지역의 분단현장 직접 체험하는 현장 학습 진행 (강릉원주대, 서울대 연합 아카데미)
	②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o 비교과 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o 비교과 현장 체험학습 지원
	③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o 주요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들의 초청 특강 및 간담회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
	④대학(원)생 논문 지원	o 북한, 통일, 평화관련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개최 및 석사, 박사과정 대학원생 학위 논문 지원
	⑤대학생 토론회 개최	o 북한, 통일, 평화 논문발표, 토론 및 연구 프리젠테이션 대회 - 통일교육주간 사업과 연계
	⑥헤의교류네트워크 구축	o 북한, 통일, 평화 관련 헤의 석학 초청 및 네트워크 구축

교과

2.1 유니버스 특강 및 강좌 특강 지원

2.1.1 주요내용

- 평화·통일, 북한 관련 강좌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강사진 초청 특강을 지원함으로써 개편 및 신설 강좌의 운영상 현장연계성 제고
- 평화·통일과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비교과 강좌, 유니버스 형태의 특강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교육의 중요성 및 인식 제고

2.1.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강좌 운영 수 4건	150% (6개 강좌 운영)	· 평화·통일, 남북한과 관련된 기존 교과목의 교육과정 심화 운영 시 필요에 따라 강사 특강 지원 (7회 개최, 280명 참여)	
				No	교과목
1				북한정치와 사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

No	구분	당초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2	정량	특강 횟수 35회	111% (39회 개최)	No	교과목	특강 주제	
					(통일강원연구원)	와 관점(박영호 소장) - 학생 및 교원 등 40명 참여	
				2	화해와 통합의 이해	최근 북한의 실상과 통일 통합 준비 (주승현 박사) - 학생 및 교원 등 40명 참여	
				3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갈등상황과 통일 후 조화로운 삶(주승현 박사) - 학생 및 교원 등 40명 참여	
				4		'감을' 관계와 사회불평등 - 학생 및 교원 등 40명 참여	
				5		전환기의 북한-최근 북한 동향(김규현 수석) - 학생 및 교원 등 40명 참여	
				6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북한의 대외전략: 외교정책의 기초와 협상의 실체(전정만 원장) - 학생 및 교원 등 40명 참여	
7	(통일강원연구원)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김천식 차관) - 학생 및 교원 등 40명 참여					
3	정량	수강 학생 수 300명	700% (2,125명 참여)	· 강좌 개편 및 신설을 포함한 강좌 개발 단계에서 평화·통일 분야 관련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의 질을 제고함. (9회 개최, 359명 참여)			
				No	강좌명	특강 주제	
				1		통일 대비 남북 분단 현실 이해를 위한 영화 전문가 초청 특강(수상미 감독) - 학생 및 교원 등 30명 참여	
				2	(균형교양)	통일시대의 한국어와 한국문학	통일 대비 남북 분단 현실 이해를 위한 영화 전문가 초청 특강(전후석 감독) - 대학생 및 지역주민 등 50명 참여
				3		치유의 글쓰기, 삶을 말하다(신중섭 교수) - 학생 및 교원 등 50명 참여	
				4	(특화교양)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중국 전근대 통일 리더십(김홍길 교수) - 대학생 등 30명 참여
				5		DMZ와 한반도 평화(함광복 강사) - 대학생 등 30명 참여	
				6		무기·전쟁과 통일 리더십(김경록 강사) - 대학생 등 30명 참여	
				7	예비교사 통일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 현황과 통일시대 남북협력(이준근 박사) - 학생 및 교원 등 65명 참여	
8		남북한 사회 통합과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윤철기 교수) - 학생 및 교원 등 54명 참여					
9	(대학국어윤리교육과)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방안 모색(박모교 교수)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 학생 및 교원 등 20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통일 교육의 확산을 위해 대학생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유니버스 특강 진행 (9회 개최, 776명 참여)
No	프로그램 및 진행 학과	진행 내용		
1	통일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경영대)	통일창업 아이디어 특강 - 대학생 및 전일교원 등 106명 참여		
2	남북교류협력과 수의학에 대한 심포지엄(수의대)	2019 동물의학종합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70명 참여		
3	사회과학대 통일, 평화 아카데미	정치참여와 인권 - 대학생 및 교수자 215명 참여 영화와 정치 <굿바이 마이리브, NK> - 대학생 및 교수자 215명 참여		
5	분단을 넘는 사람들(인문대)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 대학생 등 50명 참여		
6		남북 분단에 대한 영화 감상 및 토론 - 대학생 등 40명 참여		
7		제일동포사회에 분단이 끼치는 영향 - 대학생 등 40명 참여		
8		분단을 넘어 통일로 - 대학생 등 40명 참여		
9		모두 함께 부르는 통일 - 대학생 등 40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및 시민대상 평화·통일에 대한 포럼 및 특강을 진행함. (14회, 710명 참여)
No	일자	주제		
1	19.4.19	지역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 대학생 및 교직원, 시민 등 25명 참여		
2	19.5.24	대봉호 DMZ 평화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 대학생 및 학사, 시민 등 50명 참여		
3	19.6.4	2019 평화학 심포지엄-평화시대 통일강원의 미래가 밝아오다 - 대학생 및 학사, 시민 등 100명 참여		
4	19.7.9	북한 투자법제의 현황과 최근 동향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15명 참여		
5	19.7.10	북한의 과학기술현황과 남북교류 협력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50명 참여		
6	19.9.6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일관계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30명 참여		
7	19.9.17	분단과 제일교포, 그리고 한일관계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일자</th> <th>주제</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70명 참여</td> </tr> <tr> <td>8</td> <td>19.9.27</td> <td>2019 DMZ 평화포럼-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100명 참여</td> </tr> <tr> <td>9</td> <td>19.10.11</td> <td>대북경제와 북한경제 변화: 소설과 수시사에서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td> </tr> <tr> <td>10</td> <td>19.10.22</td> <td>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50명 참여</td> </tr> <tr> <td>11</td> <td>19.10.22</td> <td>인제군-금강군 산림협력사업 포럼 - 교수, 시민 등 30여명 참여</td> </tr> <tr> <td>12</td> <td>19.11.13</td> <td>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40명 참여</td> </tr> <tr> <td>13</td> <td>19.11.25</td> <td>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td> </tr> <tr> <td>14</td> <td>19.12.10</td> <td>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td> </tr> </tbody> </table>	No	일자	주제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70명 참여	8	19.9.27	2019 DMZ 평화포럼-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100명 참여	9	19.10.11	대북경제와 북한경제 변화: 소설과 수시사에서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	10	19.10.22	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50명 참여	11	19.10.22	인제군-금강군 산림협력사업 포럼 - 교수, 시민 등 30여명 참여	12	19.11.13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40명 참여	13	19.11.25	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	14	19.12.10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
No	일자	주제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70명 참여																														
8	19.9.27	2019 DMZ 평화포럼-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100명 참여																														
9	19.10.11	대북경제와 북한경제 변화: 소설과 수시사에서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																														
10	19.10.22	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50명 참여																														
11	19.10.22	인제군-금강군 산림협력사업 포럼 - 교수, 시민 등 30여명 참여																														
12	19.11.13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 대학생 및 교수, 시민 등 40명 참여																														
13	19.11.25	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																														
14	19.12.10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 대학생 및 시민 등 50명 참여																														
4	정량	만족도 3.5점 이상 (5점 척도)	평균 만족도 4.2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내 특강 운영 평균 만족도 4.31점, 유니버스 특강 평균 만족도 4.26점이며 전체 평균 만족도는 4.28점으로, 특강 참여자 간 전반적 의견의 길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정성	특강 영역의 다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비교과 특강 진행 시 주제 및 형식에 있어 중첩되지 않고, 평화·통일에 관한 다각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함. 																												
6	정성	특강 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 진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획하고, 특강 주제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및 이메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산 및 공유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도모함. 																												

2.1.3 세부 운영 실적

가) 강좌 지원 특강 운영 실적

- 교과 교육과정 개편 및 신설을 위하여 전문가가 진행 특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지원 교과목 현황은 다음과 같음

순번	구분	교과명	학과 또는 교수자
1	전공	북한 정치와 사회	황수현(통일강원연구원)
2	교양	화해와 통합의 이해	황수현(통일강원연구원)
3	교양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최보선(통일강원연구원)
4	균형교양	통일시대의 한국어와 한국문학	오현아 외(국어교육과)
5	균형교양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류승열 외(역사교육과)
6	전공 간	예비교사 통일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윤희숙 외(과학, 국어, 윤리교육과)

- 교과 교육과정의 질적 심화 및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특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좌별 구체적인 운영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음.

북한정치와 사회 (통일강원연구원 황수현 강사)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관점

- 일시 및 장소 : 2019.10.15.(화) 14:00 ~ 16:00 / 강원대 60주년기념관 401호
- 대상 : 대학생 등 40명
- 진행자 : 박영호 소장(서울 평화연구소)
- 진행 내용 : 미·중 충돌이 유래된 이유와 미국 행정부의 군사 및 외교의 전략적 흐름, 미국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과 중국 및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등 한반도와 주변 4국의 정책적 흐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적 과제를 살펴봄.



화해와 통합의 이해 (통일강원연구원 황수현 강사)

○ 최근 북한의 실상과 통일 통합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19.10.1.(화) 10:00~12:00 / 강원대 사회과학관 121호
- 대상 : 대학생 등 40명
- 진행자 : 주승현 교수(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통일통합연구원)
- 진행 내용 : 최근 북한의 변화를 시장의 확산, 선진화, 자동차, 증산증, 의식변화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비용-편익 산출을 통해 실제적인 접근을 시도함. 통일의 비전과 편익이라는 구체적인 관점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함.

최근 북한 실상과 한반도 통일·통합의 전망!

국립인천대학교 주승현

유형의 통일

- 유형의 통일: 정책, 군사, 국력에 초점을 둔 2019년 2차 남북 정상회담, 2019년 2차 남북 정상회담
- 유형의 통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관심,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 유형의 통일: 평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상사회의 조망, 이념적 갈등과 대립
- 유형의 통일: 북한 주민들의 의식적 혁명, 남북한 주민의 상이한 가치관, 이해관계적 이익 충돌
- 유형의 통일: 남북한 통합, 국가안보, 남북한 통합, 남북한 통합, 남북한 통합

유리한 통일 비용, 무리한 통일 편익

○ 남북갈등상황과 통일 후 조화로운 삶

- 일시 및 장소 : 2019.10.1.(화) 14:00~16:00 / 강원대 60주년기념관 401호
- 대상 : 대학생 등 40명
- 진행자 : 주승현 교수(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통일통합연구원)
- 진행 내용 : 역대 북한정권의 경제 인식의 흐름 속에서 김정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현재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북아경제권 확장을 통한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현 정권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남북 갈등상황과 통일 후 조화로운 삶!

주승현

2019년의 한반도와 국제정세

- 2019년의 의미 (세계사적·민족사적)
-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 중국동 '중일관계의 부흥'
- 신동방정책: 국경 시베리아에 개방, 아시아 태평양 진출
- 미·중 갈등: '강한 일본 되찾기, 이젠 시칠리아' 내부 지원 및 군사대국화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핵심이슈로서의 평화와 통일

○ '갈음' 관계와 사회불평등

- 일시 및 장소 : 2019.11.19.(화) 14:00~16:00 / 강원대 60주년기념관 401호
- 대상 : 대학생 등 40명
- 진행자 : 조계원 강사(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 진행 내용 : '감을'관계와 사회불평등을 주제로 감정의 의미와 사례, 사회적 관계에서 갖는 지배에 대한 의미, 정치적 의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함.



○ 통일한국의 지향하는 가치와 이상 :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 일시 및 장소 : 2019.11.26.(화) 14:00~16:00 / 강원대 60주년기념관 401호
- 대상 : 대학생 등 40명
- 진행자 : 김천식 차관(전 통일부 차관)



예비교사 통일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과학·국어·윤리교육과 유희숙 교수 외)

○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 현황과 통일시대 남북협력

- 일시 및 장소 : 2019.10.10.(목) 13:00~15:00 / 강원대 교육4호관 108호
- 대상 : 대학생 및 전임교원 등 65명
- 진행자 : 이준근 박사(과학정책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진행 내용 :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현황과 통일시대 남북협력을 주제로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와 개혁,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북한의 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용, 남북한 과학기술 및 IT협력 경과와 전망, 협력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특강을 진행함.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통일강원연구원 최보선 강사)

○ 전환기의 북한-최근의 북한 동향

- 일시 및 장소 : 2019.11.5.(화) 14:00~16:00 / 강원대 60주년기념관 604호
- 대상 : 대학생 등 40명
- 진행자 : 김규현 수석(전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부)



○ 북한의 대외전략 : 외교정책의 기초와 협상의 실제

- 일시 및 장소 : 2019.11.19.(화) 14:00~16:00 / 강원대 60주년기념관 401호
- 대상 : 대학생 등 40명
- 진행자 : 전경만 원장(전 통일교육원 원장)



○ 남북한 사회 통합과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일시 및 장소 : 2019.11.5.(화) 13:30~15:00 / 강원대 교육 4호관 108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등 54여명
- 진행자 : 윤희기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 특강 내용 : 남북한 사회통합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이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의 통일외식 고양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공문의 장' 조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함.



○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 2019.12.19.(목) 12:00~14:00 / 강원대 교육 4호관 108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등 20여명
- 진행자 : 박보람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
- 진행 내용 :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생 참여형 토론 및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북한의 도덕 교과서 분석과 비판적 고찰', '통일 민감성 향상을 위한 DMZ 프로그램 개선 방향' 등 학생 주제 발표에 대한 지칭 토론 실시 및 '학교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핵심 가치와 역량',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안'에 대한 포럼 등을 진행함.

통일시대의 한국어와 한국문학(국어교육과 오현아 교수 외)

○ 통일 대비 남북 분단 현실 이해를 위한 영화 전문가 초청 특강(part 1)

- 일시 및 장소 : 2019.11.19.(화) 13:30~16:3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대학생, 지역주민 등 30명 참여
- 진행자 : 추상미 영화감독(보이스필름)
- 진행 내용 및 일정 : 통일 대비 남북 분단의 현실과 북한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강을 진행함.

시간	세부 내용	방법	담당
13:00~13:20	접수, 참석자 확인		백수철
13:20~13:30	연구책임자 인사말, 강사 소개 및 특강의 목적 설명	강의	오현아
13:30~16:00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상영, 추상미 감독 특강, 영화 해설	강의 / 문답	추상미
16:00~16:30	추상미 감독과의 대화, 질의응답	문답 / 면담	추상미, 오현아
16:30~16:40	실문조사		백수철



○ 통일 대비 남북 분단 현실 이해를 위한 영화 전문가 초청 특강(part 2)

- 일시 및 장소 : 2019.11.20.(수) 13:00~15:00 / CGV 춘천점
- 대상 : 대학생, 지역주민 등 50여명
- 진행자 : 진후석 감독
- 진행 내용 및 일정 :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쿠바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헤르니모(임은조)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영화 '헤르니모'를 통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의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 평화의 중요성을 제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역사교육과 류승렬 교수 외)

○ 중국 전근대 통일 리더십

- 일시 및 장소 : 2019.11.19.(화) 14:00~17:00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201호
- 대상 : 대학생 등 30여명
- 진행자 : 김홍길 교수(전 강원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현 명예교수)
- 특강 내용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수강생 대상 중국의 역사 중 전근대시대의 통일에 대한 리더십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함.



○ DMZ와 한반도 평화

- 일시 및 장소 : 2019.11.26.(화) 14:00~17:00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201호
- 대상 : 대학생 등 30여명
- 진행자 : 함광복 강사
- 특강 내용 :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고, DMZ와 관련된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쟁점을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함.



○ 무기-전쟁과 통일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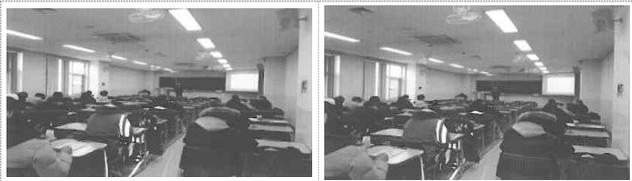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2019.12.03.(화) 14:00~17:00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201호
- 대상 : 대학생 등 30여명
- 진행자 : 김경록 강사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치유의 글쓰기, 삶을 말하다

- 일시 및 장소 : 2019.12.26.(목) 14:00~18:00 / 강원대학교 교육4호관 108호
- 대상 : 대학생 및 전입교원 등 50여명
- 진행자 : 신중섭 교수(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 진행 내용 및 일정 : 밀접하게 얽여있는 삶과 문학의 관계를 고찰하고, 북한 문학의 종자론 및 수령중심의 북한문학에 대한 작가적 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등 특강 및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구분	시간	세부내용
개회	14:00~14:10	포럼 개회 개회사 : 송영훈(통일강원연구원) 환영사 : 김중기(지역사회연구원)
발표 및 토론	14:10~17:10	발표 나의 삶과 문학 : 대관령에서 압구정동까지 / 이순원(소설가) 나의 삶과 문학 / 이지명(작가) 나의 삶과 문학 / 정우남(작가) 나의 삶과 문학 : 수령중심의 북한 문학 / 송시연(작가) 나의 삶과 문학 / 김유진(작가) 나의 삶과 문학 / 남정연(작가) 토론 최지현(서원대학교) 김지혜(이화여자대학교) 오현아(강원대학교) 사회 : 신중섭(강원대학교) 종합토론 : 송영훈(통일강원연구원) 좌장 김예리(강원대학교)
	17:10~18:00	
간담회	18:00~20:00	간담회

- 특강 내용 : 무기-전쟁과 통일 리더십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현안 문제 중 하나인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를 제고하고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함.



남북교류협력과 수의학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수의학)

○ 2019 동물의학종합연구소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주 제 :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의 수의-축산현황 바로알기
- 일 시 : 2019.11.20.(수) 13:00~18:00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 참석 대상 :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수 및 직원
- 주요 내용 : 북한의 수의-축산 현황을 소개하고,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의방역현황과 ASF' (조충희 토크마스터 연구위원), '북한 세프지구 축산기지' (성영일 강원대 동물산업융합학과 교수), '남북 강원도 수의, 축산협력 방안에 대하여' (김준영 농어업정책포럼 동물방역복지분과위원장), '북한의 농정변화와 남북협력 과제' (권태전 GS&J Institute 북한-동북 아연연구소 원장)을 중심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함.

나) 유니버스 특강 운영 실적

- 여러 전공 및 계열에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유니버스 특강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각기 다른 학문적 시각에서 바라본 평화-통일의 의미를 경험 및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순번	주관 대학	특강 주제
1	경영대	통일컨텐츠를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2	수의대	남북교류협력과 수의학에 대한 심포지엄
3	사회과학대	사회과학대 통일, 평화 아카데미
4	인문대	분단을 넘는 사람들

통일컨텐츠를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경영대)

○ 통일창업 아이디어 관련 특강

- 일시 및 장소 : 2019.9.11.(월) 16:50~18:30 / 글로벌경영관 컨퍼런스홀
- 대상 : 대학생 및 전입교원 등 106명
- 진행자 : 김영희 박사(북한학)
- 진행 내용 : 북한경제체제의 과거와 현 김정은체제로 구분해 설명하였으며, 북한 시장경제체제의 변화 사고 및 배경과 북한 국민들의 상품 구매 패턴과 사유의 변화를 설명함. 더불어 북한 경제개방시 우리 젊은이들이 주의 내지 추구해야 할 마음가짐과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특강을 진행함.

2019 동물의학종합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주최: 강원대학교 동물의학종합연구소, 남포리(동포리)대학원,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주관: 강원대학교 동물의학종합연구소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의 수의-축산현황 바로알기 **02**

북한 세프지구 축산기지

- 서론
- 북한의 수의방역현황
- 남북한 축산분야 교류협력사업 내용
- 인프리가 구축된 세프지구 축산기지의 실질적 협력사업
- 축산분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의 실질적 접근 방안
- 결언

사회과학대 통일, 평화 아카데미(사회과학대)

○ 정치참여와 인권

- 일시 및 장소 : 2019.10.18.(금) 14:00 / 60주년 기념관 111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수자 등 215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김영미 기자(기자,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 진행내용 : 다큐멘터리 피다가 바라본 전쟁의 의미,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미에 대해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과 미국의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제시하고, 소통·공감·인류애와 평화교육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단을 극복할 것과 이를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공정무역, 분쟁지역 관심 갖기,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후원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함.



○ 영화와 정치 <굿바이 마이러브, NK>

- 일시 및 장소 : 2019.10.30.(수) 14:00 / 60주년 기념관 111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수자 등 215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김소영 감독/교수(영화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 진행내용 :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탈북인, 미망인, 고려인 등의 인터뷰와 당대 기록의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해 정치적 신념과 예술을 혼합한 열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함.



○ 재일동포사회에 분단이 끼치는 영향

- 일시 및 장소 : 2019.10.30.(수) 15:00-17:00 / 인문 3호관 406호
- 대상 : 대학생 등 40여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이은자 교수(일본 관서학원대학)
- 진행내용 : '재일동포사회에 분단이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일본 사회에서 분단과 통일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분단을 넘어 통일로

- 일시 및 장소 : 2019.10.31.(목) 15:00-17:00 / 인문 3호관 404호
- 대상 : 대학생 등 40여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이유나 교수(한신대학교)
- 진행내용 : '분단을 넘어 통일로-문익환의 통일의 꿈에 대하여'를 주제로 문익환 목사의 삶의 방향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의 방법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 모두 함께 부르는 통일

- 일시 및 장소 : 2019.11.1.(금) 16:00-18:00 / 인문 3호관 404호
- 대상 : 대학생 등 40여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박진수 교수(가천대학교), 김계자 교수(한신대학교)
- 진행내용 : 학생 대상 '모두 함께 부르는 통일'을 주제로 3곡 3색의 임진각 노래를 부르며,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분단을 넘는 사람들(인문대)

○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 일시 및 장소 : 2019.10.28.(월) 15:00-17:00 / 인문 3호관 404호
- 대상 : 대학생 등 50여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주승현 교수(인천대학교), 김계자 교수(한신대학교)
- 진행내용 : 주승현의 『조난자들』에 대한 독서 토론 진행 및 탈북자 포용 방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구체화시켜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남북 분단에 대한 영화 감상 및 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9.10.29.(화) 15:00-18:00 / 인문 2호관 210호
- 대상 : 대학생 등 40여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박정일 교수(강원대학교 일반학전공)
- 진행내용 : '또 하나의 분단과 제외코리아'를 주제로 양영희의 '가족의 나라'와 '런던에 뿌리내린 북한이탈주민 이야기'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Little Pyongyang(감독 Roxy Rezvani)'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함.



2.2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운영 지원

2.2.1 주요 내용

평화·통일, 북한 관련 개발 또는 개편 교과목에 대하여 교육과정 내용의 심화 등을 위해 강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시행함. 지원 대상은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교양 및 전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공 및 계열의 학생들이 걸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범대, 동물생명과학대, 산림대, 간호대, 농업생명과학대, 문화예술대, 사회과학대, 수의대 등 강좌 지원 대상을 확대함.

2.2.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교양강좌 개설 수 8건	100% (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강좌 개설(2019-2학기 운영)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진행 학과</th> <th>강좌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통일강원연구원</td> <td>화해와 통합의 이해</td> </tr> <tr> <td>2</td> <td>통일강원연구원</td> <td>통일한국과 국제사회</td> </tr> </tbody> </table>	No	진행 학과	강좌명	1	통일강원연구원	화해와 통합의 이해	2	통일강원연구원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No	진행 학과	강좌명															
				1	통일강원연구원	화해와 통합의 이해															
				2	통일강원연구원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운영 교양강좌 내실화 (심화 및 개편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진행 학과</th> <th>강좌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통일강원연구원</td> <td>전쟁과 평화</td> </tr> <tr> <td>2</td> <td>역사교육과</td> <td>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td> </tr> <tr> <td>3</td> <td>지리교육과</td> <td>강원도와 DMZ</td> </tr> <tr> <td>4</td> <td>통일강원연구원</td> <td>통일한국과 국제사회</td> </tr> <tr> <td>5</td> <td>기초교육원</td> <td>실사구시 과노라마</td> </tr> </tbody> </table>	No	진행 학과	강좌명	1	통일강원연구원	전쟁과 평화	2	역사교육과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3	지리교육과	강원도와 DMZ	4	통일강원연구원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5	기초교육원
No	진행 학과	강좌명																			
1	통일강원연구원	전쟁과 평화																			
2	역사교육과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3	지리교육과	강원도와 DMZ																			
4	통일강원연구원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5	기초교육원	실사구시 과노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강좌 신설 (2020-1학기 운영)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진행 학과</th> <th>강좌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통일강원연구원</td> <td>평화화의 이해</td> </tr> </tbody> </table>	No	진행 학과	강좌명	1	통일강원연구원	평화화의 이해															
No	진행 학과	강좌명																			
1	통일강원연구원	평화화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강좌 개설(2건)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단과대학</th> <th>시기</th> <th>강좌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동물생명</td> <td>2019-2</td> <td>북한축산학개론</td> </tr> <tr> <td>2</td> <td>과학대학</td> <td>2020-1</td> <td>북한축산산업론</td> </tr> </tbody> </table>	No	단과대학	시기	강좌명	1	동물생명	2019-2	북한축산학개론	2	과학대학	2020-1	북한축산산업론									
No	단과대학	시기	강좌명																		
1	동물생명	2019-2	북한축산학개론																		
2	과학대학	2020-1	북한축산산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교과목 개설(6건)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단과대학</th> <th>강좌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산림대학</td> <td>북한산림환경의 이해</td> </tr> <tr> <td>2</td> <td></td> <td>북한농업의 이해</td> </tr> <tr> <td>3</td> <td>농업생명</td> <td>북한원예학개론</td> </tr> <tr> <td>4</td> <td>과학대학</td> <td>북한수문학개론</td> </tr> <tr> <td>5</td> <td></td> <td>북한식품산업론</td> </tr> <tr> <td>6</td> <td>간호대학</td> <td>통일 한국과 간호의 미래</td> </tr> </tbody> </table>	No	단과대학	강좌명	1	산림대학	북한산림환경의 이해	2		북한농업의 이해	3	농업생명	북한원예학개론	4	과학대학	북한수문학개론	5		북한식품산업론	6	간호대학	통일 한국과 간호의 미래
No	단과대학	강좌명																			
1	산림대학	북한산림환경의 이해																			
2		북한농업의 이해																			
3	농업생명	북한원예학개론																			
4	과학대학	북한수문학개론																			
5		북한식품산업론																			
6	간호대학	통일 한국과 간호의 미래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 교과 중 교내 기 운영 강좌의 교육과정 개편 및 신규강좌 개설(5건)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단과대학</th> <th>강좌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범대 윤리교육과</td> <td>대학 평화·통일교육</td> </tr> <tr> <td>2</td> <td>수의대 수의학과</td> <td>북한 수의질병학</td> </tr> <tr> <td>3</td> <td>수의대 수의학과</td> <td>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td> </tr> <tr> <td>4</td> <td>문화예술대, 영상문화학과</td> <td>남북한 관련 이슈 다큐멘터리</td> </tr> <tr> <td>5</td> <td>사회대 행정심리학과</td> <td>통일·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행정</td> </tr> </tbody> </table>	No	단과대학	강좌명	1	사범대 윤리교육과	대학 평화·통일교육	2	수의대 수의학과	북한 수의질병학	3	수의대 수의학과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	4	문화예술대, 영상문화학과	남북한 관련 이슈 다큐멘터리	5	사회대 행정심리학과	통일·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행정
No	단과대학	강좌명																				
1	사범대 윤리교육과	대학 평화·통일교육																				
2	수의대 수의학과	북한 수의질병학																				
3	수의대 수의학과	통일한국의 미래와 수의학																				
4	문화예술대, 영상문화학과	남북한 관련 이슈 다큐멘터리																				
5	사회대 행정심리학과	통일·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행정																				
3	정량	만족도 3.5점 이상 (5점 척도)	4.3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만족도 제고 노력 (교과 평균 만족도 4.31점) 																		
4	정성	교과목 강의평가에 따른 학생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강, 포럼,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업 의식, 흥미,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강의의 전반적 만족도를 제고함. 																		
	정성	개설 과목의 지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강좌 심화 및 개편, 신설 강좌의 운영 범위가 교내 정규 강좌이므로, 운영의 지속성을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연차별 운영 강좌의 수를 증가시킬 계획임. 																		

비교과

2.3 동해 평화학교 운영

2.3.1 주요내용

- 통일·평화에 대한 실질적 체험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강좌, DMZ-민통선 평화순례, 평화복 콘서트, 관련 군사 및 역사시설 참관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의 동해 평화학교를 운영함
- 타 대학과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프로그램 운영 효과의 확산을 도모함.

2.3.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참여 학생 수 50명	100%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제1회 동해 평화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참가 신청 접수 시행(19.7.3) 2019 제1회 동해 평화학교 참가 신청 결과보고 및 참여 확정 안내(19.8.5) 2019 제1회 동해 평화학교 프로그램 진행 (19.8.28~8.30) 진행 (참여인원 50명)
2	정량	참여 학교 수 3개교	130% (4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대, 서울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4개교 참여
3	정량	만족도 3.5점 이상 (5점 척도)	140% (4.8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의 수요와 흥미,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만족도 제고
4	정성	프로그램 운영 지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함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지속성 확보 및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제도적 틀 내에서 운영할 계획임
		타 학교,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대, 서울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간 네트워크 구축 차년도 사업 운영 시 참여 학교 수, 운영 결과 공유 범위 확대로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예정

2.3.3 세부 운영 실적

가) 2019 동해 평화학교 운영

○ 사업 개요

-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향상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도권 및 강원권 4개 대학이 연합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평화와 공존의 관점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숙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및 학생 참여형 발표·토론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업 주요 내용

(1) 사업목표

- 동해안지역의 분단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화·통일 의식을 정립하고, 동해안 DMZ 생태계 체험 경험에 대한 발표 및 교육을 통해 생명-평화 감수성(Eco-Peace Sensitivity)과 통일 역량 증진을 도모함.

(2) 필요성

- 평화·통일에 대한 미래세대의 공감대 및 역량 향상을 위해 강원도 내 분단 현장 등을 거점으로 대학생 대상 체험 및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강원대를 주축으로 대학 간 연합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사업성과의 극대화 및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 주요 성과

(1) 교육기관 협력 및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2019.8.28~8.30 2박 3일 간 수도권 및 강원권 4개 대학(강원대, 강릉원주대, 서울대, 춘천교대) 학생 및 관계자 약 60명이 참여하여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유사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2)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내실성 확보

- 금강산 전망대 및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및 남북출입사무소 견학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구성된 현장 체험 내용 기반 토론, 발표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사업의 만족도 및 질을 제고시킴.
- 현장에 대한 이론·학문적 설명을 진행하는 특강 프로그램은 분단, 통일, 집경지역과 관련된 체험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현장성과 내실성을 동시에 확보함.

(3)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수도권 및 강원권의 4개 대학 간 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함으로써 대학 간 연계 확산의 가능성을 제고시켰으며, 참여 학생의 높은 만족도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작용함. (* 참여 학생 종합 만족도 : 4.83점, 5점 만점)

○ 사업의 우수성

- 수도권, 강원권 4개 대학 연합 진행 방식으로 사업 참여 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효과적 확산을 시도할 수 있었음.
-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학생의 높은 만족도를 통해 사업의 질 및 성과를 1차적으로 확인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도내 대학생의 참여뿐 아니라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전국 단위 대학생들의 참여 유입을 도모함으로써 연계 기관의 확대 및 사업성과의 전국 단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사업 진행 사진



○ 홍보 포스터 및 언론 보도 사례(강원일보, 19.8.28일자)



2.4 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2.4.1 주요내용

- DMZ, 하나원 등 현장시설 방문 및 대학생-새터민 간 멘토링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교내에서 수업, 특강 및 포럼 등 각종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평화·통일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특히, 비교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형태를 전시회, 문화제, 국토대장정, 체험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보강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경감시키고, 미래세대의 통일감수성 및 공감대 형성을 도모함.

2.4.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프로그램 운영 수 2건	700% (1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지역주민, 관계자 포함 평화·통일, 남북교류 관련 비교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 완료 (7회, 492명 참여) 																								
2	정량	참여 주민, 학생 수 300명	388% (1,165명 참여)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일자</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9.5.9</td> <td>고성 평화기행 통일체험 학습 -고성통일전망대, 화진포의 성, DMZ박물관 체현, 대학생 30명 참가</td> </tr> <tr> <td>2</td> <td>19.5.24</td> <td>2019 DMZ대봉호 평화문화제 -화천 한국수달연구센터, 강원도민 200명 참가</td> </tr> <tr> <td>3</td> <td>19.6.20</td> <td>평양의 시간은 황성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초창강연 및 사진전 -황성 청소년 수련관, 학생 및 주민 100명 참가</td> </tr> <tr> <td>4</td> <td>19.7.2</td> <td>제2하나원 견학프로그램 운영 -화천 제2하나원, 이상원 미술관 체현, 성인 20명 참가</td> </tr> <tr> <td>5</td> <td>19.7.27 ~7.31</td> <td>평화통일로 가는 두바퀴: 자전거 국토대장정 -원주-강령-주문진-송지호-화진포-고성통일전망대 체현, 학생 및 주민 25명 참가</td> </tr> <tr> <td>6</td> <td>19.8.13 ~8.16</td> <td>DMZ 국토대장정 -대학생 및 주민, 학교 관계자 등 총 87명 참가</td> </tr> <tr> <td>7</td> <td>19.11.15 ~11.16</td> <td>동해평화로(路)! -강릉원주대 대학(원)생, 강원권 교수진 등 동해평화 답사 30명 참가</td> </tr> </tbody> </table>	No	일자	내용	1	19.5.9	고성 평화기행 통일체험 학습 -고성통일전망대, 화진포의 성, DMZ박물관 체현, 대학생 30명 참가	2	19.5.24	2019 DMZ대봉호 평화문화제 -화천 한국수달연구센터, 강원도민 200명 참가	3	19.6.20	평양의 시간은 황성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초창강연 및 사진전 -황성 청소년 수련관, 학생 및 주민 100명 참가	4	19.7.2	제2하나원 견학프로그램 운영 -화천 제2하나원, 이상원 미술관 체현, 성인 20명 참가	5	19.7.27 ~7.31	평화통일로 가는 두바퀴: 자전거 국토대장정 -원주-강령-주문진-송지호-화진포-고성통일전망대 체현, 학생 및 주민 25명 참가	6	19.8.13 ~8.16	DMZ 국토대장정 -대학생 및 주민, 학교 관계자 등 총 87명 참가	7	19.11.15 ~11.16	동해평화로(路)! -강릉원주대 대학(원)생, 강원권 교수진 등 동해평화 답사 30명 참가
No	일자	내용																										
1	19.5.9	고성 평화기행 통일체험 학습 -고성통일전망대, 화진포의 성, DMZ박물관 체현, 대학생 30명 참가																										
2	19.5.24	2019 DMZ대봉호 평화문화제 -화천 한국수달연구센터, 강원도민 200명 참가																										
3	19.6.20	평양의 시간은 황성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초창강연 및 사진전 -황성 청소년 수련관, 학생 및 주민 100명 참가																										
4	19.7.2	제2하나원 견학프로그램 운영 -화천 제2하나원, 이상원 미술관 체현, 성인 20명 참가																										
5	19.7.27 ~7.31	평화통일로 가는 두바퀴: 자전거 국토대장정 -원주-강령-주문진-송지호-화진포-고성통일전망대 체현, 학생 및 주민 25명 참가																										
6	19.8.13 ~8.16	DMZ 국토대장정 -대학생 및 주민, 학교 관계자 등 총 87명 참가																										
7	19.11.15 ~11.16	동해평화로(路)! -강릉원주대 대학(원)생, 강원권 교수진 등 동해평화 답사 30명 참가																										

- 150 -

2.4.3 세부 운영 실적

가) 고성 평화기행 통일체험 학습

- 일시 및 장소 : 2019.5.9.(목) / 고성통일전망대, 화진포의 성, DMZ 박물관
- 대상 : 대학생 등 30명
- 주최 : 강원통일교육센터,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원주대 법학과
- 진행 내용 : 통일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대학생 30여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화진포의 성, DMZ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통일에 대한 직·간접 체험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강원도의 비전, 추진 전략 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나) 2019 DMZ대봉호 평화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2019.5.24.(금)~ 5.26.(일) / 화천 간동종합문화센터
- 대상 : 대학생 및 지역주민 등 200명
- 주최 및 주관 :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DMZ대봉호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 대봉호사람들,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통일교육센터, (사)한강생명포럼
- 진행 내용 : 화천 대봉호를 기점으로 대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학술행사 및 공연행사, 미술전 등 다양한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화, 평화 생태 인프라 구축 등을 염원하는 행사를 진행함.



- 152 -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관련 운영 진행 (3회, 87명 참여)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주관 학과</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범대 (역사교육과)</td> <td>분단의 장소에서 통일한국의 방향을 묻는다</td> </tr> <tr> <td>2</td> <td>수리대 (수의학과)</td> <td>야생동물 질병학 DMZ 견학</td> </tr> <tr> <td>3</td> <td>산림대 (산림자원학과)</td> <td>남북산림협력 교육 프로그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지역 주민 등 참여 가능한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및 예정 (4회, 586명 참여)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일자</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9.9.11</td> <td>통일창업 아이디어 관련 특강</td> </tr> <tr> <td>2</td> <td>19.10.25</td> <td>경지참여와 인권(시안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간영미)</td> </tr> <tr> <td>3</td> <td>19.10.30</td> <td>영화와 정치: 굿바이 마이리브, NK(한애중 교수 및 영화 감독김소영)</td> </tr> <tr> <td>4</td> <td>19.11.1</td> <td>헤로니모 영화이야기 (전후석 감독)</td> </tr> </tbody> </table>	No	주관 학과	내용	1	사범대 (역사교육과)	분단의 장소에서 통일한국의 방향을 묻는다	2	수리대 (수의학과)	야생동물 질병학 DMZ 견학	3	산림대 (산림자원학과)	남북산림협력 교육 프로그램	No	일자	내용	1	19.9.11	통일창업 아이디어 관련 특강	2	19.10.25	경지참여와 인권(시안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간영미)	3	19.10.30	영화와 정치: 굿바이 마이리브, NK(한애중 교수 및 영화 감독김소영)	4	19.11.1	헤로니모 영화이야기 (전후석 감독)
No	주관 학과	내용																													
1	사범대 (역사교육과)	분단의 장소에서 통일한국의 방향을 묻는다																													
2	수리대 (수의학과)	야생동물 질병학 DMZ 견학																													
3	산림대 (산림자원학과)	남북산림협력 교육 프로그램																													
No	일자	내용																													
1	19.9.11	통일창업 아이디어 관련 특강																													
2	19.10.25	경지참여와 인권(시안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간영미)																													
3	19.10.30	영화와 정치: 굿바이 마이리브, NK(한애중 교수 및 영화 감독김소영)																													
4	19.11.1	헤로니모 영화이야기 (전후석 감독)																													
3	정성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내용을 보완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하였으며, 단발적인 행사 프로그램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연차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1차년도 사업성과의 확산, 공유 등 환류체계 등을 구축함. 																											
4	정성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다양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의 다양화) 수의대, 인문대, 사범대 등 다양한 학문 및 전공의 참여로 차별화된 평화·통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형식의 다양화) 전시회, 국토대장정, 문화제, 현장학습 및 견학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형식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였으며, 개별적인 프로그램별 운영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일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함. 																											
5	정성	지역주민, 학생 대상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및 학생 대상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견교 및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의 메일링 리스트를 확보함으로써 유관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마련함. 																											

- 151 -

다) 평양의 시간은 황성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 일시 및 장소 : 2019.6.20.(목) 15:00~18:00 / 황성 청소년수련관 3층
- 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지역주민 등 100명
- 주최 및 주관 : 황성초등학교, 강원평화교육연구원,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통일TV 진천규 대표를 초청하여 방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북한 현장의 이야기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열린 강좌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사진전과 병행하여 진행함.



라) 제2하나원 견학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9.7.2.(화) / 화천 제2하나원, 이상원 미술관
- 대상 : 성인 등 20명
- 주최 및 후원 : 강원통일교육센터,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통일부 통일교육원
- 진행 내용 : 통일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해 설치된 제2하나원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탈북과정과 북한의 실상, 정착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고충에 관한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마) 평화·통일로 가는 두바퀴 : 자전거 국토대장정

- 153 -

- 일시 및 장소 : 2019.7.27.(토)~7.31(수) / 강원도 일대
- 대상 : 지역주민 등 25명
- 주최 및 주관 : 강원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강원도협회,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길터여행협동조합
- 진행 내용 : 전국 유일한 분단도의 형태인 강원도를 자전거를 이용해 종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원주-장평-주문진-송지호-화진포를 거쳐 최종 고성통일전망대를 방문하였으며 통일의 염원을 담아 성공적으로 종주를 완료함.



사) 2019 DMZ 평화 국토 대장정

○ 사업 개요

- 대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DMZ 평화 국토 대장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화와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통일 이후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 특히 분단의 모습을 확인하고 통일에 대한 의미를 숙고해볼 수 있는 철원, 화진, 양구, 고성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탐방 및 특강, 소풍 및 교류의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제고함.

○ 사업 주요 내용

- (1) 사업목적
 - 통일한국 시대에 맞는 대학의 비전 및 인재상을 공유하고, 평화·통일, 분단 관련 현장 지역 방문과 특강을 통해 미래 시대 통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필요성

- 평화·통일의 미래상이 반영된 대학비전에 대하여 학생,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또한 철원, 화진, 양구, 고성 등 접경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행사 기획 및 운영의 실질적인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 주요 성과

- (1) 평화·통일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 2019.8.13.~8.16 3박 4일 간 학교 구성원 87명(학생 49명, 교직원 38명)간 평화·통일에 대한 의미를 공유함. 특히 도내 접경지역으로서 철원 DMZ 평화 생태공원, 백마고지 등, 화진 평화의 댐, 양구 두타연 DMZ, 제4땅굴, 을지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 및 남북 출입사무소, DMZ 박물관 등의 기관 및 지역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통일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함.
- (2)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서 비전 및 목표 공유
 - 미래의 통일한국 시대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비전 및 목표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 간 공유 및 공감대를 형성함.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 역량에 대한 의미와 이를 개발하기 위한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유를 진행함.
- (3)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제고
 - DMZ 탐방, 통일한국을 대비한 강원대학교 학생의 역할에 대한 특강 및 토론 등의 이론과 실제를 병행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함.

○ 사업의 우수성

- 학생,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 간 통일, 평화,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 가능

○ 사업 진행 사진



○ 언론 보도 사례 (한국대학신문 2019. 8. 13일 기사; 연합뉴스, 강원일보, News1, 노컷뉴스, 대학저널,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대, DMZ 평화 국토 대장정 출정

신석필 기자 shshsh@news1.net | © 연합 2019.08.13 22:34 | 5면

DMZ 평화 국토대장정 출정식.

한국대학신문 신석필 기자 강원대학교(총장 김명환)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DMZ 일원을 걸으며 통일을 몸감하는 DMZ 평화 국토 대장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 대장정에는 김명환 총장과 조준필 대외협력부총장, 이규경 학생처장 등 주요 부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39명과 학생 49명 등 총 88명이 참가하며, 철원군 백마고지부터 화진 평화의담과 양구 두타연 등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강원도내 DMZ 접경지역 4개 시군 연변유적지를 방문한다.

참가자들은 13일 오전 9시 30분 출발에 앞서 출정식을 거행하고, 첫차날과 둘째날 당일출발을 마치는 뒤에는 통일강원연구원과 DMZ HEMP센터 김명환 교수가 통일한국을 대비한 강원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준비하는 자세를 특강 및 토론을 펼친다.

김명환 총장은 "이번 DMZ 평화 국토 대장정을 통해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88년의 왕가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 대학이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정번호 : 강원대학교 후원회계 및 계좌번호

및 주제 기반 논의의 토대가 됨.

-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동해평화학교 후속으로 강릉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동해평화'라는 새로운 지평을 알리고 장기적인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함. 구체적으로 기 운영 중이던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답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고성의 DMZ박물관과 속초 실험민문화촌 답사를 포함해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특강 및 토론회를 진행함.
- 프로그램 진행 일정

일시	일정
(1일자) 19.11.15 13:00~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박물관 앞 집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3명)- 개별이동
14:30	고성통일전망대
15:00 - 17:00	고성DMZ박물관
18:00 - 19:00	속초 이동 및 식사
19:00 - 21:00	강의 및 토론 진행: 이선형(강원대학교 사회대학장) 강연: 홍석필(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세넬토: 이동기(강릉원주대 박물관장), 함명훈(전 고성군의원), 임유진(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질의응답: 학생 및 참가자 전원
21:00~	자유 시간 및 취침
(2일자) 19.11.16 08:00~09:00	기상 후 아침 식사
10:00~	고성 출발
11:00~12:30	속초 시립박물관과 실험민문화촌 답사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30	속초에서 출발, 강원원주대학교 도착 후 해산

‘동해평화로(路)!’

2019년 동해평화 답사

2019. 11. 15(화) ~ 16(토)
강원도 고성·속초(속초·레이크온 리조트)

교육세미나
강연: 이선형(강원대학교 사회대학장)
강연: 홍석필(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세넬토: 이동기(강릉원주대 박물관장), 함명훈(전 고성군의원), 임유진(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질의응답: 학생 및 참가자 전원

행사 일시
고성통일전망대, 고성DMZ박물관, 속초 시립박물관, 실험민문화촌

아) 동해평화로(路)! : 2019년 동해평화 답사

- 일시 및 장소 : 2019.11.15.(금) 13:00~ 11.16.(토) 14:30 / 강원도 고성, 속초 등
- 대상 : 대학생 및 교수진 등 30명
- 주최 및 주관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 진행 취지 및 목표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공동 주최로 마련된 '동해평화학교'의 성공적 경험은 강원 지역의 대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자) 본단의 장소에서 통일 한국의 방향을 묻다

- 일시 및 장소 : 2019.11.09.(토) 08:00~17:50 / 강원도 통일 관련 유적지 일대
- 대상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의 역사 수강생 등 대학생 30여명
- 프로그램 진행 내용 : '본단의 장소에서 통일 한국의 방향을 묻다' 를 주제로 고성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이승만-김일성 별장, 속초시립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DMZ에 대한 이해와 실감, 이산가족에 대한 직·간접적 이해를 도모하고, 참여자 간 현장체험의 결과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확산의 폭을 넓힘.



차) 야생동물 질병학 DMZ 견학

- 일시 및 장소 : 2019.11.27.(수) 09:00~18:00 / 양구 DMZ 근교
- 대상 : 대학생 및 전입교원 등 32여명
- 프로그램 제안 배경
 - 강원대학교는 수의과대학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따라 통일 한국의 중심대학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여 동물질병 예방 및 방역 분야에서의 교류를 기대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학술 및 교육 부문에서도 통일시대에 맞는 특성화된 수의과대학으로 체계화된 통일 교육을 개발하고 정착시키고자 함.
 -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DMZ의 야생동물 질병은 전염병의 감염원 및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의 통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DMZ에서의 야생동물들을 보존하면서 주요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DMZ 권역별 야생동물에 대한 공동의 역학조사, 야생 멧돼지의 이동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위험 분석, 야생동물 질환의 진단 및 대응기술의 개발 등의 과제가 야생동물 남북한 방역 체계에 필요함.
 -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은 강원도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으로 DMZ를 포함하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타 수의과대학에 비하여 야생동물 분야에서 학계

및 사회적 인지도가 높음. 수의학과 전공필수 과목으로 야생동물 질병학이 3학년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편성되어 있으며, 이 교과목은 DMZ 지역의 야생동물질환에 대한 수의분야 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핵심과목임.

- "야생동물질병학"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통일 교육의 중요 교과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본 프로그램인 DMZ 견학은 통일 교육의 체계화 및 "야생동물질병학"의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함.

- 프로그램 진행 일정 및 내용
- 실습 예정지: 양구군 DMZ 근교
- 실습 내용
 - ① 우리나라 DMZ 이해
 - ② 양구산양 증식장 : 천연기념물 산양의 생태관찰
 - ③ 야생조류 방사 : 흰뺨검둥오리 2마리
- 세부 일정

시간	세부 교육 내용
09:00	강원대 수의학관 집결 및 출발
09:00~10:30	DMZ 출입신청
10:30~12:30	양구 DMZ 견학 및 맛굴 체험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양구산양증식센터 견학 산양생태관찰
14:30~16:00	두타연 탈방 및 야생조류 방사
16:00~17:30	강원대학교 도착 및 해산

카) 산림대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9.12.20.(금)~12.21(토) / 강원도 고성군 일대
- 대상 : 학생 등 25명
- 진행 내용 : 학생 및 교수진 등 고성군의 동부지방산림청 고성평화양묘사업소 및 화진포생태박물관, DMZ박물관,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하여 미래 남북산림협력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특히 고성평화양묘사업소는 대북 양묘사업과 남북관계, 산림청의 대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산림과학기술교류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타) 통일창업 아이디어 관련 특강

- 일시 및 장소 : 2019.9.11.(월) 16:50~18:30 / 글로벌경영관 컨퍼런스홀
- 대상 : 대학생 및 전입교원 등 106명
- 진행자 : 김영희 북한학 박사
- 진행 내용 : 북한경제체제의 과거와 현 김정은체제로 구분해 설명하였으며, 북한 시장경제체제의 변화 사고 및 배경과 북한 국민들의 상품 구매 패턴과 사유의 변화를 설명함. 더불어 북한 경제개방시 우리 젊은이들이 주의 내지 추구해야 할 마음가짐과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특강을 진행함.



파) 정치참여와 인권

- 일시 및 장소 : 2019.10.18.(금) 14:00 / 60주년 기념관 111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수자 등 215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김영미 기자(기자,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 진행내용 : 다큐멘터리 피디가 바라본 전쟁의 의미,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미에 대해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과 미국의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제시하고, 소통·공감·인류애와 평화교육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단을 극복할 것이라

를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공정무역, 분쟁지역 관심 갖기,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후원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함.



하) 영화와 정치 : 굿바이 마이리브

- 일시 및 장소 : 2019.10.30.(수) 14:00 / 60주년 기념관 111호
- 대상 : 대학생 및 교수자 등 215명
- 진행자 및 진행 내용
 - 진행자 : 김소영 감독/교수(영화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 진행내용 :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탈북인, 미망인, 고려인 등의 인터뷰와 당대 기록의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활용해 정치적 신념과 예술을 혼합한 열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함.



거) 헤르니모 영화이야기

- 일시 및 장소 : 2019.11.20.(수) 13:00~15:00 / CGV 춘천점
- 대상 : 대학생, 지역주민 등 50여명
- 진행자 : 전후성 감독
- 진행 내용 및 일정 :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쿠바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헤르니모(임은조)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영화 '헤르니모'를 통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의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 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2.5 온라인 평화 공감 시리즈 제작

2.5.1 주요내용

- 평화·통일, 북한 관련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를 대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했던 생애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평화이슈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에 기여

2.5.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제작편수 5건	220% (1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5) 2019 온라인 평화 공감 시리즈 제작 기획 • (19.6.25) 인터뷰 대상자 및 촬영감독 선정 및 일부 사전 미팅 진행 -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고동훈(평양과학기술대 부총장), 정지석(국경선평화학교), DMZ 평화상 수상자 등 • (19.7.26) 온라인 평화 공감 촬영 및 제작 관련 회의 진행 • (19.9.18) 온라인 평화 공감 제작 방향 수정 - 당초 프로그램 기획 취지를 고려하여 1차년도에 경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평화 공감대 형성,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의 참여 및 확산을 통한 대중적인 접근 등을 도모하고자 대학생 평화공감 온라인 콘텐츠로 기획 방향 수정 • (19.11.28) 대학생 평화·통일 UCC 공모전 기획 • (19.12.30) 대학생 평화·통일 UCC 신청 20건 중 11건 수상 대상 선정 및 시상
2	정성	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평화·통일, 남북교류라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학과 및 전공의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을 UCC로 제작함으로써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함.
3	정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참여 조건에 제작 영상을 모두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으로 지정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유튜브 및 통일강원연구원 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함.

2.5.3 세부 운영 실적

가) (명사 부분)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제작 준비

○ 2019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제작 기획(안)

(1) 추진 배경 및 목적

- 통일부 지원'2019~2022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교육, 연구사업, 비교과·현장교육, 사회통일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온라인 평화공감'사업은 교과교육 사업의 일환이지만 정규 교양강좌의 형태를 탈피하고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을 통해 대학생 포함 일반인까지 누구나 쉽게 북한, 통일, 평화 관련 이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진행 개요

- 주제 : Conversation with Peace and Unification chapter 1. 연대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 연대를 위한 70년의 삶(가칭)』
- First Series Host - 이창복 (李昌馥)

(3) 기획의도

- 평화·통일 교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명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생애사 구술'방식으로 풀어냄으로써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완성도 있는 콘텐츠 제작물을 대중 홍보에 사용하여 한국의 평화·통일담론의 공감 확대와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기간(2019.3 ~ 2023.2) 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대표하는 명사의 영상물을 매해 5편 이상 총 20편 내외의 시리즈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4) 기획내용

- 진행 방법 및 내용
 - 생애사적 내용을 응답할 수 있는 인터뷰 문항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질문에 대한 대담 형식으로 진행 (예정)
- 주요 내용
 - '마지막 재야'라는 별칭을 지닌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민주화 운동 및 노동선교,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실천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음. 그가 바라보는 진정한 평화·통일운동이란 무엇일까?

- 질문 내용 (예시)

- 질문 1.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질문 2. 평화·통일운동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질문 3. 본인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문 4. 본인의 주요 경험에 대한 회고 및 성찰, 미래세대에 대한 제언
- 질문 5. 앞으로의 계획

(5) 제작 방법

- 1차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의 경우 2019. 5월 중 촬영 일정 조율을 통해 2~3일 집중 촬영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업로드용 : 40분 분량
- 유튜브 홍보용 : 7~8분 분량 (전체 촬영 중 핵심적 내용 위주 편집 예정)
- 제작 업체 : 외주제작(권정원 영화감독)

(6) 홍보 방안

- 유튜브 계정 운영을 통한 콘텐츠 아카이빙 시행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통일교육 선도대학' 계정 운영을 통한 유튜브 계정, 콘텐츠, 사업운영 홍보
- 각종 학술회 및 세미나 진행 시 관련 내용 안내 등

(7) 소요예산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계		10,000,000원	

(8) 기대효과

- 평화·통일 교육의 대중적 접근을 통한 관심 제고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사업기간 내 제작되는 '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전편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축적하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형태의 평화·통일 교육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콘텐츠로 기능

(9) 향후 계획 및 기타사항

- 촬영 감독을 포함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진행 방식, 일자, 내용, 소요예산 등 촬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조율 예정

○ 온라인 평화공감 동영상 제작(안) 관계자 회의 결과

(1) 인터뷰 대상자

-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DMZ 평화상 수상자 중 (2인 중 수상자)
- 고통훈(평양과학기술대 부총장)
- 송재경
- 정지석(국경선평화학교)
- 추가: 나눔의 집(수요집회), 파로호 사람들

<논의 결과>

- 1) 자료조사(preparation)-기획-설외내용. →(G1, KBS)→사전인터뷰 때 앨범, 생애사적 자료 요청. 방송자료, 본인자료 직접 수령 (자료조사 → 저작권(사진, 기록물) 확인)
 - contents의 질적 고민 → 8-12월
 - keyword: 업적과 관련된 자료는 → 화면 상에 제시
 - 아프거나, 회피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질문 목록 작성 필요
 - 지금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 2) 제작비용 진행 production : 200-300만원 소요 예정(카메라, 녹음기(사운드), 무선마이크 사용에 대한 비용 포함)
- 3) post 편집비용(자막, CG, 아카이빙 비용 발생, 아카이빙의 경우 외장하드. 학교 전산망 이용 확인) → 50-100만원선

(2) 촬영 방식

- 감독: 권경원 감독(010-7759-2960), 대표작(1991, 봄)
- 논의사항
 - 제작방식 : 좌담형식 or 동행취재 형태
 - 제작 진행 절차
 - 소요기간(촬영기간, 총 제작기간)
 - 소요비용(편당 제작비)
 - 소요인력

<논의 결과>

- 1) 소요기간 → (선택) 현장에서 찍는 게 가장 변수가 많이 발생하므로 고민 필요. 신뢰감이 있고 강의, 강연물과 같이 학교 대학에서 지속적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시리즈 제작물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 가능하나 결정 필요
- 2) 소요비용 → 편집만 100만원, 매체활용목적에 따라 비용은 다를 수 있음.

- 응모형식

- 애니메이션, 페러디, 모션그래픽, CF,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순수 창작 영상
- 최대 1분 30초 이내 mp4, avi, wmv 등 (해상도 1280x720 pixel 권장, 스마트폰 동영상 가능)
- ※ 외부자료(음원, 사진, 폰트 등) 사용 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음원 출처 반드시 명시
- 심사기준
 - 주제의 독창성(30점)
 - 내용 구성의 충실성(30점)
 - 콘텐츠 확산 가능성(20점)
 - 콘텐츠 영상의 질(20점)

- 시상계획

구분	팀(개인)	시상 내역
대상	1	상장 및 상금
최우수	1	상장 및 상금
우수	2	상장 및 상금
장려	3	상장 및 상금

- 수상작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소속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 수상자의 결과물 게재(홈페이지, 포럼 등)
- ※ 참여 콘텐츠 수가 많지 않거나, 질 미흡 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상 내역은 제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다른 공모전 등에 미발표된 내용이어야 하며, 표절 시 수상자격 박탈

○ 제출 결과 및 시상내역

- 강원지역 대학생 평화·통일 UCC 공모전에 신청한 총 20건 중 11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대학생 평화·통일 UCC 공모전 시상 내역 >

순번	시상 구분	참여 대학 및 학과	UCC 공모 주제
1	대상	한림성심대 영상콘텐츠과	통일을 위한 매듭들기
2	최우수	연세대 미래국제관계학과	문화교류를 통한 통일
3	우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통일은 알리오올리오처럼
4	우수	강원대 율리교육과	'Why' - 관심을 묻다
5	우수	강릉원주대 역사교육과, 사학과	통일이 평화하자!
6	우수	강원대 율리교육과	평화를 바랍니다.

→ 예산에 맞춰서 켈리터 결정. 인건비 3인(마크, 조명) 대여비만 50~100만, 편당 3~400만원(최소)+a (인건비↑)
Total 최소 500~1,000(인건비 포함. 찍고, 자막 넣는 최소) 켈리터↑

3) 소요인력 → 2명 / 학생 인터뷰 1명, 조감독 역할 1명

4) 촬영물에 대한 제목, 출연자, 예산, 기획방향, 조력자(방송반 협의 등) 가능한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기획 필요

(3) 월별 제작 내용

<논의 결과>

- 1) 월별 제작 내용(안)의 경우 촬영물 제작 방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록 용도의 단편적 촬영물 제작이라면 월별 제작 가능하나, 콘텐츠에 집중해서 방송물의 형태라면 1~2편으로 축소해야 함.
- 2) 따라서, 사업 1차년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 취지인 '누구나 쉽게 통일교육 콘텐츠와 남북 교류에 대한 이슈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대중적인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나) (대학생 대상) 강원지역 대학생 평화·통일 UCC 공모전

○ 행사 목적

- 강원지역 대학생들에게 평화, 통일, 북한 이슈의 관심 제고
- 평화, 통일, 북한 관련 대학생 간 네트워크 구축
-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 및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도모

○ 진행 개요

- 공모주제 : 평화, 통일, 북한, 남북한 관계, 접경지역 등 관련 주제 일체
- 공모자격
- 강원지역 소재 2·3년제, 4년제 대학교 학부생(휴학생 가능, 단독 및 팀 구성 가능, 단, 팀별 참여 인원 5인 이하)
- 작품 응모 수 제한 없음.

순번	시상 구분	참여 대학 및 학과	UCC 공모 주제
7	장려	강원대 율리교육과	우리와 같은 한반도의 땅 북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곳의 인권 이야기
8	장려	강원대 영상디자인학과	이산가족
9	장려	강릉원주대 사학과	접경지 회복의 첫걸음
10	장려	강원대 회계학과	생각이 첫 걸음
11	장려	강원대 회계학과, 강릉원주대 사학과	한국전쟁과 초당순두부

- 학생 산출물 결과



- 시상 진행 사진



2.6 대학(원)생 논문발표 경진대회 개최

2.6.1 주요내용

- 평화·통일, 북한 관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경진대회 및 학위 논문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예비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

2.6.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논문 발표 수 5건	140%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8.26) 대학생 평화·통일 논문 경진대회 개최 진행을 위한 기본 계획(안) 수립 • (2019.9.24) 대학생 평화·통일 논문 경진대회 홍보 및 참가 신청 모집(18편 접수) • (2019.11.22.) 대학생 평화·통일 논문 경진대회 제출 결과 취합 및 심사 완료(7건 선정) • (2019.12.30.) 대학생 평화·통일 논문 시상 진행
2	정성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된 심사용 논문에 대한 전임교원의 엄정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공모과제 연관성 및 연구논리 전개의 정합성, 연구배경의 타당성, 시의 적절성, 창의성, 연구결과 기여도 측면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를 진행하였음. • 또한 교수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경진대회 참여자에게 전달하여 연구 결과의 질적 보완을 도모함(심사자의 경우 피드백 반영을 통한 수정 원고를 필히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회신 받음)
3	신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대상 평화·통일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 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 접수 완료(박사학위 논문 1편, 석사학위 논문 4편) • 학위논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박사학위 논문 1편, 석사학위 논문 3편으로 선정하였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수료 이후 학기 단위로 산출물 제출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2020-1학기 중으로 취합 예정임.

- 170 -

2.6.3 세부 운영 실적

가) 2019 강원지역 대학생 평화·통일 관련 논문경진대회

○ 사업 주요 내용

-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평화·통일, 북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연구 장려 및 지원을 통해 체계적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평화·통일 학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의 확산과 공유의 기회를 마련함.
 - 대학생 논문경진대회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북한, 남북한 문제 등 관련 이슈의 관심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 평화·통일, 북한, 남북한 관계, 접경지역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강원지역 소재 2·3년제, 4년제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논문 경진대회 개최
- 연구주제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체계성, 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평가하여 총 8편 이내(최우수 1편, 우수 3편 이내, 장려 4편 이내) 논문을 선정함.
- 수상작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소속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사업 추진 현황

- (2019.8.25) 강원지역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개최 계획(안) 수립
- (2019.8.30) 강원지역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개최 계획(안) 홍보 및 접수 시행
- (2019.9.20) 논문 경진대회 참가 신청 접수 완료 * 강원대 및 한림대 등 총 18편 접수
- (2019.11.22) 최종 산출물 제출 완료 및 심사 진행
- (2019.12.30.) 수상 논문에 대한 시상 진행

< 대학생 평화·통일 관련 논문 경진대회 시상 내역 >

NO	시상구분	소속 대학 및 학과	논문 주제
1	최우수	강원대 윤리교육과	북한의 도덕 교과서 분석과 비판적 고찰 (부제: 주요 가치 및 역량을 중심으로)
2	우수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융합형 ODA 사업모델
3	우수	강원대 윤리교육과	통일 민감성 향상을 위한 DMZ프로그램 개선 방향
4	우수	강릉원주대 사학과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5	장려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국가 간 관계개선사에 분석을 통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 제시: 독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6	장려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남북 고구려 역사교류협력력을 통한 심리적 통일 -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하여-
7	장려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통일 한반도 시대의 북한 산림복구에 관한 제언:신식민주의적 담론 형성에 관한

- 171 -

NO	시상구분	소속 대학 및 학과	논문 주제
		산림자원학과	경고와 강원대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나) 2019 강원대학교 대학원생 석·박사 논문 작성 지원

○ 사업 주요 내용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강원대학교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평화, 통일, 북한, 남북한 문제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평화, 통일, 북한, 남북한 문제 이슈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
- 석·박사 대학원생 연구 지원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비연구자, 비전공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강원대학교 석·박사 대상 평화·통일 관련 학위논문 진행 시 필요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대학교 대학원생(석·박사) 대상 평화·통일, 북한, 남북한 관계, 접경지역 등 관련 주제 학위 논문의 작성 지원하며 박사의 경우 1인당 300만원, 석사의 경우 1인당 150만원 지원 예정으로 해당 소요 예산은 자부담으로 진행함.
- 학위 논문 지원에 참여한 논문을 대상으로 통일강원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논문을 선정함.

- 172 -

○ 사업 추진 현황

- (2019.9.2) 강원대학교 대학원생 석·박사 논문 지원 계획(안) 수립
- (2019.9.4) 강원대학교 대학원생 석·박사 논문 지원 계획(안) 홍보 및 접수 시행
- (2019.10.20.) 학위논문 지원 신청 접수 완료 및 심사
- (2019.12.30.) 학위논문 지원 대상 선정

< 평화·통일 관련 학위논문 지원 대상 선정 결과 >

순번	구분	논문 주제
1	박사학위 논문 (강원대 국어교육과)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다문화 학습자의 읽기·쓰기 교육 방안 적용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eading · Writing Teaching Methods of Multicultural Students for Social Integration and Peace)
2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 음유의료재활학과)	북한 재활치료의 현재 : 직업치료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of Rehabilitation in North Korea ; Focused on Occupational Therapy)
3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중간지원조직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Local Government Governance for South-North 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upport of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
4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 국어교육과)	학습 목적 한국어 교수 학습 실태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actice of Korean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Purpose of Learning - a research into teaching of Korean language to an immigrant middle school student from Kazakhstan -)



- 173 -

2.7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2.7.1 주요내용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협력 및 연계하고 강원도, 인천광역시,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대학생이 참여하여 토론대회를 진행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의 소통의 장 마련 및 학생들의 평화·통일 이해에 대한 인식 제고

2.7.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목표 달성 내용	
			달성도	운영 실적
1	정량	토론대회 참가 학생 수 40명	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및 강원대 주관 2019 접경지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19.5.25~5.26) -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대학생 91명 신청자 중 57명 선발 - 12개 팀 중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 선발 - 토론대회, 문화교류, 초청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진행
2	정성	토론대회 주제의 다양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다양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실 가능성과 전문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바탕으로 총 4팀을 선정함. - 시상팀 주제1. 평화를 위한 교류의 씨앗, 한마음 농장 - 시상팀 주제2. 전통주 공동 복원, 문배주 - 시상팀 주제3. 우리말 골든벨, 한반도 방송 - 시상팀 주제4. 남북 잠사-양봉 기술협력

2.7.3 세부 운영 실적

가) 2019 접경지역 대학생 토론대회

○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목적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DMZ 평화경제벨트 프로젝트 구상의 일환으로 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대회 개최
- 통일 미래세대의 건전한 토론 문화조성과 접경지역 평화경제 발전 구상을 위한 대학생 교류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소통 및 교육의 장(場) 마련

(2) 사업 주요 내용

- 행사명 : 제2회 접경지역 대학생 토론대회
- 일시 및 장소 : '19.5.25(토)~5.26(일) [1박2일], DMZ산림두드림센터(강원 양구)
- 참석대상 :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대학생 57명
 - * 본선 진출자 58명 중 1명 개인 사정으로 불참
- 추진주체 : 강원도, 강원대학교, 신한은행, 지원재단 등 협업사업
- 주최 : 강원도·강원대학교
- 주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통일강원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
- 후원 : 경기도·인천광역시·신한은행
- 주요내용
 - 토론대회 : 남북 사회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대학생 토론대회 운영
 - 문화교류 :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
 - 초청특강 : 명사 특강, 토론 스피치 멘토링

○ 개최 결과

(1) 토론대회

- 참가자 :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대학생 57명
- 강원·경기·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주소지가 해당지역인 대학생
- 개인 또는 단체 신청 접수(단체 신청시 5인/팀 이내)
- 팀구성 : 총 12팀
- 총 신청인원 91명 중 사전 신청서를 통한 서류심사로 팀당 4~5명으로 12팀(57명) 선정
 - * 단체 신청 구성원은 동일 팀 편성, 개인 신청자는 사전설명회시 4~5인 1팀으로 랜덤 편성
- 토론 주제
 - 청년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번영을 준비하는 접경지역 발전방향
- 토론 논제

_____는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 토론방식: 다자간 변형 CEDA토론(팀별 다자간 토론)
- 1차전 : 3팀간 1:1:1 토론
- 2차전·결승전 : 2팀간 1:1 토론

- 토론 대진표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은 오전(1차전)·오후(2차전/결승전) 각 6명씩 총 12명 구성

구분	순번	심사위원		
		성명	소속	직위
25일 (일) 오전	1	전원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
	2	황수환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박사
	3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4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일자산연구센터	책임 연구원
	5	황석범	강원통일교육연구원 (인제 신남중)	교사
	6	송연희	강원통일교육연구원 (원주 영서고)	교사
25일 (일) 오후	7	이수영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
	8	이동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0	최원형	강원교육아카데미	사무국장
	11	최고봉	강원통일교육연구원 (홍천 내촌초)	교사
	12	박시연	강원통일교육연구원 (강릉 강일여고)	교사

- 토론대회 세부일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1일자 (5.25)	09:00	집결지 출발	서울시청 광장
	12:00	DMZ산림두드림센터 도착	
	12:00-13:00	중 식	식 당
	13:00-14:00	전체 일정 및 방 배정, 안전수칙 등 공지	세미나실
	14:00-16:00	토론 스피치 멘토링	리얼디베이트 양원호 대표
	16:00-18:00	토코 콘서트	인천대 주승현 교수
	18:00-19:00	석 식	식 당
	19:00-21:00	소통과 화합의 시간	세미나실
	21:00-	휴식 및 취침	숙 소
2일자 (5.26)	08:00-09:00	조 식	식 당
	09:00-10:00	대진 추첨 / 심사위원 교육	세미나실
	10:00-11:00	토론대회 1차전(1,2경기)	세미나실

일정	세부 내용	비고
11:00-12:00	토론대회 1차전(3,4경기)	세미나실
12:00-13:00	중 식	식 당
13:00-13:30	결과 집계 및 2차 진출자 발표	세미나실
13:30-14:20	토론대회 2차전(1,2경기)	세미나실
14:20-14:30	결과 집계 및 결승 진출자 발표	세미나실
14:30-14:50	휴식	
14:50-15:30	토론대회 결승전	세미나실
15:30-16:00	마무리 및 시상식 준비	세미나실
16:00-16:30	토론대회 수상자 발표 및 시상	세미나실
16:30-17:00	정 리	숙 소
17:00-	DMZ산림두드림센터 출발	

- 심사결과

구분	팀명	발표주제	팀원	
최우수상 (1팀)	고성방가	평화를 위한 교류의 씨앗, 한마음농장	강재연	성균관대학교
			배지현	성균관대학교
			한민주	성균관대학교
			조재영	고려대학교
우수상 (1팀)	울림	전통주 공동 복원 : 문배주	박홍준	고려대학교
			고은별	강원대학교
			여수진	강원대학교
			조나린	강원대학교
장려상 (2팀)	얼음보숭이	우리말 골든벨 한반도 방송	오주한	강원대학교
			홍두표	강원대학교
			이다혜	성신여자대학교
			하현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부	남북 잠사-양봉 기술협력	권태용	한양대학교	
		김주영	University of Utah	
		이윤성	대진대학교	
		송다성	강원대학교	
			이가영	강원대학교
			이영재	강원대학교
			조하은	강원대학교

- 시상내역 : 상장 및 상금 지급

- 최우수상(강원통일교육센터장상) 1팀, 300만원
- 우수상(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상) 1팀, 200만원
- 장려상(신한은행장상) 2팀, 각 50만원
- 베스트스피커상(강원통일교육센터장상) 개인 10명, 각 10만원

(2) 문화교류 행사

- 접경지역 학생들 간의 소통 및 문화교류를 위해 청년이 듣고 싶은 명강의, 토론스피치 멘토링 강의 운영
- 초청 특강 :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주승헌 인천대 교수)
- 토론 강의 : 토론 스피치 멘토링(리얼디베이트 양원모 대표)

○ 사업 진행 사진



○ 홍보 포스터 및 언론 보도 사례 (대학저널, 에듀동아, 뉴스1, MTN 등 2019.5.21.일자 기사)



2.8 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

2.8.1 주요내용

- 평화·통일, 북한 관련 주제에 대한 해외 학술회의의 참가 또는 석학 초청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해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8.2 추진과제 운영실적

No	구분	당초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 내용		
				운영 실적		
1	정량	해외 학술회의 참가 2회	200% (4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학술회의의 참석 및 발표를 통해 평화·통일, 남북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및 실적 확산 시행 • 평화·통일과 관련된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기반 마련 		
				No	일자	주제
				1	19.5.8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강연 및 한국학연구원과의 협력방안 논의
				2	19.5.5~5.8	Peacebuilding and Local Communities in Post-Conflict Societies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3	19.6.16.~6.18	중국 남개대학 북한교류학술회의 참석				
4	19.8.4.~8.6	일본 국제학술회의 참석; 핵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21세기로!				
2	정량	해외 대학/기관 MOU 1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MOU 체결 완료 		
3	정량	해외 학자/전문가 초청 3명	300% (초청 전문가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Chancellor,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송남선 교수, 일본 기후코리드대학 김광욱 박사, 김강일 연변대 교수 등 초청 및 학술 교류 완료 • 국제학술심포지움,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11.12.(화) - 참석대상 : 크리스토퍼 힐(前 주한 미국대사), 존브래드쇼(Broad Oak Group International 대표), 에릭존(前 주한 미국대사), 이즈미히라(도쿄국제대 교수), 진경이(북경대 교수) 등 • 해외 학술회의의 참가 및 현장답사, 해외 학자 및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해외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4	정성	해외 기관 및 전문가 교류 활용 결과의 다양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기관과의 MOU 실적, 해외 교류 결과 등에 대하여 통일강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함. • 국내 포럼 및 특강 진행 시 주제 및 내용과 관련해 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실적을 공유하고 있음. 		

2.8.3 세부 운영 실적

가) 해외 학술회의의 참가 실적

○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강연 및 한국학연구소와의 협력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19.5.8.(수) / 영국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한국학연구소
- 진행 내용 : 영국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의 한국학연구소에서 강연을 요청하였고, 강원대학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 Peacebuilding and Local Communities in Post-Conflict Societies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9.5.5.(일)~5.8.(수) / Trinity College Dublin
- 진행 내용 : 한국의 통일연구원과 Trinity College Dublin이 공동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DMZ and South-North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 중국 남개대학 북한교류학술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9.6.16.(일)~6.18(화) / 중국
- 진행 내용 : 남북한 대학 과학자들의 국제 심포지움을 통한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중국 남개대학에서 개최되는 East-Asia 지역 국가 과학자 학술 심포지엄(Research Symposium in Transdisciplinary Nanoscience)에 참석하였으며 및 논문 발표를 진행함.

○ 일본 국제학술회의 참석: 핵도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21세기로!

- 일시 및 장소 : 2019.8.4.(일)~8.6(화) / 일본 히로시마
- 진행 내용 :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군축의 과제 등을 주제로 피폭 74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발제를 진행함.

나) 해외 대학 및 기관 MOU 체결

○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와 MOU 체결 (2019.7.16일자)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made</p> <p>BETWEEN</p> <p>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 a statutory higher education corporation with charitable status in England, having its registered address at Preston, Lancashire PR1 2QE</p> <p>AND</p> <p>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n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its registered address at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5341</p> <p>PREAMBLE</p> <p>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arties" and each "Party") have entered into a co-operative MOU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strategic alliance in education and training.</p> <p>The Parties agree as follows:</p> <p>1. Length of MOU</p> <p>1.1 This MOU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signing by authorised parties in each institution for one calendar year and will form an initial framework for further formal Agreements to be drawn up between the Parties.</p> <p>2. Statement of Intent</p> <p>2.1 The Parties will discuss and agree a formal framework of future collaboration. These discussions will include, (but not necessarily be limited to):</p> <p>2.1.1 the identification of disciplines which may result in collaborative programmes between both institutions;</p> <p>2.1.2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procedures in order to support and administer the areas identified in 2.1.1;</p> <p>2.1.3 the management of quality assurance and regulatory compliance processes;</p> <p>2.1.4 collaboration in teaching, learning, 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which are beneficial to both parties;</p> <p>2.1.5 staff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the staff of both Parties;</p> <p>2.1.6 marketing and promotion activities.</p> <p>2.2 Future collaboration agreed within the context of this MOU shall be covered by a legally binding Institutional Agreement and Memoranda of Co-Operation.</p>	<p>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made</p> <p>BETWEEN</p> <p>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 a statutory higher education corporation with charitable status in England, having its registered address at Preston, Lancashire PR1 2QE</p> <p>AND</p> <p>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n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its registered address at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5341</p> <p>PREAMBLE</p> <p>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arties" and each "Party") have entered into a co-operative MOU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strategic alliance in education and training.</p> <p>The Parties agree as follows:</p> <p>1. Length of MOU</p> <p>1.1 This MOU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signing by authorised parties in each institution for one calendar year and will form an initial framework for further formal Agreements to be drawn up between the Parties.</p> <p>2. Statement of Intent</p> <p>2.1 The Parties will discuss and agree a formal framework of future collaboration. These discussions will include, (but not necessarily be limited to):</p> <p>2.1.1 the identification of disciplines which may result in collaborative programmes between both institutions;</p> <p>2.1.2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procedures in order to support and administer the areas identified in 2.1.1;</p> <p>2.1.3 the management of quality assurance and regulatory compliance processes;</p> <p>2.1.4 collaboration in teaching, learning, 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which are beneficial to both parties;</p> <p>2.1.5 staff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the staff of both Parties;</p> <p>2.1.6 marketing and promotion activities.</p> <p>2.2 Future collaboration agreed within the context of this MOU shall be covered by a legally binding Institutional Agreement and Memoranda of Co-Operation.</p>

다) 해외 교류 실적(학술회의의 개최 및 국제 교류)

○ 북한의 과학기술현황과 남북교류 협력

- 일시 및 장소 : 2019.7.10.(수) 14:00 ~ 16:0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 진행자 :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Chancellor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통일부 통일교육원, 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진행 내용 : 2000년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변화와 과학기술 현황, 과학기술을 접목한 교육의 변화 형태, 남북교류 및 협력 사례와 전망, 평양과학기술대학 현황과 역할 등에 관하여 포럼 및 특강을 진행함.



○ 툴키디데스 함정과 한일관계

- 일시 및 장소 : 2019.9.6.(금) 10:00 ~ 12:0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30명
- 진행자 : 일본 기후료리츠대학 김광욱 박사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툴키디데스 예시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주변국들과의 관계, 미중대립 및 북미대립 상황 속에서의 한일관계 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강연 주제에 대해 참여인원과 의견을 공유함.



○ 분단과 제일교포, 그리고 한일관계

- 일시 및 장소 : 2019.9.17.(화) 14:00 ~ 16:0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대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70명
- 진행자 :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송남선 교수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통일교육센터/강원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진행 내용 : 제일교포의 구성 및 형성과정,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립된 제일교포의 의미, 한일 관계 속에서 제일교포의 사회적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강연 주제에 대해 참여인원과 의견을 공유함.



○ 북한의 개혁개방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및 장소 : 2019.10.22(화) 14:00 ~ 15:30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 진행자 : 김강일 연변대 교수
- 주최 및 주관, 후원 : 대한석탄공사,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강원통일교육센터/강원일보사
- 진행 내용 :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과 개혁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북미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이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를 모색하고자 함.



○ 2019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11.12.(화) 09:30~17:40 /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컨퍼런스홀
- 대상 : 관계자, 지역주민, 대학생 등 약 300여명
- 참석자 : 크리스토퍼 힐(전 미국부부 아태차관보, 전 주한 미국대사), 에릭 존(전 미국대사, 현 보잉코리아 사장), 존 브래드록(Broad Oak Group International 대표), 최완규(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즈미하시메(도쿄 국제대 교수), 진장이(qnrdeo 교수) 등
- 주최 및 후원 :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강원일보 / 강원도
- 진행 내용
 - (1) 대주제 : 동북아시아의 질서 변화와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 (2) 추진 배경
 - 2018년 이후 기대가 고조되었던 한반도 평화와 변명의 분위기가 2019년 상반기 이후 침체되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 북미, 한일 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 구축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와 강원도의 관련 기관들이 향후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유의할 것으로 판단함.
 - 미국과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 또는 소규모 창업지원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발굴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3) 프로그램 운영(안)

시간	내용
09:30~11:30	[세션1] 지역재생, 지역혁신과 남북강원도의 발전 사회 : 김진영 (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협력아카데미 원장) 발표 : • John C. Braddock (Broad Oak Group)

시간	내용
11:30~13:30	오후 1시~2시 - 콜로라도의 지역 재생과 지역발전 *윤정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와 지역발전 *김희준 (이그나이트 대표) - 지역재생과 남북협력의 방향: 지역 창업 지원 사례 오찬 및 등록
13:30~14:00	개회식 환영사 : 김진영 강원대 총장 축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진호 강원일보사장
14:00~15:15 (Q&A 포함)	[기조연설] 격랑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평화 변명의 과제 연사 : 크리스토퍼 힐 (前 미국부부 아태차관보 / 前 주한 미국대사)
15:30~17:30	Coffee Break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의 입장과 역할 사회 : 김기석 (강원대학교 경외외교학과 교수) 패널 : 최완규 (한국,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에릭 존 (미국, 전 미국 대사/현 보잉코리아사장), 이즈미 하시메 (도쿄국제대학교 교수), 진장이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17:30~17:40	폐회

(4) 진행 내용

- 미중, 북미, 한일 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함. 또한 강원도와 강원도 유관 기관들의 남북교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 및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논의함. 구체적으로 지역재생, 지역혁신과 남북강원도의 발전을 주제 존 브래드록(Broad Oak Group International 대표) 등의 발표와 크리스토퍼 힐(전 미국부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전 주한미국대사)의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에릭 존(전 미국대사, 현 보잉코리아 사장), 진장이(북경대 교수), 이즈미 하시메(도쿄국제대 교수) 등의 패널 발표를 진행함.



○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 일시 및 장소 : 2019.11.13.(수) 09:00~11:30 / 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 주최 및 주관 : 통일강원연구원 /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진경이 교수(북경대학교)를 초청하여 북중관계의 역사, 중국 및 북한의 개혁개방 시도 사례,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요소의 확장 사례 등을 토대로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포럼을 개최함.



○ 에너지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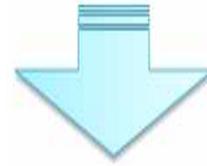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2019.11.25.(월) 16:00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 주최 및 주관 : 대한석탄공사, 통일강원연구원 /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남북 평화공존시대에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 베른하르트 켈리거 대표를 초청해 '에너지 정책과 남북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독일 통일과정의 중요한 시사점과 향후 남북 에너지 협력 가능성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였음.



○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 변화

- 일시 및 장소 : 2019.12.10.(화) 14:00~15:30 / 대한석탄공사 본사 5층 대강당
- 대상 :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 주최 및 주관 : 대한석탄공사, 통일강원연구원 / 강원통일교육센터

- 진행 내용 : 남북 평화에너지 활용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북한 국영기업소의 운영방식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피터 빈대학교 연구원을 초청해 포럼을 진행하였음.



【 1차년도 예상 성과 】

- 다양한 학과영역에서 평화·통일·북한관련 강좌 신설·개편 추진
 - 교육학, 정치학, 인문학, 수의학, 산림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평화·통일 관련 기존 강좌의 교육과정 개편, 신규 강좌 개설 추진
- 온라인 영역을 통한 평화·통일·북한 관련 이슈의 확산 추진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화공감을 제작하여 평화·통일 이슈의 관심도 증가 기여
-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 제공
 - 토론대회, 논문발표대회, 학술대회 등에서 평화·통일·북한관련 대학생의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성과
-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의 확산 기여
 - 강원, 경기, 인천 지역 대학생과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 진행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해외단체와의 교류 확대 성과
 - 미국, 중국, 일본의 학자와 단체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관련 내용의 교류 진행

III 2019년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등

i 잘된 점

- 대학 내 비연관학과와의 창의적인 평화·통일 교과 개발 및 강좌 다수 개설
- 교내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광복적인 참여군(group) 확보
- 강원대학교 교내·외 평화·통일,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폭발적 관심 제고
- 강원도내 대학간 평화·통일, 북한 관련 네트워크 구축
- 평화·통일,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강원대학(원)생의 관심 및 참여의 비약적 상승
- 평화·통일, 북한 관련 강원도내 대학, 대학(원)생, 강원도민간 협력적 연대의식 제고

ii 향후 발전방안

- 평화·통일, 북한 관련 강좌 개설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 교내 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연구 및 개발 관련 상설플랫폼 구축
- 평화·통일, 북한 관련 학술 연구 뿐 아니라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연계를 마련
- 강원도내 대학간 평화·통일, 북한 관련 네트워크 상설화
- 평화·통일, 북한 관련 강원도내 대학, NGO, 유관기관, 지자체와 거버넌스로의 발전

iii 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 (예산 집행의 탄력성) 차별화되고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별 지출비목의 별도 설정이 아닌 지출 비목 중심의 예산 집행 방식 강구 필요
 - (사업단 인력 활용 방법의 변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임연구원의 자체 채용 또는 사업단 운영비 비율 상향 조정 필요
 - (사업 참여 전문가 강사료 기준 현실화) 선도대학 운영 특성 상 학술 및 심

포지언, 교과개발, 연구지원 등 전문가 활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 초청 연사료 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

【끝】